

文學碩士 學位論文

포항 이인지구 청동기시대 유적을 통한
취락연구

慶州大學校 大學院

文 化 財 學 科

張 正 民

2019年 12月

포항 이인지구 청동기시대 유적을 통한 취락연구

指導教授 姜 奉 遠

이 論文을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19年 12月

慶州大學校 大學院

文化財學科

張 正 民

張正民의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정병호 

審査委員 조진영 

審査委員 장봉원 장봉원 ✓

慶州大學校 大學院

2019年 12月

- 목 차 -

I. 머리말	1
1. 연구목적과 방법	1
2. 연구사	3
3. 편년	7
II. 초곡천의 입지와 주변유적의 성격	14
1. 초곡천의 입지	14
2. 주변유적	19
3. 취락의 성격	30
III. 이인지구 유적의 검토	41
1. 주거지 및 유물	41
2. 유적의 성격	63
IV. 이인지구 유적의 취락분석	67
1. 취락의 특징	67
2. 취락의 구성	70
V. 맺음말	79
참고문헌	81
Abstract	84

< 표 목차 >

표 1. 4분기설에 따른 편년표	7
표 2. 형산강 유역 연구자의 관점에 따른 청동기시대 편년	8
표 3. 청동기시대 3분기 설에 입각한 본 글의 편년	10
표 4. 초곡천 유역 시기별 평균 해발고도	31
표 5. 초곡천 유역의 유적 입지 분류표	32
표 6. 초곡천 유역 주거지 C-14연대분석 결과표	35
표 7. 주거지 형태 및 면적 기준표	36
표 8. 초곡천 유역 주거지 형태별 빈도수	37
표 9. 초곡천 유역 주거지 면적 빈도수	38
표 10. 초곡천 유역 출토유물 빈도수	40
표 11. 이인지구 유적 내 주거지 평면형태	41
표 12. 이인지구 유적 주거지 형태분류	42
표 13. 이인지구 유적 주거지 면적분류	42
표 14. 이인지구 유적 주거지 도수분포	43
표 15. 이인지구 유적 주거지 면적 및 형태별 빈도수	44
표 16. 이인지구 유적 노지 형태분류	45
표 17. 이인지구 유적 주거지 주혈배치 양상	46
표 18. 이인지구 유적 주거지 배구수 형태	47
표 19. 기종별 출토위치	48
표 20. 이인지구 유적 출토 발형토기 형태	49
표 21. 초곡천 유역 출토 발형토기의 형태	49
표 22. 이인지구 유적 출토 적색마연토기의 형태	50
표 23. 적색마연토기 구연부 분류안	51
표 24. 초곡천 유역 출토 적색마연토기의 형태	51
표 25. 두형토기의 형태	52
표 26. 초곡천 유역 두형토기의 형태	52
표 27. 두형토기 분류안	53
표 28. 이인지구 유적 출토 토기 문양별 분류표	55

표 29. 이인지구 유적 출토 석촉 분류	56
표 30. 초곡천 유역 출토 석촉의 형태	56
표 31. 이인지구 유적 출토 석검 분류	57
표 32. 초곡천 유역 출토 석검의 형태	57
표 33. 초곡천 유역 출토 석부 형태	59
표 34. 이인지구 유적 출토 석부 분류	59
표 35. 이인지구 유적 출토 반월형석도 형식분류	61
표 36. 초곡천 유역 출토 반월형석도의 형태	61
표 37. 생업관련 유구별 출토유물 알림표	62
표 38. 유구 및 유물 공반관계	63
표 39. 이인지구 유적 출토유물 빈도수	64
표 40. 이인지구 유적 석곽묘 형태	76
표 41. 이인지구 유적 석곽묘 형태와 유사한 유적	76

< 도면 목차 >

도면 1. 전기 주거지 형태 및 유물	11
도면 2. 중기 주거지 형태 및 유물	12
도면 3. 후기 주거지 형태 및 유물	13
도면 4. 포항 남송리 유적 현황도	20
도면 5. 포항 초곡리 유적 현황도	20
도면 6. 포항 성곡리 유적 현황도	21
도면 7. 포항 이인리 청동기시대 취락유적 현황도	22
도면 8. 포항 이인리 청동기시대Ⅱ 취락유적 현황도	23
도면 9. 포항 대련리 청동기시대 취락유적 현황도	24
도면 10. 포항 성곡리 I·Ⅱ유적 현황도	25
도면 11. 포항 대련리(학당골) 청동기시대 취락유적 현황도	26
도면 12. 초곡리 취락유적 현황도	27
도면 13. 포항 남송리 유적 I 현황도	28
도면 14. 남송리 Ⅱ,Ⅲ유적 현황도	29
도면 15. 이인지구 유적 시기별 주거지 배치형태	65
도면 16. 이인지구 취락 형태 모식도	67
도면 17. 포항 호동유적Ⅱ 유구배치도	68
도면 18. 포항 원동3지구 유적 유구배치도	68
도면 19. 이인지구 유적 및 주변지형	70
도면 20. 울산 검단리 환호유적	72
도면 21. 울산 방기리 청동기시대 취락유적	72
도면 22. 울산 천상리 취락유적	73
도면 23. 대구 동천동 취락유적	73
도면 24. 이인지구 유적 취락구성 모식도	75

< 지도 목차 >

지도 1. 초곡천 유역 하천 분포지도	16
지도 2. 조사대상지 위치 및 주변 지질도	17
지도 3. 초곡천 유역 유적분포도	18

I. 머리말

1. 연구목적 및 방법

이 논문은 포항시 흥해읍에 위치한 초곡천 유역에서 발굴한 포항 이인리 청동기시대 취락 구조에 관한 연구이다. 연구대상지 포항 이인지구 유적(이하 이인지구)은¹⁾ 형산강의 북쪽에 위치한 소하천인 초곡천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다. 초곡천은 형산강의 지류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으로 12개의 유적이 초곡천에 인접하여 분포하고 있다²⁾. 하지만 이 유적들은 대부분 발굴조사 면적이 협소하여 취락의 일부분만 조사되었기 때문에 연구에서 소외되어 왔다.

지금까지의 취락과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시기와 생업경제와 관련되었다. 이러한 연구가 유적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취락의 조성 배경은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연구 범위도 취락의 출현 빈도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큰 하천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초곡천과 같은 소하천 주변 유적은 상대적으로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연구대상지인 이인지구는 취락의 형성 조건에 일부 충족하는 대규모 취락이라는 측면과 그동안 연구에서 소외되었던 소하천 주변 취락이라는 사실에서 초곡천 유역의 타 유적과 구별된다. 이에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이인지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³⁾.

첫째, 초곡천을 중심으로 하는 유적을 검토한 후 이인지구 유적과의 관계성을 밝힌다. 또한 초곡천의 수계에 대한 연구를 함께 제시한다. 이를 통해 주변 비슷한 규모의 하천이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초곡천 유적에 청동기시대 취락이 밀집된 배경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초곡천 유역 청동기시대 취락에 대한 연구 결과를 확인하여, 이인지구 취락유적과 비교분석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인지구의 지형적 특성을 파악하고, 유구와 출토된 유물을 통해 편년을 수립하여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시한다.

셋째, 이인지구 유적의 입지와 시기별 유구의 분포양상, 공간을 분석한다.

1) 한빛문화재연구원, 2019, 『포항 이인리 유적』.

2) 이인지구 유적을 포함한 339동의 주거지가 조사되었다. 그 외 구상유구, 수혈, 주혈 등이 발굴되었지만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과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아 별도 유구는 언급하지 않았다.

3)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리 361번지 일원으로 포항 이인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따라 2014년 07월~2017년 05월까지 한빛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조사구역은 5개 구역으로 이 중 2구역에서 청동기시대 취락유적이 발견되었다. 필자는 2016년 이 청동기시대 취락유적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 계기로 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는 앞서 제시한 두 가지 배경과 함께 취락의 입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하며, 더불어 취락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된다.

넷째, 제시한 세 가지 배경을 통해 이인지구 내 취락의 입지와 생활공간, 규모 등을 복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이를 통하여 각 영역별 공간 사용에 대한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초곡천 주변으로 확인된 유적들과 비교하여 이인지구 유적의 특징을 함께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청동기시대 당시 왜 이인지구의 사람들은 취락을 조성했을까 라는 의문을 해결하고, 초곡천의 주변 상황과 취락 구조의 어떤 특징들이 이곳에 대규모 취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리고 조성된 취락 내 구조를 통해 외부의 침략에 대한 대응방법과 어떻게 생활하였는지를 추정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연구방법은 먼저 시기를 구분하고, 연구범위를 설정하였다. 청동기시대 시기 구분은 전기와 후기로 구분되는 2분기에서 조기-전기-중기-후기로 구분하는 4분기설이 있다. 이 글에서는 조기를 제외한 전기-중기-후기로 연대를 구분하고자 한다. 연구범위는 이인지구 유적 중 구룡지 전체가 발굴조사된 2구역을 중심으로 하였고, 주변 유적으로는 초곡천 주변 반경 1km 이내 지역 내 유적(포항 대련리 유적 외 12곳)을 대상으로 하였다⁴⁾.

본문은 크게 3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먼저 II장에서는 이인지구 유적의 주변 취락을 검토하였다. II-1절에서는 주변취락 검토에 앞서 초곡천 유역의 지리적 입지를 살펴보았고 II-2절에서는 초곡천과 인접한 주변유적의 성격을 파악하였다. III장에서는 이인지구 유적의 주거지와 유물을 검토한 후 유적 성격을 파악하였다. IV장에서는 이인지구 유적의 입지 및 지형을 분석하고 취락 내 공간구성을 분석하였다.

4) 청동기시대 유적이 반경 1km 내에 모두 분포하고 있어 범위를 한정하였으며, 반경을 벗어난 유적에서는 연구대상의 시기와 관련이 없는 유적들이 조사되어 연구범위에서 배제 하였다.

2. 연구사

포항지역은 2000년대 동남해안을 중심으로 한 무문토기문화 연구대상지에 한 지역으로 연구가 시작되었다⁵⁾. 이후 형산강 유역인 포항-경주를 중심으로 청동기시대 주거지 발굴이 많이 이루어지고 자료가 축적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자연스레 연구자들의 이목을 끌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형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취락에 대해 편년을 나누고 생업경제를 비롯하여 인구분석까지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먼저 동진숙⁶⁾은 영남지역을 서남부, 대구, 동해안지역으로 구분하여 주거지의 속성, 유물의 편년을 통해 각 지역의 편년과 특징에 대해 논하였는데 주거지는 세장방형, 장방형의 주거지는 변화하여 방형화 된다. 토기는 동해안지역은 이중구연 토기와 각목문 토기가 출현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황현진⁷⁾은 동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성 연구에서 동해안지역, 동남해안지역, 서부경남지역, 대구지역으로 구분 후 각 지역을 1~4기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이 중 포항지역과 인접한 동남해안 지역에서는 중기 이후 단순공열문과 함께 횡·사선의 날알문이 나타나며, 이후에 날알문과 무문양이 주를 이루는 등 타지역과 차이점을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또한 주거지 형태에서도 동남해안 지역은 방형계에 2열배치 주혈과 노지를 갖추는 반면 타지역은 중기 이후 말각방형 혹은 원형에 중앙의 저장공과 2개의 주혈이 나타나는 휴암리·송국리형 주거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비교하였다. 또한 유적의 입지조건 등 유구와 유물을 세세하게 검토한 바 있다.

박영구⁸⁾는 형산강 유역에 입지한 청동기시대 주거지 유형과 출토유물을 분석하여 초기-전기-중기의 3시기 6분기로 편년하였다. 초기에는 미사리식의 대형 장방형 주거형태에 석상위석식 노지가 출현하며 주거지들은 충적지에 입지한다. 토기는 돌대문토기, 이중구연 토기가 출토된다. 전기 전엽에는 주거형태는 초기와 비슷하나 출토 토기에서 유상돌대문, 심발형토기가 출현한다. 중엽에는 혼압리식의 장방형, 세장방형의 주거지에 무시설식 노지가 설치된다. 토

5) 연구자들은 동남해안의 한 지역인 포항을 범주에 넣고 유적과 유물을 통해 특징과 편년을 구분하였다. 하지만 당시에는 포항지역에 청동기시대 유적이 현재에 비하면 자료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여서 간략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6) 동진숙, 2003, 「영남지역 청동기시대 문화의 변천」, 경북대학교대학원 고고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7) 황현진, 2003, 「영남지역의 무문토기시대 지역성 연구 -동남해안 무문토기문화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대학원 고고학과 석사학위논문.

8) 박영구, 2015, 「동해안지역 청동기시대 취락 연구」, 영남대학교대학원 문화인류학과 박사학위논문.

기는 퇴화 이중구연의 혼암리식토기가 유행하고 횡대구획문이 나타난다. 석기는 유단식석검, 삼각만입석촉 등이 출토된다. 전기 후엽에는 8주식의 장방형, 방형의 주거지가 나타나고 무서설식 노지가 설치된다. 주거지 내부에는 벽구와 외부돌출구 시설이 설치된다. 토기는 이중구연이 소멸되고 공열문이 나타난다. 중기 전반에는 중형이하의 장방형과 방형의 울산식 주거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무서설식의 노지가 단수로 설치된다. 토기는 공열문이 단독 또는 공열단사선문이 복합으로 나타난다. 석기는 유경식 석검과 일단경식 단어형과 단주형의 석도가 출현한다. 중기 후반에는 방형의 울산식 주거지가 주류를 이루고 4주 또는 6주의 주혈이 배치된다. 토기는 난알문, 횡선문 등의 단독문이 나타나고 파수발, 횡선파수발, 적색마연 양이부호가 출현한다. 석기는 편인석부, 유구석부 등이 출토된다. 이 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원형점토대 출토 유물을 표식으로 하는 청동기시대 후기 단계를 추가로 설정하였다⁹⁾. 이러한 속성을 분류하여 취락의 구조와 변천양상의 파악하였으나 대부분 지형의 일부만 조사된 지역이라 연구를 진행하는데 의의가 있었고 명확한 취락의 구조를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도현¹⁰⁾은 형산강유역 청동기시대 주거지를 평면형태, 규모, 노지 수, 주혈 배치를 기준으로 하여 15가지 형식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토기 공반관계를 분석하여 발형토기 구연부 문양을 5기로 구분하였다. 조기와 전기 전반은 방형의 주거지에 석상 위석식 노지가 나타난다. 토기는 돌대문토기, 이중구연구연토기 출토되며 I3식 주거지가 중심으로 조성된다. 전기 후반은 역삼동식토기와 혼암리식토기가 공존하는 단계로 장방형계의 주거지가 주류를 이룬다. 토기는 이중구연단사선문을 중심으로 한 이중구연계 복합문이 등장하고 수혈식 노지를 갖춘 II3식 주거지가 주로 조성된다.

중기 전반은 방형계 주거지가 주류가 되고 토기는 이중구연요소가 소멸하고 구순각목문·돌류문·단사선문 중심인 홀구연의 혼암리식토기가 주로 확인된다. 수혈식노지를 갖춘 II1식 주거지가 폭증한다. 이처럼 형산강유역의 문화변동양상은 전기 중서부지역과 동해안 지역과의 관련성을 가진다. 중기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형산강유역은 문화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송국리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이 문화와 대응되어 전통성을 유지한 채 발전을 이룬 김단리 유

9) 박영구, 2015, 『동해안지역 청동기시대 취락과 사회』, 서울: 서경문화사, pp. 61-71.

10) 이도현, 2014, 「형산강유역 청동기시대 주거지 연구」, 영남대학교대학원 문화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형이 확산되는 공간으로 보았다. 하지만, 문화계통론적인 연구의 일환으로 문양 세부편년을 통한 문화의 흐름을 간취하는데 그쳤다. 또한 형산강유역에서는 주거지의 평면형이나 규모 등의 외형적 모습이 시기를 구분할 수 있을 만큼 시기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보았고 시기적인 구분으로서 토기만의 문양변화로서 규정짓는 것은 문제 있다고 보았다.

배군열¹¹⁾은 경주를 중심으로 형산강 하구인 포항지역까지 한 형산강유역을 지역단위로 설정하고 청동기시대 취락 구조와 변동과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형산강 유역의 청동기시대 취락 자료를 검토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유적의 분포양상을 분석하여 당시 청동기시대 취락이 점유했던 공간적 위치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취락을 구성하는 제 요소인 주거지, 굴립주건물지, 수혈, 구획시설, 무덤으로 분류하여 취락을 종합적으로 편년하였다. 이와 더불어 취락 내에서 확인되는 유물의 기종을 분류하여 변화양상을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시기 구분에 있어서는 크게 초기-전기-중기로 구분하였다. 초기는 주거지 평면 방형과 장방형, 방형 주류를 이루고 석상위석식(단수)노지가 확인된다. 유물은 돌대문토기가 출현한다. 중기는 전반과 후반으로 세분하였는데 전반은 주거지의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나 세장방형의 주거지가 주류를 이루고 유물은 이중구연, 구순각목문토기가 주류를 이룬다. 후반은 주거지의 형태가 평면 장방형, 세장방형이 주류를 이루고 무시실식 노지가 나타난다. 토기는 가락동식, 역삼동식, 혼암리식 토기가 등장한다. 후기 또한 전반과 후반으로 세분하였는데 전반은 평면 방형에 무시실식 노지가 주류를 이루고 검단리식의 횡선문토기가 출현한다. 후반은 방형과 장방형이 주거지가 주류가 되고 그 밀집도가 과히 증가하는 시기이다. 검단리식 토기가 위주가 되고 파수형 토기가 출현한다.

한편 최규진¹²⁾은 지금까지의 연구와는 다른 유형으로 접근하였는데 형산강 유역에서 발굴조사된 유적을 분석하여 인구 추이를 살펴보고 나아가 사회구조를 파악하고자 접근하였다. 먼저 형산강 유역을 소지역으로 구분하고 편년을 나눈 뒤 입지를 분석하고 시기별, 지역별 인구 거주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인구는 초기에서 후기로 갈수록 주거지별 인구수가 줄어드는 것을 파악하였고 이는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초기에는 대가족의 문화였다면 후기로 갈수록 핵가족화로 변화함을 알려 주었다.

11) 배군열, 2015, 「형산강유역 청동기시대 취락연구」, 경북대학교대학원 고고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12) 최규진, 2016, 「청동기시대 형산강유역 인구추이와 사회구조」, 계명대학교대학원 역사고고학과 석사학위논문.

지금까지 연구자료를 살펴본 바 형산강 수계를 중심으로 경주지역과 연계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성과에 있어서는 취락의 편년과 생업경제 더 나아가 인구 변화 추이까지 다양하게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필자가 본 관점에서 의문은 연대 설정에 있어 모두 조기를 설정하고 있지만 그 수가 많지 않은 양상이 확인되었는데 과연 조기를 설정해야 하는지의 의문과 전기와 중(후)기와의 시기변화에 대한 명확한 변화상이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전기 역시 전반과 후반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조기적 성격이 강한데 굳이 전기 전반으로 시기 구분한 것에 있어서는 고민해봐야 할 문제로 생각하였다. 또한 모든 연구가 편년과 생업에 편중되다 보니 정작 당시 취락의 구조라든지 형태분석에는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다.

무엇보다 형산강 이북지역 즉 포항의 북부지방으로는 상당수의 유적이 조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미진한 상황에서 2017년 포항 이인지구 유적이 보고됨에 따라 이 유적을 포함하여 초곡천에서 조사된 유적들에 대한 취락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3. 편년

청동기시대 편년은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 2분기와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누는 3분기, 그리고 전기를 다시 세분하여 조기, 전기, 중기, 후기로 구분하는 4분기설이 있다¹³⁾. 먼저 2분기는 유물을 중심으로 전기 비파형동검 문화와 후기 세형동검문화로 보는 것이 대세이며, 전기의 토기는 이중구연 토기, 공열토기, 각형토기, 홍도 등이 표지 유물이 된다. 후기의 토기는 점토대토기, 외반구연토기, 흑도장경호가 출현한다.¹⁴⁾ 3분기는 비파형동검 시기를 이전 시기를 설정한 경우와 소위 송국리 문화를 중기로 설정한 경우가 있다. 최근에는 돌대문토기를 조기로 편년하고 중기로 편년한 송국리 문화 단계를 후기로 편년하고, 2분기에서 후기로 본 점토대토기문화를 초기철기문화로 보는 관점이다.

4분기는 비파형동검 시기를 이전시기에 비파형동검 문화를 전기와 후기로 세분하고 세형동검시기를 구분한 것과 토기에서 전기-중기-후기에 앞선 문화를 조기로 설정하였다¹⁵⁾.

이러한 편년은 연구자들의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조기-전기-중기-후기로 구분되는 4분기설이 주목받고 있다. 조기는 돌대문토기, 전기는 가락동, 역삼동, 혼암리식 토기, 중기는 송국리식 토기, 후기는 점토대 토기 문화를 특징으로 한다¹⁶⁾. <표 1>

한편 안재호는 기존의 3시기(3분기)안을 해체하여 조기-전기-중기-후기-만기로 재설정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만기는 C-14연대를 참조하여 점토대토기 집단이 송국리문화를 대체하지 못하고 병존하였던 시기까지만 포함시켰다.¹⁷⁾

<표 1> 4분기설에 따른 편년표

유형	조기	전기	중기	후기
주거지	미사리	둔산동, 역삼동	송국리, 휴암리	반제리, 교성리
토기	돌대문토기	가락동, 역삼동, 혼암리식 토기	송국리, 검단 리식토기	점토대토기
청동기	동검이전시기	비파형동검 전기	비파형동검 후기	세형동검

13) 이형원, 2009, 『청동기시대 취락 구조와 사회조직』, 서울: 서경문화사, pp. 30-31.

14) 이영문, 2013, 『한국 청동기시대 편년 -한국청동기학회-』, 서울: 서경문화사, p. 13.

15) _____, 2013, 위의 책, p. 14.

16) 권승록, 2014, 「밀양강유역 청동기시대 취락연구」, 영남대학교대학원 문화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17) 안재호, 2016, 『청동기시대의 고고학 2 -편년-』, 서울: 서경문화사, pp. 19-39.

<표 2> 형산강 유역 연구자의 관점에 따른 청동기시대 편년

연구자	조기	전기			중기(후기)	
		전반	후반		전반	후반
이도현	석상위석식 노지	미사리 유형 지속,	장방형, 세장방형주거지		주거 규모 다양	검단리식 주거지
	돌대각목문	돌대문, 이중구연	이중구연계 복합문		단독문	횡선문, 파수발
배균열	석상위석식 (단수)노지	세장방형, 장방형, 방형	장방형과 세장방형 위주		평면 방형	방형, 장방형
	돌대문	이중구연, 사선문 (가락동식)	가락동식, 역삼동식, 혼암리식 혼재		역 삼 동 식만 확인, 횡선문출현 (검단리식)	파수출현, 검단리식과 결합
박영구	석상위석식 노지	전엽	중엽	후엽	중 형 인 장 방 형 과 방형의울산 식 주 거 지 대부분	방형, 소형의울산식 주거지
		장방형 주거, 위석식 노지	장방형, 세장방형	장방형, 방형		
	돌대문, 이중구연토기	돌대문 토기, 외반구연 토기	퇴화이중 구연, 혼암리식 토기	복합문, 공열문	공 열 문 단 독, 공 열 단 사 선(난 알문) 복합	단독문, 횡선파수발, 적색마연

2010년 이후 형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편년을 살펴보면 조기-전기-중기로 구분하고, 연구자에 따라 전기와 중기를 전반과 후반 또는 전엽, 중엽, 후엽으로 세분화하였다.

하지만 조기의 경우 석상위석식노지, 돌대문토기 등 유구와 유물은 실제 형산강 유역에서 조사되지 않았고, 혹 조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수는 소수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조기를 설정한 것은 동해안 지역에서도 조기 문화가 있었음을 강조하기 위한 측면에서 시기를 구분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것을 과연 초곡천 일대에도 똑같이 편년을 받아들여야 할까라는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편년은 절대연대 값이 측정된 C-14 연대분석 결과를 기초 자료로 삼고 전기-중기-후기로 편년을 진행하였다. 조기는 주거지의 입지, 형태, 유물이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이 연구에서 조기의 시기 구분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고, 동해안지역과 내륙지역의 생활문화 상이하였을 것이라 보고 연관성을 두지 않았다.<표 2>

따라서 필자는 C-14 연대분석 자료에 입각하여 3분기 편년을 제시하였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C-14 연대분석 자료의 무용론과¹⁸⁾ 분석방법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로¹⁹⁾ 절대연대의 기준에서 배제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연대측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고 실제 편년의 기초자료로 이용되고 있다²⁰⁾.

전기는 C-14연대 기준으로 BC 15C~12C에 해당된다. 주거지는 평면 장방형을 표식으로 하고 방형, 세장방형의 주거지도 일부 공존하는 시기이다. 면적은 소형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노지는 수혈식노지가 주류를 이루고 위석식노지가 일부 확인된다. 출토유물로는 구순각목문, 구순각목이중구연의 복합문과 단사선문, 구순각목문, 공열문 등의 단일문 형태의 각종 무문토기가 출토되며, 주형석도, 일단경식 석촉, 이단병식 석검 등의 석기류가 출토된다.

중기는 C-14연대 기준으로 BC 11C~8C에 해당된다. 전기와 같이 장방형

18) 이용조, 1977, 「한국고고학 편년에 대한 연구-MASCA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 해석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5:216-218.

19) 최성락, 1982, 「방사성탄소측정 연대 문제의 검토」, 『한국고고학보』 13:61-95.

20) 강형태·추연식·나경임, 1993, 「방사성탄소연대측정과 고정밀보정 방법」, 『한국고고학보』 30:5-61. 이창희, 2011, 「방사성탄소연대결정법의 원리와 활용(Ⅱ)」, 『한국고고학보』 81:269-291.

안재호, 2016, 앞의 책, pp. 76-80.

김장석·황재훈·김준규·오용제·안승모·성춘택·최종태·이창희, 2018, 「한국 방사성탄소연대 이상연대치의 선별과 검증」, 『한국고고학보』 107:124-165.

주거지가 주류를 이루나 방형의 주거지가 전기에 비해 급속도로 증가하는 시기이고 배수구가²¹⁾ 만들어진 주거지가 일부 발견된다. 또한 세장방형 주거지도 소멸되지 않고 소수가 존속한다. 면적은 전기에 비해 중형의 비율이 증가하며 소형과 대등하게 나타난다. 노지는 무시설식 노지와 수혈식 노지가 확인된다. 유물은 복합문의 비율이 낮아지며 문양으로는 구순각목문, 공열문 등의 단독문의 토기가 주류를 이룬다. 석기는 일단경 식촉, 일단병식 석검, 주상편인 석부 등이 출현한다.

후기는 C-14 연대 기준으로 BC 7C~4C에 해당된다. 주거지는 방형 주거지의 빈도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방형 중에서도 배수구가 나타나는 소위 울산식 주거지²²⁾가 많다. 노지는 무시설식 노지가 주류를 이루고 수혈식 노지가 함께 나타난다. 유물은 단독문이 중심이 되는데 단사선문이 나타나고 공열문 비중이 높아진다. 또한 파수토기가 출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석기는 유구석부가 출현한다.<표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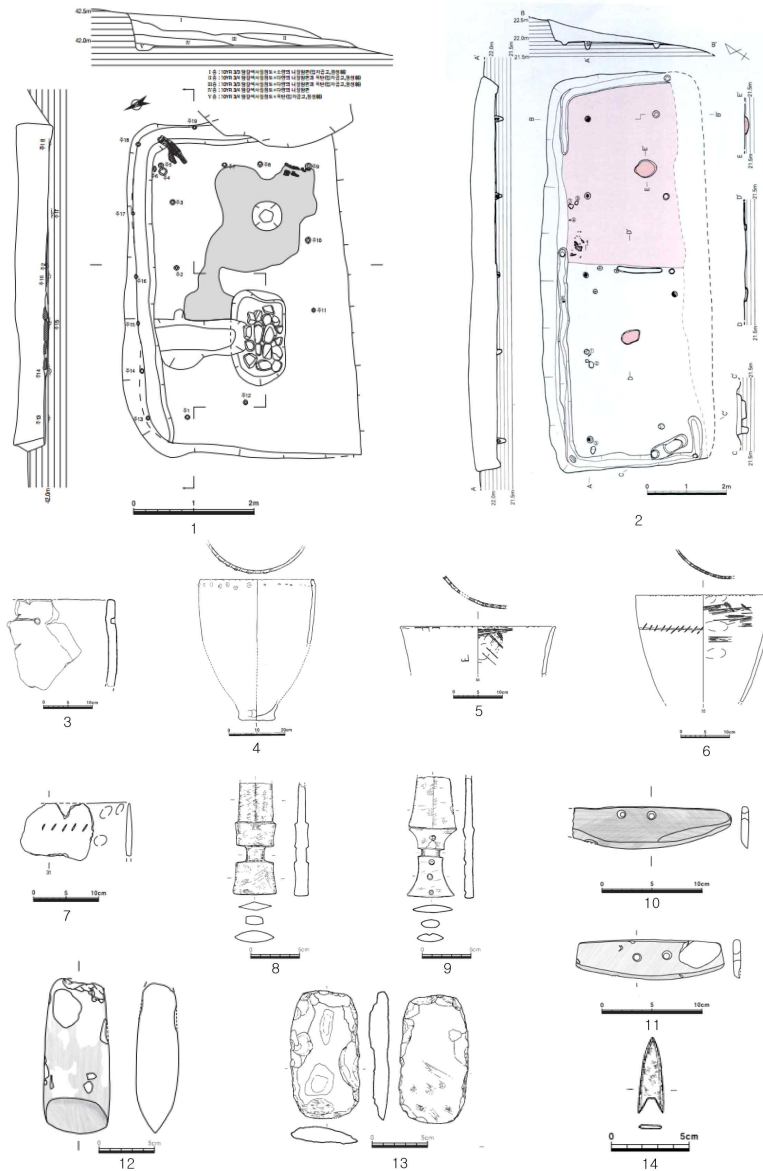
이상의 편년은 한국 청동기시대 편년 연구와는 아마도 거리감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동해안 지역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조기의 특징과 중기가 없는 전기-후기, 또는 후기가 없는 전기-중기로 편년을 설정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의문점을 제시하며, 본 연구에서는 내륙과 동해안의 생활문화가 달랐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C-14 연대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편년을 나누었다.

<표 3> 청동기시대 3분기 설에 입각한 본 글의 편년

기존	전기(BC 15C~12C)	중기(BC 14C~10C)	후기(BC 7C~4C)
본 글	장방형주거지 위석식노지,	장방형, 방형주거지 수혈식노지	방형(배수구주거지), 장방형주거지, 수혈식노지
	구순각목공열, 이중구연단사선	공열문, 구순각목	공열문, 적색마연토기, 파수토기

21) 외부돌출구라고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명칭을 하고 있지만 필자는 기능적인측면에서 배수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본 논문에서는 배수구라고 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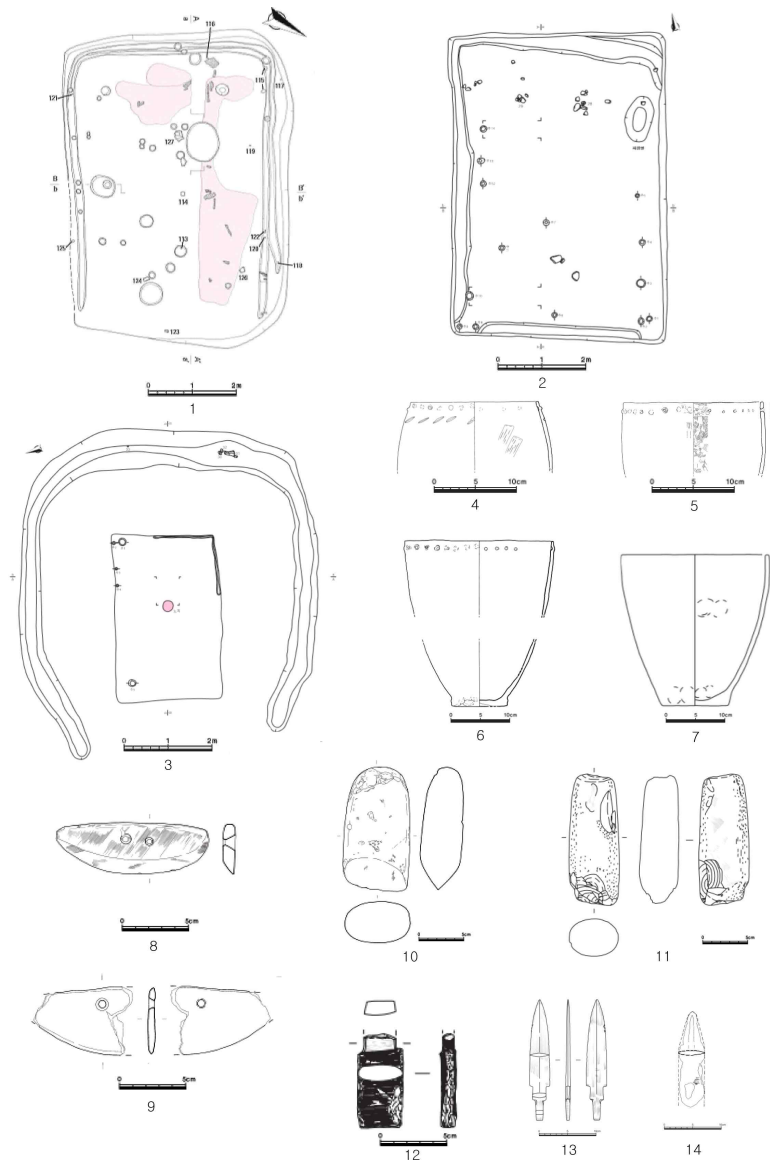
22) 김현식, 2006, 「울산식 주거지 연구」, 부산대학교대학원 고고학과 석사학위논문.



(1. 성곡리유적 29호, 2. 초곡리유적 6호, 3. 남송리유적 5호, 4. 초곡리유적 2호, 5. 성곡리 36호, 6. 성곡리유적 40호, 7. 성곡리유적 14호, 8. 초곡리유적 2호, 9. 초곡리유적 5호, 10. 성곡리유적 13호, 11. 성곡리유적 27호, 12. 성곡리유적 27호, 13. 초곡리유적 11호, 14. 초곡리유적 2호)

도면 1. 전기 주거지 형태 및 유물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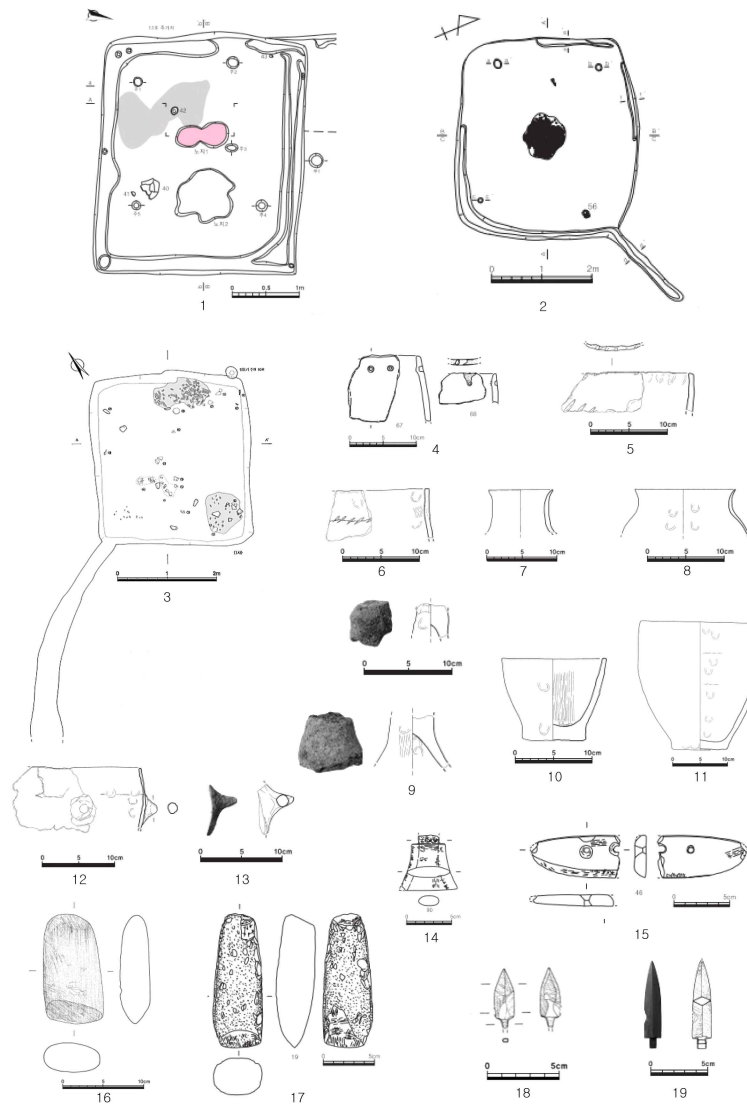
- 23) 한빛문화재연구원, 2012, 『포항 성곡리 유적』.
영남문화재연구원, 2000, 『포항 초곡리 유적』.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6, 『포항 남송리 유적』.



(1. 대련리유적 I-6호, 2. 이인리 취락유적 4호, 3. 이인리 취락유적 6호, 4. 대련리유적 4호, 5. 이인리 취락유적II 4호, 6. 대련리유적II-1 1호, 7. 이인리 취락유적II 5호, 8. 대련리유적 5호, 9. 이인리취락유적II 5호, 10. 대련리유적 5호, 11. 이인리 취락유적II 2호, 12. 이인리 취락유적II 8호, 13. 이인리 취락유적II 2호, 14. 이인리 취락유적II 8호)

도면 2. 중기 주거지 형태 및 유물²⁴⁾

- 24) 성립문화재연구원, 2012, 『포항 이인리 청동기시대 취락유적』.
 _____, 2012, 『포항 이인리 청동기시대 취락유적II』.
 _____, 2009, 『포항 대련리 청동기시대 취락유적』.



(1. 대련리학당골 취락유적 12호, 2. 초곡리 취락유적 c-9호, 3. 남송리유적1 34호, 4.,14. 초곡리 취락유적 c-18호, 5. 남송리유적1 28호, 6,7,8,10. 남송리유적1 35호, 9. 남송리유적1 33호, 11. 남송리유적1 36호, 12~13. 남송리유적1 6,31호, 15. 초곡리 취락유적 c-7호, 16. 남송리유적1 14호, 17. 초곡리 취락유적 c-14호, 18. 남송리유적II 2호, 19. 남송리유적1 36호)

도면 3. 중기 주거지 형태 및 유물25)

- 25) 성립문화재연구원, 2012, 『포항 대련리(학당골)청동기시대 취락유적』.
영남문화재연구원, 2014, 『포항 초곡리 취락유적』.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11, 『포항 남송리 유적 I』.
_____, 2011, 『포항 남송리II·III유적』.

II. 초곡천의 입지와 주변 유적의 성격

입지는 인간이 경제활동을 하기 위하여 선택하는 장소를 말하며 경제활동을 하는 인간 의지의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르게 결정된다. 인간은 지표면에 정주하여 마을을 이루고 산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형상태는 어떠한 입지 조건보다도 중요시되고 있다. 따라서 현대가 아닌 선사시대인의 입지 선택은 취락의 설계에 있어서 1차 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입지를 선택한 이후 취락의 구조적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에는 현대 사회의 관점에서 바라본 입지에 대한 개념과는 다른 부분으로 분별된다. 선사시대인은 경제활동의 종류에 따라 입지를 선택이 중요한 요소였을 것이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생업요소가 될 수 있는 용수, 그리고 농경지 확보가 가능한 곳을 최우선 지역으로 선택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초곡천 유역의 지형을 살펴본 후 왜 초곡천에 유적의 밀집도가 높은 지에 대해 분석하고 주변 유적을 파악하여 취락의 형태 및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초곡천의 입지

초곡천이 위치한 홍해지역은 포항시 내륙 북편에 위치한다. 북쪽의 매산(해발 191.3m)에서 남북으로 뻗은 주맥인 도음산(해발 383.2m) 형산과 제산으로 이어져 있고 동서로 오봉산(해발 175m), 양백산(해발 203.9m)이 매산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동으로는 해안을 따라 구곡산(해발 163m), 곤륜산(해발 176m) 오봉산이 청하와 경계하고 있다²⁶⁾.

초곡천은 홍해읍 내에서도 남서쪽에 위치하며 행정구역상 포항시 북구 지역의 대런리, 학천리, 성곡리 초곡리 일대에 해당된다. 초곡천이라는 이름은 초곡리에서 유래하는데, 초곡(草谷)은 풀이 무성한 골짜기 마을이라는 순 우리말 이름인 새일 또는 사일에 대한 한자의 뜻을 따서 표기한 것이다²⁷⁾. 하천의 규모를 살펴보면 상류에서 하류까지 길이는 총 11.7km로 유역의 평야 면적은 대략 49.45km² 정도이다²⁸⁾.

발원지는 도음산 동남쪽 약 500m 지점에서 발원하여 동남류하다가 홍해읍

26) 토양환경정보시스템, 흙토람, (<http://soil.rda.go.kr>).

27)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www.aks.ac.kr>).

28) 경상북도, 2008, 「초곡천 하천정비기본계획 보고서」.

대련지 석지골 부근에서 유향을 바꾸어 북류하다가 지류인 학림천과 합류하여 다시 북류 하다가 성곡리 부근에서 곡류하여 홍안리 부근에서 곡강천과 합류한다.

본류인 초곡천으로 유입되는 지류들을 살펴보면 먼저 도음산 동쪽 말단에서 발원하여 동쪽으로 유입되는 학림천, 남성리에서 발원하여 동쪽으로 유입되는 원망천, 옥성리에서 발원하여 남옥리 초곡천으로 유입되는 남천, 초곡리에서 발원하여 성곡리로 흐르는 임시천, 학천골에서 발원하여 남서쪽으로 유입되는 학림천, 이인리에서 발원하여 초곡천 상류로 유입되는 이인천, 덕성천, 하일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초곡천으로 유입되는 모든 지류들이 초곡천의 서쪽에서 동쪽으로 유입되는 것이 특징이다.<지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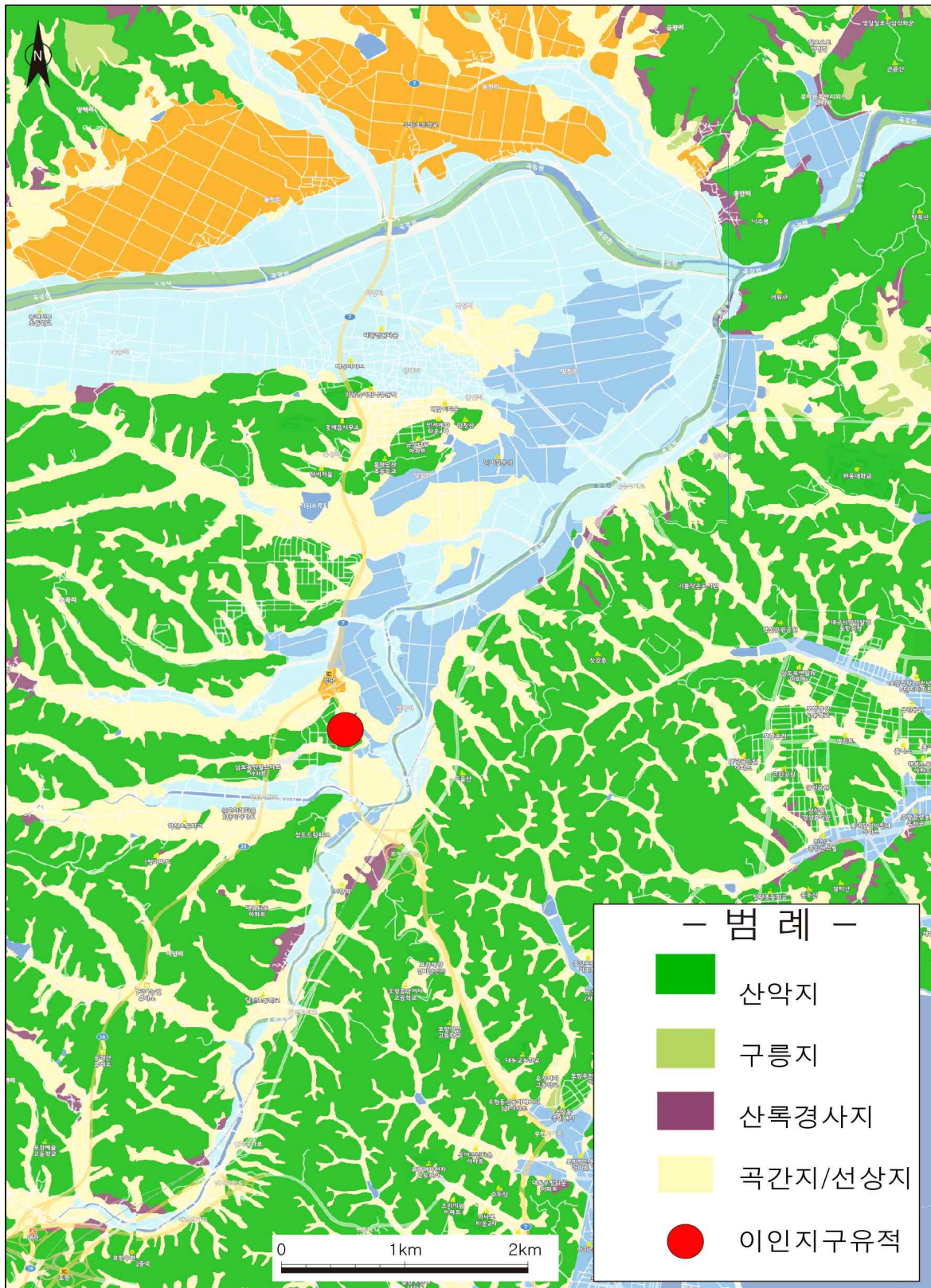
유역 주변으로는 전반적으로 갈대 및 잡초가 무성하다. 하천의 상류부는 급류하천, 중·하류부는 중류하천이다. 하천의 토양은 상류부는 주로 자갈 및 모래, 사질토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류부는 주로 잔모래와 사질토로 이루어져 있다. 수계의 위치에 따라 지형적인 차이를 살펴보면 발원지인 대련리는 도음산의 남동쪽 골짜기로 험준한 산악지형을 따라 좁은 산간분지가 다양하게 형성되고 있다. 중류에는(대련리와 연화재 사이구간) 폭이 좁은 곡간부로 여러 지류들이 합류함과 동시에 하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곳곳에서 급격하게 사행되는 유역이 확인된다. 하류에는(이인리, 성곡리)강폭이 넓어지면서 곡강천과 합류하며 그 주변으로 들이 넓게 펼쳐진다²⁹⁾.<지도 2>

입지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초곡천 중심으로 반경 1km 내에는 대체적으로 평야 지대가 형성되어 있어 비옥한 토양에서 농경생활에 용의 했을 것이다. 또한 초곡천에서는 어로활동이 이루어지면서 일대가 식생활에 중심지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포항 홍해지역 중에서도 초곡천 유역에서 청동기시대 취락과 관련된 유적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이유일 것이다.<지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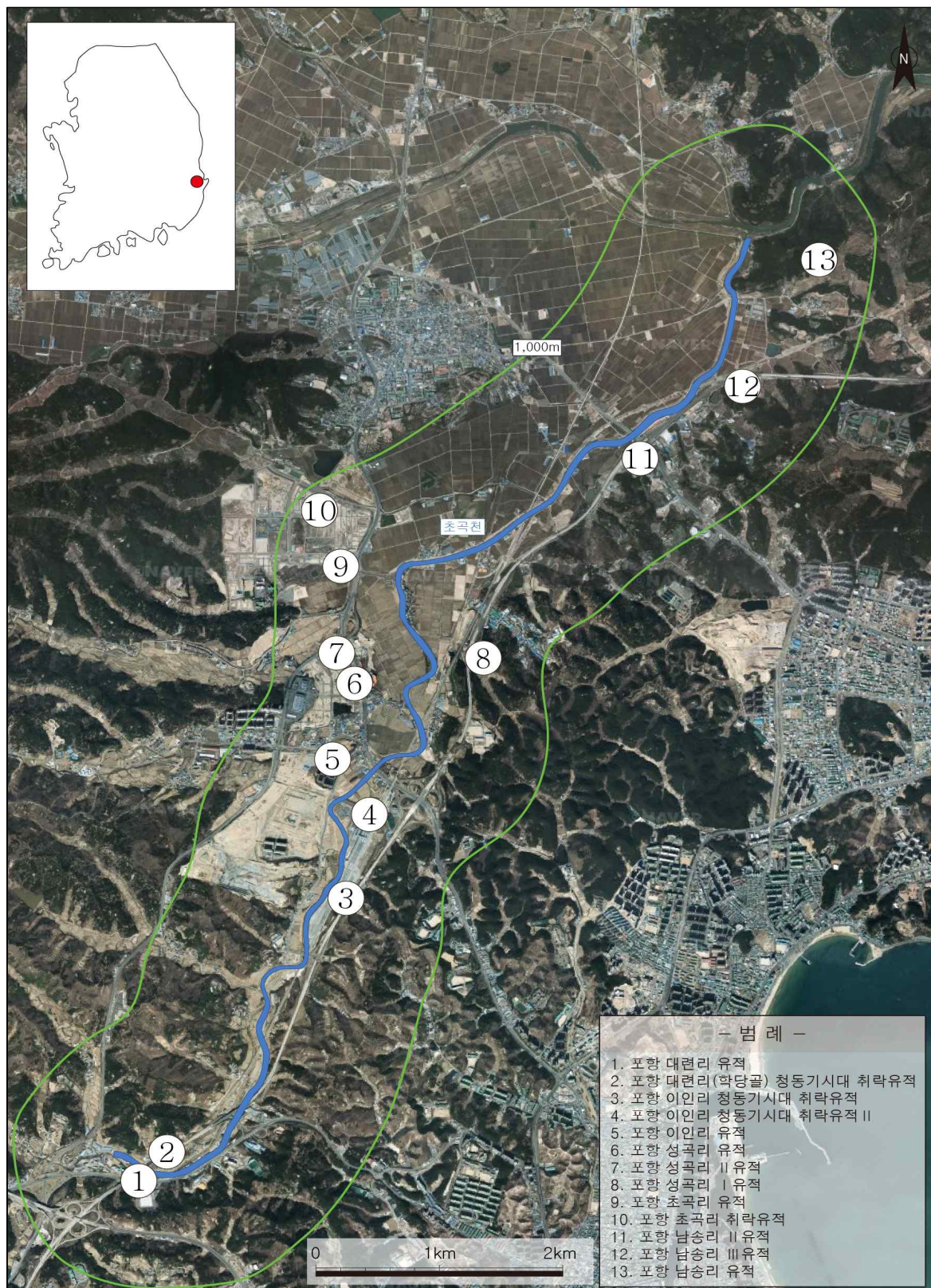
29) 국가수자원관리 종합정보시스템, (<http://www.wamis.go.kr>).



지도 1. 초곡천 유역 하천 분포지도(출처: 하천관리 지리정보웹시스템)



지도 2. 조사대상지 위치 및 주변 지질도(출처: 토양환경정보시스템)



지도 3. 조곡천 유역 유적분포도(출처: 네이버 위성지도)

2. 주변유적

이 장에서는 초곡천 유역의 유적별 취락의 입지와 성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토대로 초곡천 유역에 청동기시대 취락의 입지, 지형, 주거지 배치양상 등을 검토하고 다음 장에서 검토될 이인지구 유적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초곡천 유역에서도 유적간의 시기의 변화양상을 분석하여 그 성격을 파악하였다. 유적의 검토 순서는 전기-중기-후기 연대순으로 진행하였다.

1) 포항 남송리 유적³⁰⁾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송리 204번지 일원으로 해발 32.3~36.3m 상의 구릉성 산지에 입지한다.<도면 4>

조사된 유구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구상유구, 수혈유구 등이 조사되었다. 주거지의 경우 서사면에 북서조망권을 두고 5동이 조사되었다. 평면 장방형 또는 세장방형으로 내부시설로는 벽구, 수혈식노지가 조사되었다. 유물은 공렬 문구연부, 저부, 어망추 등의 토도류와 석부, 석촉, 방추차 등의 석기류가 출토되었다. 유적의 시기는 C-14연대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출토유물의 형태로 보았을 때 전기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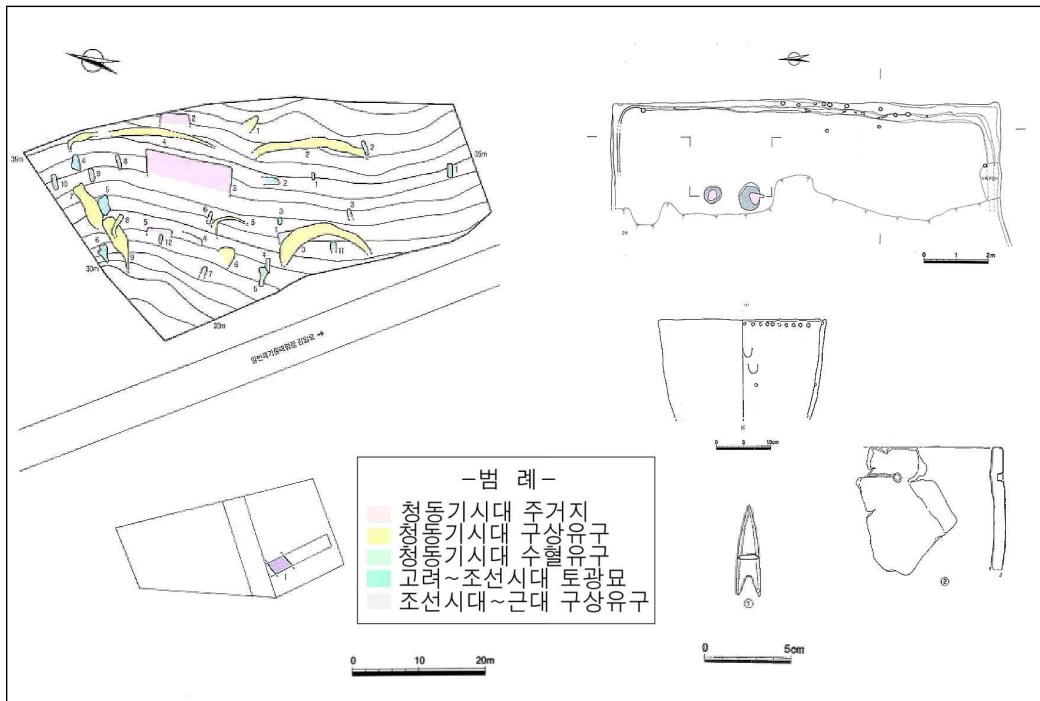
2) 포항 초곡리 유적³¹⁾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 산39-1번지 일원으로 해발 20~30m 사이의 구릉성 산지에 입지한다.<도면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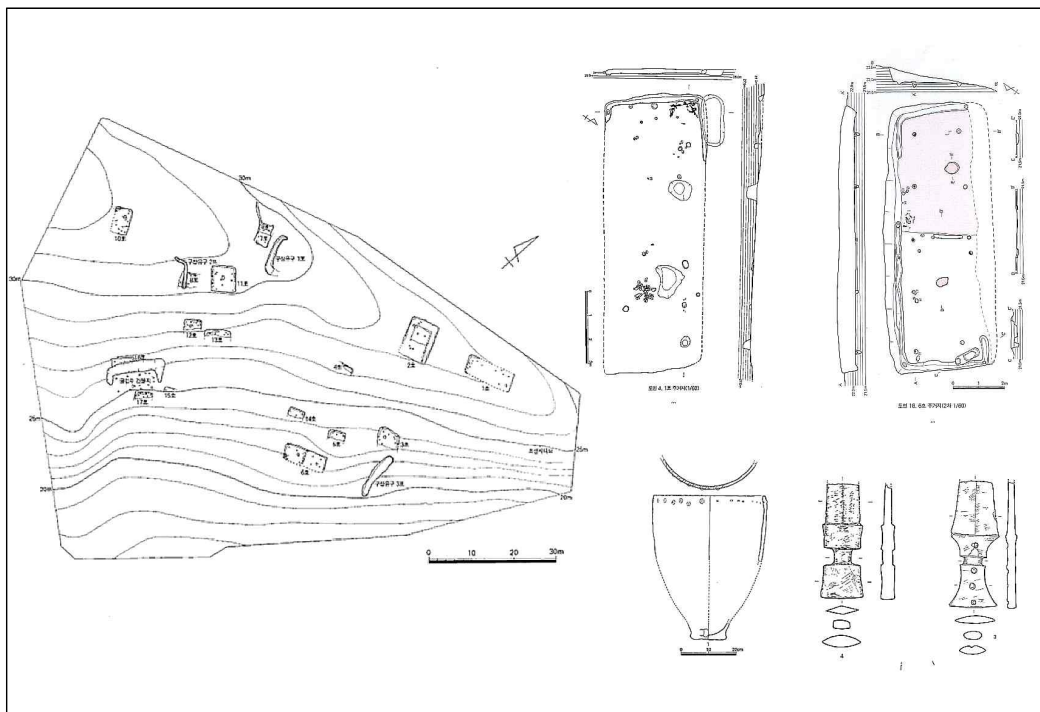
조사된 유구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굴립주 건물지, 구상유구 등이 조사되었다. 주거지의 경우 구릉의 남동 사면부에 17기가 조성되어 동쪽 평야의 조망권을 가지고 있다. 평면 방형과 장방형의 주거지가 혼재하며, 상대적으로 주거지의 규모 편차가 심하며 일부 주거지는 중복관계도 확인된다. 면적은 소형의 주거지가 대부분이다. 주거지의 내부시설로는 노지, 벽구, 외부돌출구가 확인되며 주혈의 경우 방형은 4주식, 장방형은 8주식 주혈배치가 확인된다. 유물은 구순각목공열문, 어망추 등의 토도류와 석촉, 석검, 석도, 석부 등 석기류가 출토되었다. 절대연대는 C-14 연대분석결과에 따라 주거지 5호에서 $3164 \pm 89 \sim 90$, 주거지 6호에서 3300 ± 50 의 연대가 측정되었다.

30)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6, 앞의 보고서.

31) 영남문화재연구원, 2000, 앞의 보고서.



도면 4. 포항 남송리 유적 현황도³²⁾



도면 5. 포항 초곡리 유적 현황도³³⁾

32)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6, 앞의 보고서, p.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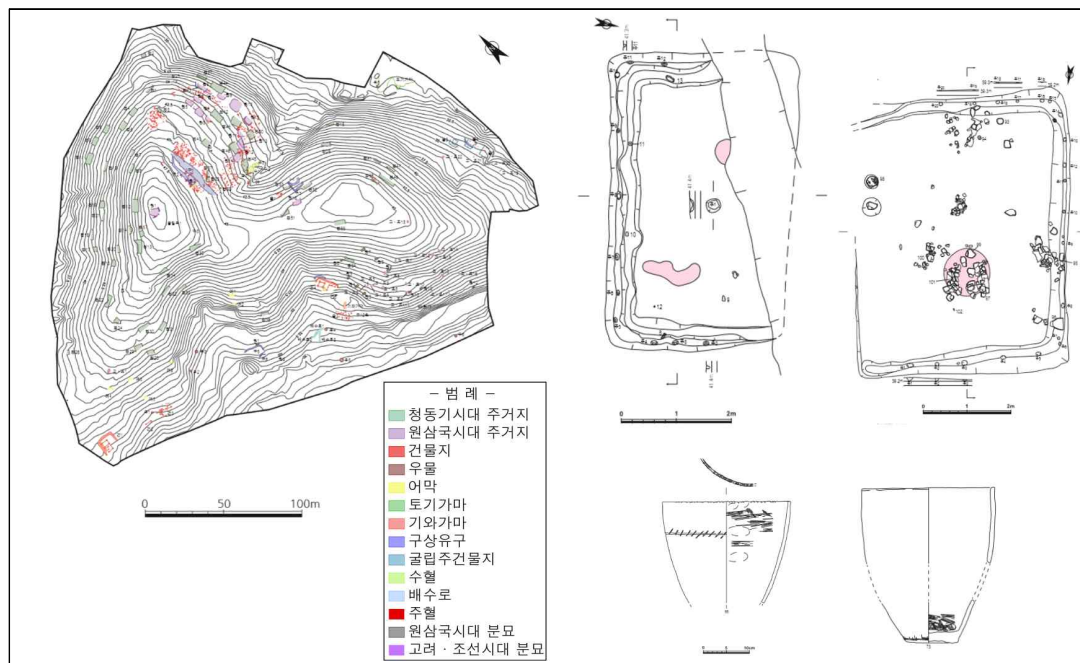
33) 영남문화재연구원, 2000, 앞의 보고서, p. 19.

3) 포항 성곡리 유적³⁴⁾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곡리 1036-1번지 일원으로 해발 35~45m 상의 구릉성 산지에 입지하고 있다.<도면 6>

조사된 유적은 청동기시대 주거지를 비롯하여 원삼국시대 주거지, 분묘, 통일신라시대 건물지, 고려~조선시대 분묘 등 다양한 유적이 조사되었다. 이 중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총 57동이 조사되었다. 분포양상은 남서사면, 남사면, 북동사면 등 구릉 정상부를 제외하고 사면을 중앙을 돌아가며 분포하고 있다. 평면 방형과 장방형이 혼재하며 주거지간 중복관계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내부시설로는 위석식노지, 벽구 등이 조사되었고 바닥은 4주 또는 8주식의 주혈배치가 확인되었다. 유물은 이중구연문, 공열문, 이중구연단사선문, 호형토기 등의 토도류와 석촉, 석검, 유구석부 등의 석기류가 출토되었다.

절대연대 C-14 연대분석 결과에 의하면 1호 주거지 3130±60, 12호 주거지 2880±50, 17호 주거지 3070±50, 주거지 21호 2810±50, 주거지 27호 2640±50, 주거지 33호 2880±50, 주거지 37호 2700±60, 주거지 48호 2890±50의 연대결과가 검출되었다.



도면 6. 포항 초곡리 유적 현황도³⁵⁾

34) 한빛문화재단연구원, 2012, 앞의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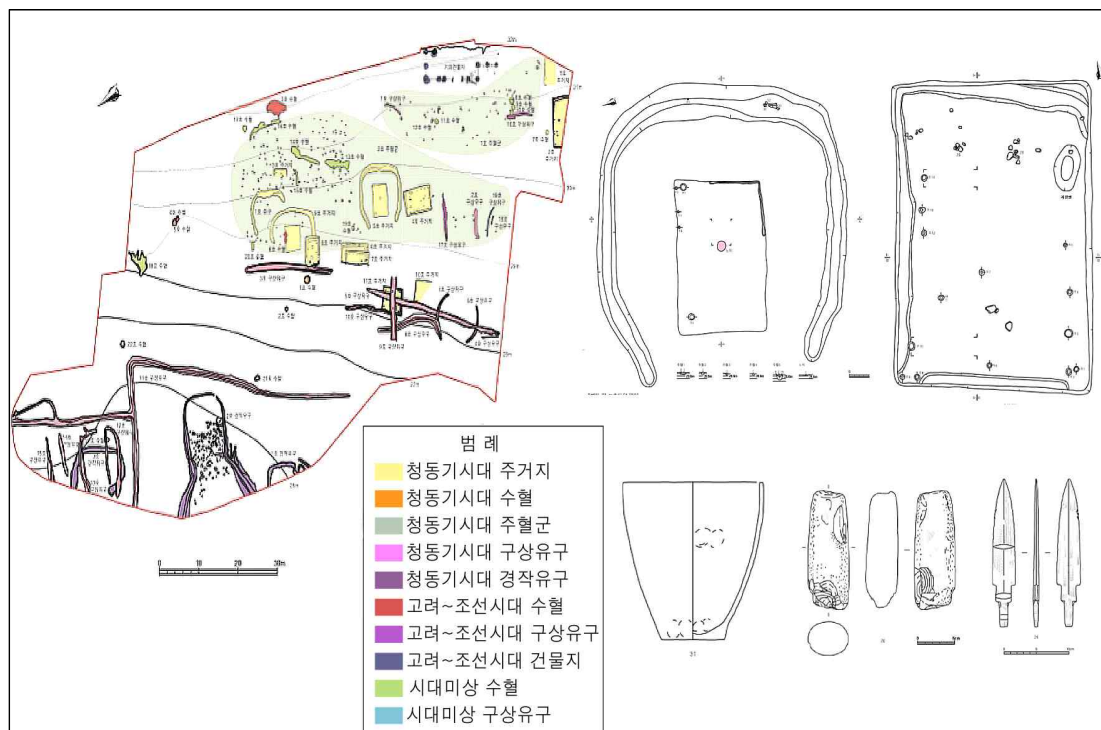
35) [www.korea.net](#), 2012, 위의 보고서, p. 23.

4) 포항 이인리 청동기시대 취락유적³⁶⁾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리 일원으로 해발 26~32m 사이의 구릉성 산지에 위치한다.<도면 7>

유적은 구릉 서사면에 입지하고 있으며 초곡천 조망을 하고 있다. 조사된 유구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수혈, 주혈군, 구상유구, 경작유구와 고려~조선 시대의 수혈, 구상유구, 건물지 등이 조사되었다. 이 중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총 11동이 조사되었는데 대부분의 주거지가 유실되고 3동 정도가 규모 파악이 가능하다. 평면 장방형으로 일부 주거지는 주구가 돌아가는 소위 연암동식 주거지가 확인되는 것이 특징이다. 내부시설로는 노지, 벽구, 벽주 등이 확인되었고 바닥주혈은 정형성이 없다. 유물은 공열문, 횡선문 등의 토기류와 석부, 석검, 석창, 석촉 등의 석기류가 출토되었다.

절대연대 C-14 분석결과를 참고하면 주거지 2호에서 2930 ± 50 , 주거지 8호에서 2920 ± 40 의 연대분석 결과가 검출되었다.



도면 7. 포항 이인리 청동기시대 취락유적 현황도³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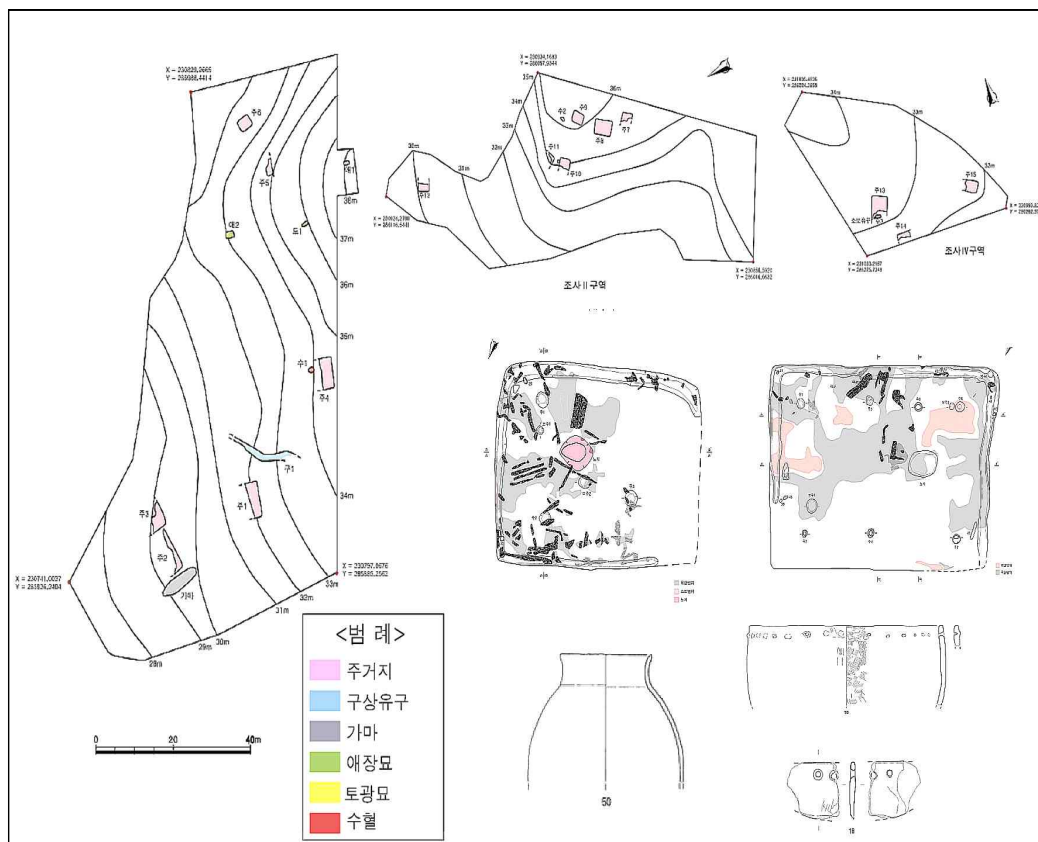
36) 성립문화재연구원, 2012, 앞의 보고서.

37) _____, 2012, 위의 보고서, p. 39.

5) 포항 이인리 청동기시대 취락유적Ⅱ³⁸⁾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리 일원으로 해발 29~35m 구릉성 산지에 입지한다.<도면 8>

조사된 유구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15동, 고상식 건물지 1동 등이 조사되었다. 주거지의 경우 능선의 서사면에 초곡천 조망을 두고 있다. 주거지는 대부분 유실되고 형태를 파악할 수 있는 주거지는 4동이다. 평면형태는 방형 또는 장방형으로 내부시설로는 노지, 벽구 등이 확인되었다. 바닥주혈은 4주(방형) 또는 6주(장방형)식의 주혈배치가 확인되었다. 출토유물은 공열문(돌류문), 어망추 등의 토도류와, 석촉, 석도 등의 석기가 출토되었다. 절대연대는 C-14 연대분석에 따라 I-4주거지에서 2860±50, I-5주거지에서 2770±50, I-6주거지에서 2640±50, II-7주거지에서 2600±50, II-8주거지에서 2500±50, V-13주거지에서 2820±50의 연대가 측정되었다.



도면 8. 포항 이인리 청동기시대 취락유적Ⅱ 현황도³⁹⁾

38) 성립문화재연구원, 2012, 앞의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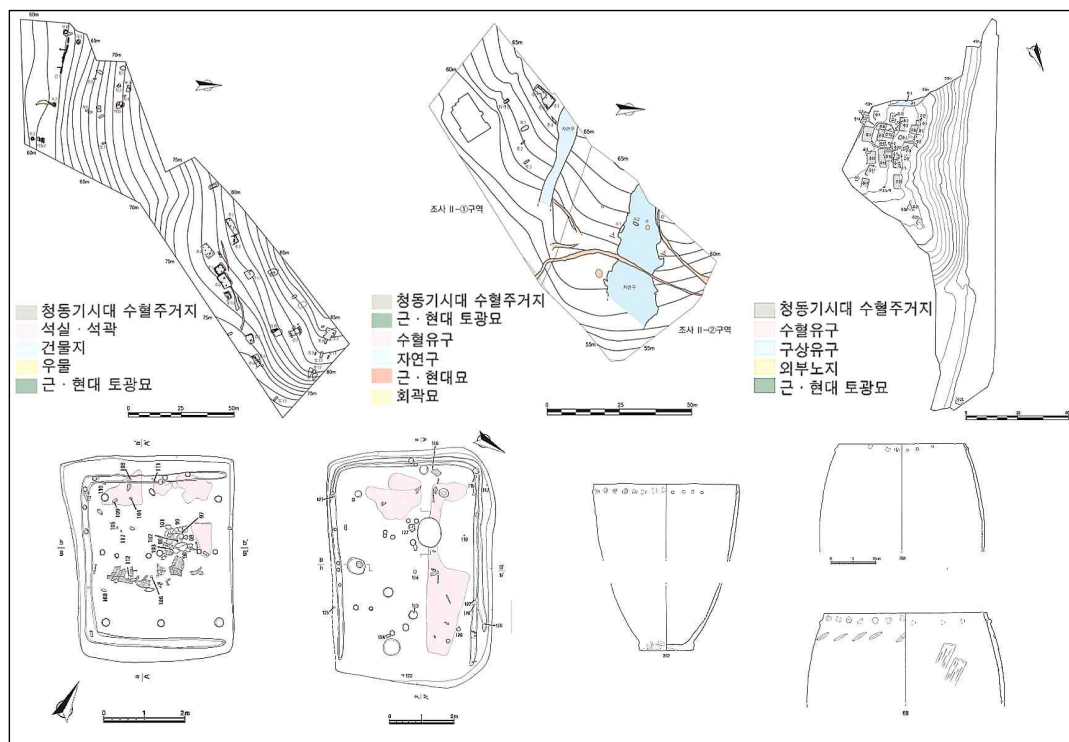
39) _____, 2012, 위의 보고서, p. 38.

6) 포항 대련리 청동기시대 취락유적⁴⁰⁾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산164-1번지 일원으로 조사구역은 I·II·III 구역으로 나뉜다.<도면 9>

I 구역에서는 남동사면 일원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가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고, II구역에서는 남동으로 향한 구릉 말단부로 잔존상태가 불량한 주거지들이 조사되었다. III구역은 북서쪽으로 향한 구릉 사면으로 평탄면인 구릉이 능선부에서 주거지들이 분포하고 있다. 조사된 유구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39동으로 평면 장방형 또는 방형으로 내부시설로는 무시설식의 수혈노지가 조사되었다. 출토유물은 구순각목문, 공열문, 이중구연단사선문, 구순각목단사선문 등의 토도류와 석검, 석창, 석촉, 석도, 석검, 갈판 등의 석기류가 출토되었고 어망추가 모든 주거지에서 골고루 출토되는 것이 특징이다.

주거지의 연대는 C-14 연대분석결과를 참고하면 주거지 4호 2850±60, 주거지 5호 2580±50, 주거지 6호 2720±50, 주거지 19호 2670±60, 주거지 22호 2870±50의 연대측정 결과가 검출되었다.



도면 9. 포항 대련리 청동기시대 취락유적 현황도⁴¹⁾

40) 성립문화재연구원, 2009, 앞의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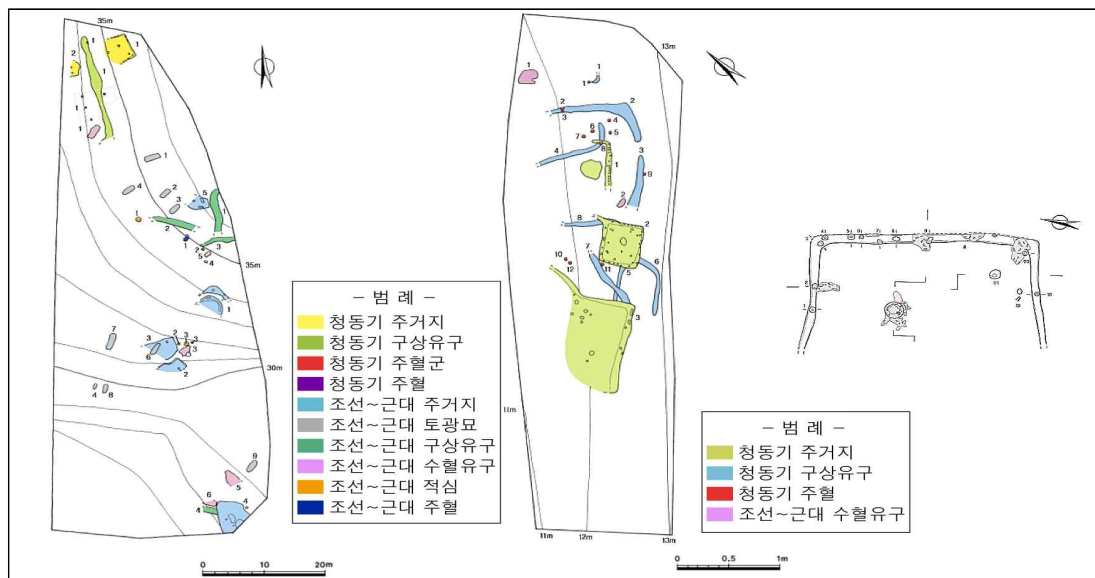
41) _____, 2009, 위의 보고서, pp. 48-50.

7) 포항 성곡리 I·II유적⁴²⁾

성곡리 I 유적은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곡리 149전 일원으로 해발 30~35m 상의 구릉성 산지에 입지한다.<도면 10>

유구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구상유구, 주혈군, 주혈 등과 조선~근대시대의 주거지, 토광묘, 구상유구, 수혈, 적심, 주혈 등의 다양한 유구가 조사되었다.

이중 청동기시대 관련 유구는 조사대상지 북편으로 치우쳐 주거지 2동, 구상유구, 주혈 등이 조사되었는데 주거지는 평면 장방형으로 내부시설로는 무시설식 노지가 확인되었다. 유물은 반월형 석도가 출토되었다. 성곡리 II유적은 성곡리 1006답, 산 210-2번지 일원으로 성곡리 I 유적에서 북쪽으로 약 1.2km 떨어진 능선의 말단부와 경작지이다. 유적은 해발 11~12m사이의 평지에 해당된다. 조사된 유구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구상유구, 주혈, 조선~근대 수혈이 조사되었다. 이 중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총 3동이 조사되었다. 평면 장방형 또는 세장방형으로 내부시설로는 노지, 벽구, 벽주, 외부돌출구 등이 조사되었고 세장방형의 주거지에서 6주식의 바닥주혈 배치가 확인되었다. 홍도, 파수, 발형토기 등의 토도류와 석촉, 방추차 등의 석기류가 출토되었다. 절대연대 C-14 분석결과에 따르면 주거지 1호에서 2490 ± 40 , 주거지 2호에서 2940 ± 40 의 연대가 측정되었다.



도면 10. 포항 성곡리 I·II유적 현황도⁴³⁾

42)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11, 앞의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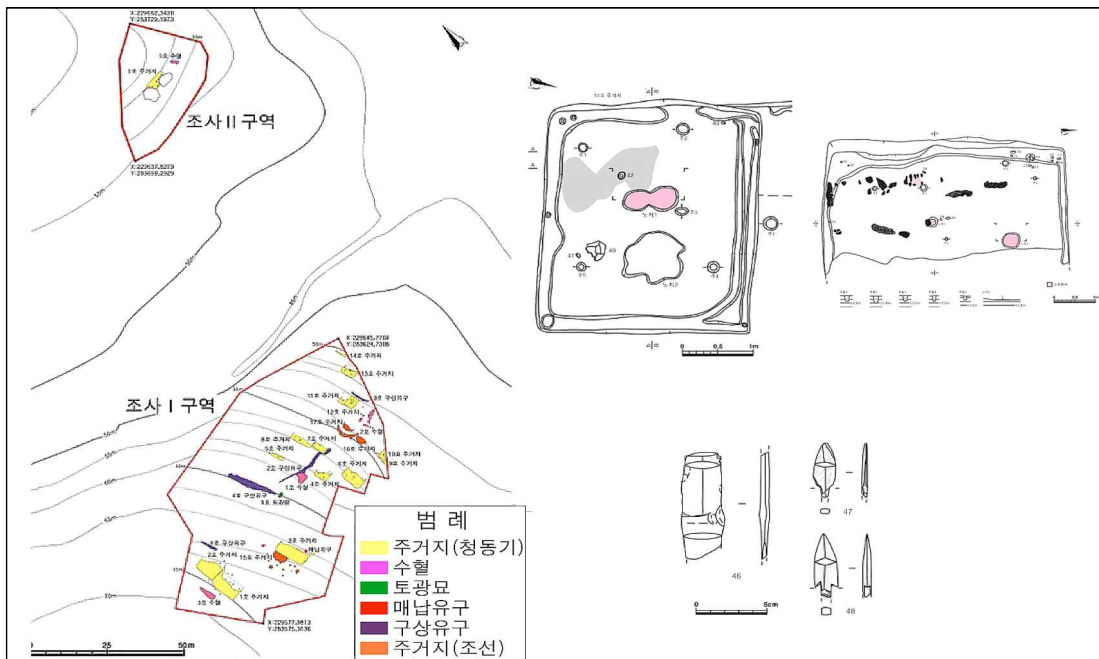
43) _____, 2011, 위의 보고서, pp. 32~33.

8) 포항 대련리(학당골) 청동기시대 취락유적⁴⁴⁾

포항시 북구 대련리 일원으로 해발 50~60m 상의 구릉성 산지에 입지한다. 위치한다.<도면 11>

유적은 능선의 동사면에 분포하며 초곡천 조망을 하고 있다. 조사구역은 2개 구간으로 조사가 이루어 졌고, 유구는 1구역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 14동, 구상유구 3기, 2구역에서 주거지 1동이 조사되었다. 유적의 잔존상태가 불량하여 정확한 평면형태는 알 수 없으나 대부분의 주거지가 장방형, 방형으로 조사되었다. 내부시설로는 노지, 주혈 등이 조사되었다. 노지는 평지식 또는 수혈식노지가 확인되었다. 주혈은 4주, 6주, 8주식의 주혈 배치가 확인되었다. 출토유물은 무문토기, 적색마연토기, 어망추 등의 토도류가 출토되었는데 35점의 토도류 중 21점이 어망추이다. 석기류는 석부, 석창, 어형반월형석도, 일단경식 석촉 등이 출토되었다.

유적의 절대연대 C-14 분석결과를 참고하면 주거지 I-6호에서 2630±50이 검출되었다.



도면 11. 포항 대련리(학당골) 청동기시대 취락유적 현황도⁴⁵⁾

44) 성립문화재연구원, 2012, 앞의 보고서.

45) _____, 2012, 위의 보고서, p. 26.

9) 포항 초곡리 취락유적⁴⁶⁾

포항시 북구 흡해읍 초곡리 산 38-9번지 일원으로 포항 초곡지구 도시개발사업전 문화재 조사가 시행되었다.

조사된 유적은 해발 20~30m 사이의 구릉성 산지에 입지한다. 조사된 유구는 주거지, 수혈, 주구형 유구, 구상유구, 목책열 등 다양한 성격의 유적이 조사되었다. 이 중 주거지의 분포양상은 남쪽 구릉에 28기, 북쪽 구릉에 27기가 중복 없이 등고와 직교하거나 평행하게 분포하고 있다. 남쪽 구릉의 경우 세장방형의 대형 주거지가 등간격으로 배치되고 그 주변으로 장방형, 방형의 주거지가 배치되어 있는 양상이다. 북쪽 구릉의 경우 방형, 장방형의 주거지가 주류를 이루고 곳곳에서 주구형 유구와 석관묘가 조사된 것이 특징이다. 조사된 주거지의 형태는 세장방형, 장방형, 방형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가 조사되었다. 내부시설로는 수혈식노지, 벽구, 외부돌출구가 설치되어 있고 4주 또는 6주의 바닥 주혈이 배치되어 있다. 유물은 공열문, 구순각목공열문, 돌류문이 새겨진 토기류와 마제석검, 석창, 석촉, 석부 등의 석기류가 출토되었다. 유적의 시기는 2기로 나뉘어지며 남쪽구릉에 입지한 주거지들이 전기 후반, 북쪽 구릉에 입지한 주거지들이 후기 전반에 해당된다.



도면 12. 초곡리 취락유적 현황도⁴⁷⁾

46) 영남문화재연구원, 2014, 앞의 보고서.

47) _____, 2014, 위의 보고서, p. 28.

10) 포항 남송리 유적 I 48)

남송리 유적 I 은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송리 837전 일원으로 해발 55~75m 상의 구릉과 말단에 위치한다.<도면 13>

유적은 3개 구역으로 나뉘며 조사된 주거지는 36동이다. 주거지들의 입지는 남사면 조영되어 남쪽 조망을 하고 있다. 사면에 입지한 관계로 대부분 유실되어 완형의 주거지는 39동이 조사되었다. 모두 평면 장방형으로 내부시설로는 노지, 벽구, 벽주, 바닥주혈 등의 시설이 발견되었다. 유물은 공열문토기, 이중구연단사선, 단사선문 토기, 석촉, 석부 등이 출토되었다. 절대연대는 C-14 연대분석 결과에 따라 주거지 1호에서 2610 ± 40 , 주거지 12호에서 2840 ± 40 , 주거지 16호에서 2560 ± 40 , 주거지 34호에서 2640 ± 40 , 주거지 36호에서 2800 ± 40 의 연대가 측정되었다.



도면 13. 포항 남송리 유적 I 현황도49)

48)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11, 앞의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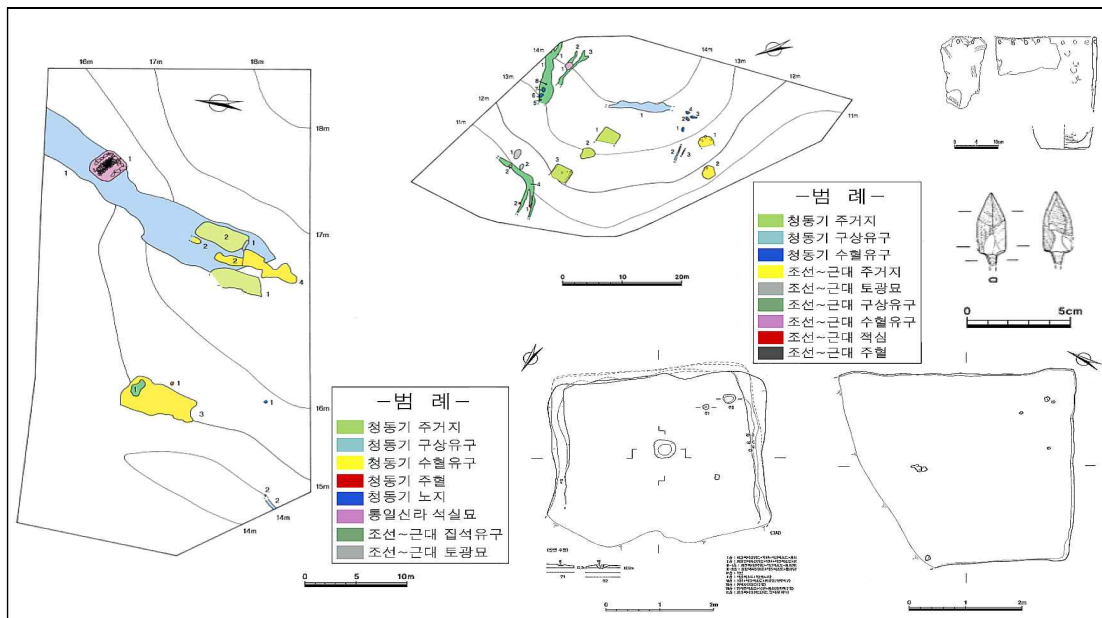
49) _____, 2011, 위의 보고서, p. 35.

11) 포항 남송리 Ⅱ,Ⅲ 유적⁵⁰⁾

남송리 Ⅱ유적은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송리 672-3·4전으로 해발 12~13m 상의 구릉 말단에 위치한다.<도면 14>

입지적으로 북서사면에서 북서 조망을 하고 있다. 조사된 유구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구상유구, 수혈, 조선~근대시대의 주거지, 토광묘, 구상유구, 수혈유구, 적심, 주혈 등이 조사되었다. 이중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3동이 조사되었다. 대부분 삭평되어 정확한 평면형태는 알 수 없다. 내부시설로는 노지, 벽구, 주혈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공열문토기, 저부, 어망추 등의 토기류와 지석, 연마기, 석촉 등의 석기류가 출토되었다.

남송리 Ⅲ유적은 경상북도 북구 흥해읍 남송리 562-1번지 전으로 해발 14~17m 상의 구릉 말단에 위치한다. 입지적으로 북서사면에서 북서 조망을 하고 있다. 조사된 유구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구상유구, 수혈, 주혈, 노지, 통일신라시대 석실묘, 조선~근대시대 집석유구, 토광묘 등이 조사되었다. 이중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2동이 조사되었다. 평면 장방형으로 추정되며 내부시설로 노지, 주혈 등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석도, 석촉 등이 출토되었다. 절대연대 C-14 연대분석 결과에 의하면 Ⅱ-3호 주거지에서 2580±40, Ⅲ-1호 주거지에서 2500±40, Ⅲ-2호 주거지에서 2890±40의 연대결과가 검출되었다.



도면 14. 남송리 Ⅱ,Ⅲ유적 현황도⁵¹⁾

50)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11, 앞의 보고서.

51) _____, 2011, 위의 보고서, pp. 37-38.

3. 취락의 성격

이인리 청동기시대 주거지의 전체적인 입지를 살펴보면 구릉형 산지에 해당된다. 지형에 따른 해발고도 변화는 하류에는 비교적 해발고도가 낮은 지역에서 유적이 분포하고 중류에서 상류로 갈수록 높은 고도에서 유적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기별 특징을 살펴보면 중기취락에서 대련리 취락유적은 평균해발이 62.5m로 아주 높다. 이 유적지를 제외한 세곳의 유적지는 평균해발이 30m 내외에 위치하고 있으며, 성곡리 I·II유적의 경우 해발고도가 24.3m로 가장 낮다. 후기 취락 중에서 대련리(학당골)취락유적이 해발 53.6m에 달하며 상당히 높은 곳에 위치하지만, 초곡리 취락유적에서는 해발고도가 23.3m로 많이 낮아졌다. 남송리유적 I의 경우 39동의 후기 주거지가 발견되었는데 해발고도 평균이 11.3m로 전기와 중기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5>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당시 생활환경에 의한 요인과 청동기시대 부터는 방어 취락의 형성과 생업이 밀접한 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취락간의 또는 마을간의 위계에 따라 특징의 한 취락이 입지가 높은 곳에 조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표 5>에서 제시된 자료를 계산하여 각 시기별 주거지의 해발고도 평균을 그래프로 나타내었다.<표 4>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초곡천유역의 청동기시대 주거지 입지의 해발고도는 전기 34.8m → 중기 36.3m → 후기 18.8m 이다.

전기에서 중기로 갈수록 해발고도가 다소 높아진 것은 대련리 취락유적의 해발고도가 워낙 높기 때문이다. 이 대련리 취락유적의 경우가 아니라면 청동기시대 주거지 입지의 해발고도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향하는 경향을 본여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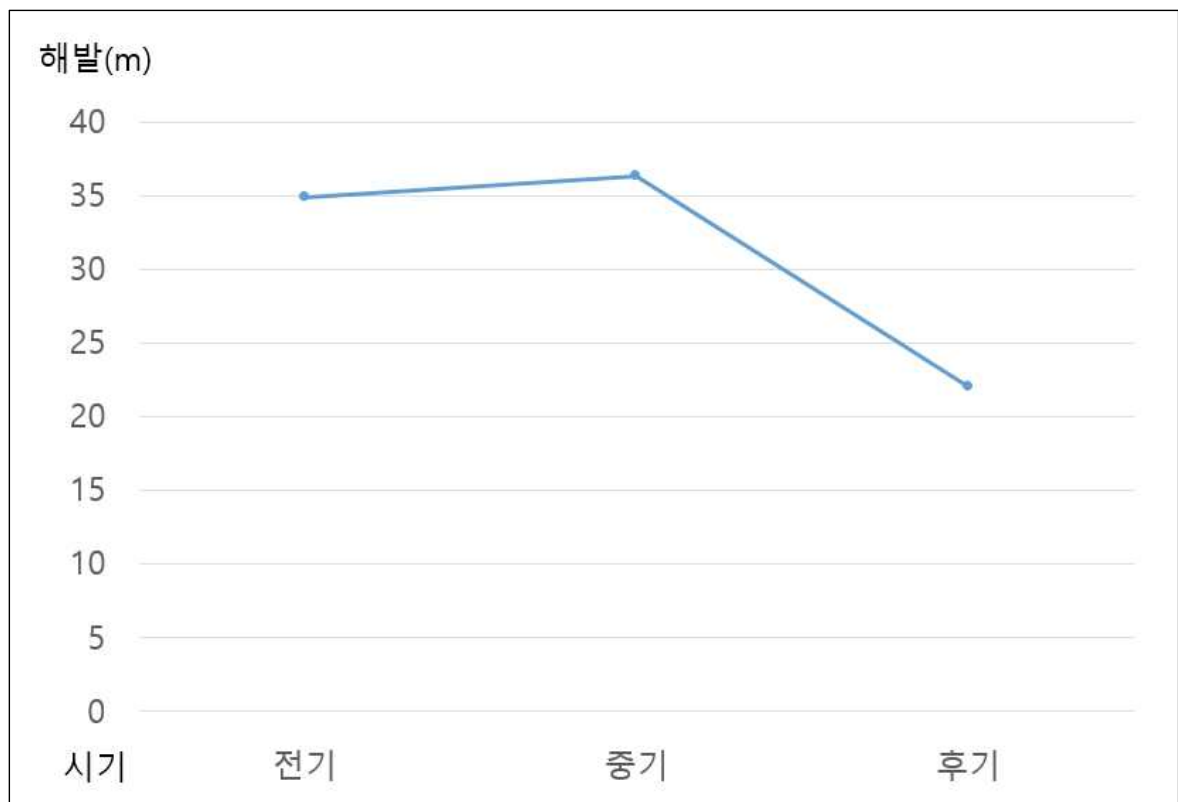
이렇게 주거지의 해발고도가 낮아지게 되는 것은 수렵, 채집에서 농경으로 새업경제가 많이 바뀌어 간 탓이 아닌가 추정된다. 이러한 경향이 지속되면서 청동기시대를 지나 철기시대-원삼국 혹은 삼국시대 전기(기원 후 1~3세기)에 이르면 전형적인 취락은 구릉말단 또는 충적지 등 훨씬 더 낮은 곳으로 내려오게 된다.

전체적인 입지에 있어서는 초곡천과 초곡천 유역으로 합류하는 작은 지천들이 있어 어로 활동에 용의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며, 또 하나 방어와 관련해서(전쟁 또는 동물의 습격)구릉사면에 취락이 만들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능선의 앞쪽은 넓은 충적지가 조성되어 있다. 취락의 입지 선택에 있어서

식량생산이 가능한 토지가 입지를 선택하는데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각 유적들에 대한 편년은 선행 연구에 따라 절대연대인 C-14 연대분석 자료<표 6>를 참고하였다. 이 자료에 의하면 청동기시대 전기 유적으로는 남송리 유적, 초곡리 유적, 성곡리 유적이 있고 79동의 주거지가 발굴되었다. 중기에 해당되는 유적으로는 이인리 청동기시대 취락유적, 이인리 청동기시대 취락유적Ⅱ, 대련리 청동기시대 취락유적, 성곡리 I,Ⅱ유적이 있고 81동의 주거지가 발굴되었다. 후기 유적으로는 대련리(학당골)청동기시대 취락유적, 초곡리 취락유적, 남송리 유적 I, 남송리 유적Ⅱ·Ⅲ이 있고 114동의 주거지가 발굴되었다.

<표 4> 초곡천 유역 시기별 평균 해발고도



<표 5> 초곡천 유역의 유적 입지 분류표

유적	수 량	입지		지형		배치		시기
		하 천	평균해발 (m)	평 지	구 릉	사 면	능 선	
남송리 유적(경상북도문 화재연구원, 2006)	5	○	33.8	-	○	○	-	전기
초곡리 유적(영남문화재 연구원, 2000,)	17	○	28.0	-	○	○	-	전기
성곡리 유적(한빛문화재 연구원, 2012,	57	○	42.8	-	○	○	○	전기
이인리 청동기시대 취락 유적(성림문화재연구원, 2012)	22	○	30.5	-	○	○	-	중기
이인리 청동기시대 취락 유적Ⅱ(성림문화재연구원, 2012)	15	○	31.1	-	○	○	-	중기
대련리 취락유적(성림문 화재연구원, 2009)	39	○	62.5	-	○	○	-	중기
성곡리 I·Ⅱ유적(경상북 도문화재연구원, 2011,	5	○	24.3	-	○	○	-	중기
이인리 유적(한빛문화재 연구원, 2019)	65	○	33.1	○	○	○	○	중기
대련리(학당골) 취락유적 (성림문화재연구원, 2012)	15	○	53.6	-	○	○	-	후기
초곡리 취락유적(영남문 화재연구원, 2014)	55	○	23.3	-	○	○	○	후기
남송리 유적Ⅰ(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 2011)	39	○	11.3	-	○	○	-	후기
남송리 Ⅱ·Ⅲ유적(경상북 도문화재연구원, 2011)	5	○	21.7	-	○	○	-	후기

1) 전기

전기의 유적으로는 남송리 유적, 초곡리 유적, 성곡리 유적에서 79동의 주거지가 조사되었다. 위치는 초곡천의 하류와 중류에 분포하고 있고 초곡천과는 약 700~1,000m 정도 이격되어 있다. 입지는 해발 20~35m 내외의 구릉부에 주거지들이 만들어져 있다. 이 중 평면형태나 면적을 알 수 있는 완형의 주거지는 13동이 확인된다. 형태는 방형, 장방형, 세장방형의 주거지가 모두 나타나나 장방형의 주거지가 주류를 이룬다. 면적은 소형, 중형, 대형의 빈도수가 모두 비슷하게 나타난다.

유물은 토기류와 석기류가 확인된다. 토기류는 다시 복합문과 단일문으로 구분되는데 복합문은 구분구순각목 공열문 1점, 구순각목이중구연 단사선 2점이 확인되었고, 단일문은 단사선 6점, 구순각목 4점, 공열문 5점이 확인된다.

석기류는 석검 10점, 석촉 11점, 반월형석도 11점, 석부 7점 등이 확인된다. 이외 토제품인 어망추가 13점 출토되었다.

2) 중기

중기의 유적으로는 초곡천의 상류에 대련리 취락유적이 있고, 중류에 성곡리 I, II 유적, 하류에 이인리 취락유적, 이인리 취락유적 II가 있다. 이 유적들은 전기보다 초곡천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입지는 해발 12~45m의 구릉사면에 주거지들이 분포하고 있다. 주거지는 모두 81동이 발굴되었고 이 중 형태 및 면적을 알 수 있는 주거지는 27동이 확인된다. 형태는 방형 주거지가 10동, 장방형 12동, 세장방형 5동이 확인되었다. 면적은 소형 13동, 중형 12동, 대형 2동이 확인된다.

출토유물 중 토기류는 구분구순각목공열문 2점, 구순각목문 1점, 공열문 6점이 확인되었고, 홍도와 파수토기가 각 1점씩 확인된다. 석기류는 석검 4점, 석촉 22점, 석부 29점, 반월형석도 12점이 확인된다. 이외 토제품인 어망추가 337점 확인된다.

3) 후기

후기의 유적으로는 대련리(학당골)청동기시대 취락유적, 초곡리 취락유적, 남송리 유적 I, 남송리 유적 II·III이 있고 114동의 주거지가 발굴되었다. 초곡천의 중,상류에 위치하고 있고, 주거지는 해발 8~64m 정도의 구릉 말단부나 능선에 입지하고 있다. 형태 및 면적을 알 수 있는 주거지는 65동이 확인된다.

형태는 방형 주거지가 28동, 장방형 26동, 세장방형 11동이 확인되었다. 면적은 소형 55동, 중형 8동, 대형 8동이 확인되었다.

출토유물 중 토기류는 구순각목공열문 1점, 이중구연단사선 2점, 공열문 10점 외 홍도 3점, 파수토기 6점, 두형토기 3점이 출토되었다. 석기류는 석검 5점, 석창 3점, 석촉 21점, 석부 18점, 반월형석도 7점이 출토되었다. 이외 토제품인 어망추는 91점이 출토되었다. 유물의 기능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다.

<표 6> 초곡천 유역 주거지 C-14 연대분석 결과표

유적명	유구	C-14 연대측정치	연대조정 결과
포항 초곡리 유적 ⁵²⁾	5	3164±89~90	BC 1214
	6	3300±50	BC 1350
포항 성곡리 유적 ⁵³⁾	1	3130±60	BC 1180
	17	3070±50	BC 1120
포항 이인리 청동기시대 취락유적 ⁵⁴⁾	2	2930±50	BC 980
	8	2920±40	BC 970
포항 이인리 청동기시대 취락유적Ⅱ ⁵⁵⁾	V-13	2820±50	BC 870
	Ⅱ-8	2500±50	BC 550
	Ⅱ-7	2600±50	BC 650
	I-6	2640±50	BC 690
	I-5	2770±50	BC 820
	I-4	2860±50	BC 910
포항 대련리 청동기시대 취락유적 ⁵⁶⁾	4	2850±60	BC 900
	5	2580±50	BC 630
	6	2720±50	BC 770
	19	2670±60	BC 720
	22	2870±50	BC 920
포항 성곡리 I·Ⅱ 유적 ⁵⁷⁾	1	2490±40	BC 540
	2	2940±40	BC 990
포항 대련리(학당골) 청동기시대 취락유적 ⁵⁸⁾	I-6	2630±50	BC 680
포항 초곡리 취락유적 ⁵⁹⁾	2	2790±80	BC 840
	4	2730±40	BC 780
	5	2740±50	BC 790
	16	2750±40	BC 800
	17	2730±30	BC 780
	21	2720±50	BC 770
	22	2780±50	BC 830
	24	2720±40	BC 770
	25	2690±40	BC 740
	28	2670±40	BC 720
	46	2730±50	BC 780
포항 남송리 유적 I ⁶⁰⁾	1	2610±40	BC 660
	12	2840±40	BC 890
	16	2560±40	BC 610
	34	2640±40	BC 690
	36	2800±40	BC 850
남송리 Ⅱ·Ⅲ 유적 ⁶¹⁾	Ⅱ-3	2580±40	BC 630
	Ⅲ-1	2500±40	BC 550
	Ⅲ-2	2890±40	BC 940

시기별 유적의 특징을 살펴본바 이인지구 유적을 제외한 11개 유적에서 274동의 주거지가 조사되었다. 이 중 형태가 온전한 135 주거지를 대상으로 평면 형태의 장축·단축비, 면적을 산출하여 시기별 변화양상이 있는지 파악하였고, 출토된 유물을 검토하여 생업을 분석하였다.

먼저 형태와 면적을 분류하는 기준은 본 논문에서 필자의 생각에 따라 기준을 정하였다. 왜냐하면 구분에 있어 연구자들마다 통일성 없이 유적의 성격에 따라 상이한 기준을 제시하여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다⁶²⁾. 따라서 필자는 평면비가 1:1.1까지가 정방형이라고 가정했을 때 인력으로 주거지를 굴착하기 때문

<표 7> 주거지 형태 및 면적 기준표

면적	기준 (1인 5m ²)	수량 (기)	평면형태 (1:1.1기준)	단축	장축	수량 (기)
소형 (4인미만)	1~20m ²	72	방형	1:	1.20미만	39
중형 (4인이상~ 7인미만)	20.1~35m ²	25	장방형	1:	1.21~1.60	47
대형 (7인이상)	35.1m ² 이상	8	세장방형	1:	1.61이상	19

52)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6, 앞의 보고서, pp. 159-162.

53) 한빛문화재연구원, 2012, 앞의 보고서, pp. 256-279.

54) 성림문화재연구원, 2012, 앞의 보고서, pp. 359-364.

55) _____, 2012, 앞의 보고서, pp. 213-228.

56) _____, 2009, 앞의 보고서, pp. 455-462.

57)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11, 앞의 보고서, pp. 202-204.

58) 성림문화재연구원, 2012, 앞의 보고서, pp. 179-180.

59) 영남문화재연구원, 2014, 앞의 보고서, pp. 417-442.

60)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11, 앞의 보고서, pp. 242-248.

61) _____, 2011, 앞의 보고서, pp. 174-1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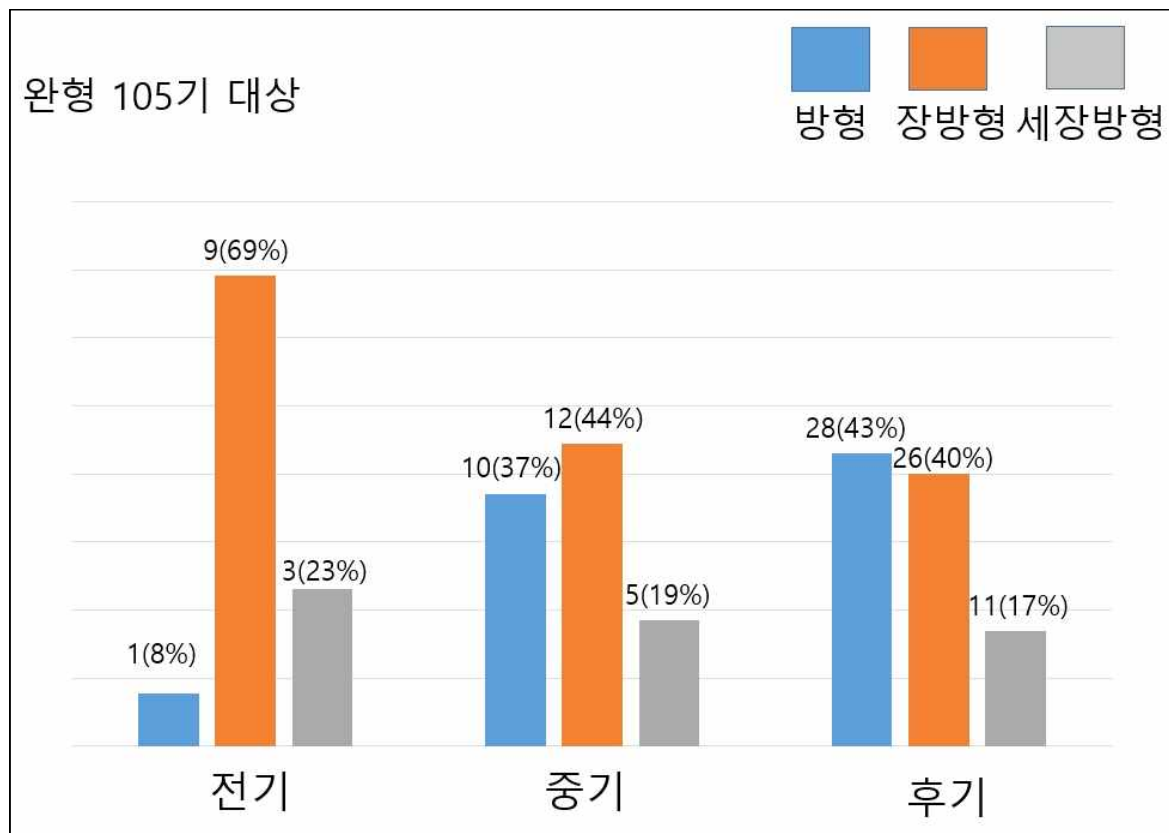
62) 주거지 면적은 연구자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마도 연구자 마다 검토하는 지역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연구대상 유적에 대해 별도 기준을 제시하였다.

에 그때 발생하는 오차를 감안하여 장폭비가 1.21:1의 범주에 들어가면 방형, 1.21~1.60:1은 장방형, 1.61:1 이상은 세장방형으로 구분하였다. 면적은 1인 주거면적을 최소 5㎡를 점유한다고 가정하였다. 이때 4인 미만은 소형(1~20㎡), 5~7인은 중형(26~38㎡), 7인 이상은 대형(35㎡)으로 분류하였다.<표 7>

<표 8>을 참고하면 방형의 주거지는 전기(8%)-중기(37%)-후기(43%)로 갈수록 빈도수가 높아진다. 장방형의 주거지는 전기에 69%로 빈도수가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이 후 중기(44%)-후기(40%)빈도수가 점점 낮아지진다. 세장방형의 빈도수는 전기(23%)-중기(19%)-후기(17%)로 모든 시기에 빈도수가 낮고 그 수도 후기로 갈수록 점점 낮아진다.

면적은 <표 9>를 참고하면 전기에는 소형의 주거지가 31%, 중형 38%, 대형 31%로 큰편차 없이 빈도수가 비슷하게 나타난다. 중기에는 소형 48%, 중형 45%, 대형 7%로 중기부터 소형의 빈도수가 점점 높게 나타난다. 후기에는 소형 85%, 중형 12%, 대형 3%로 소형의 빈도수가 급격하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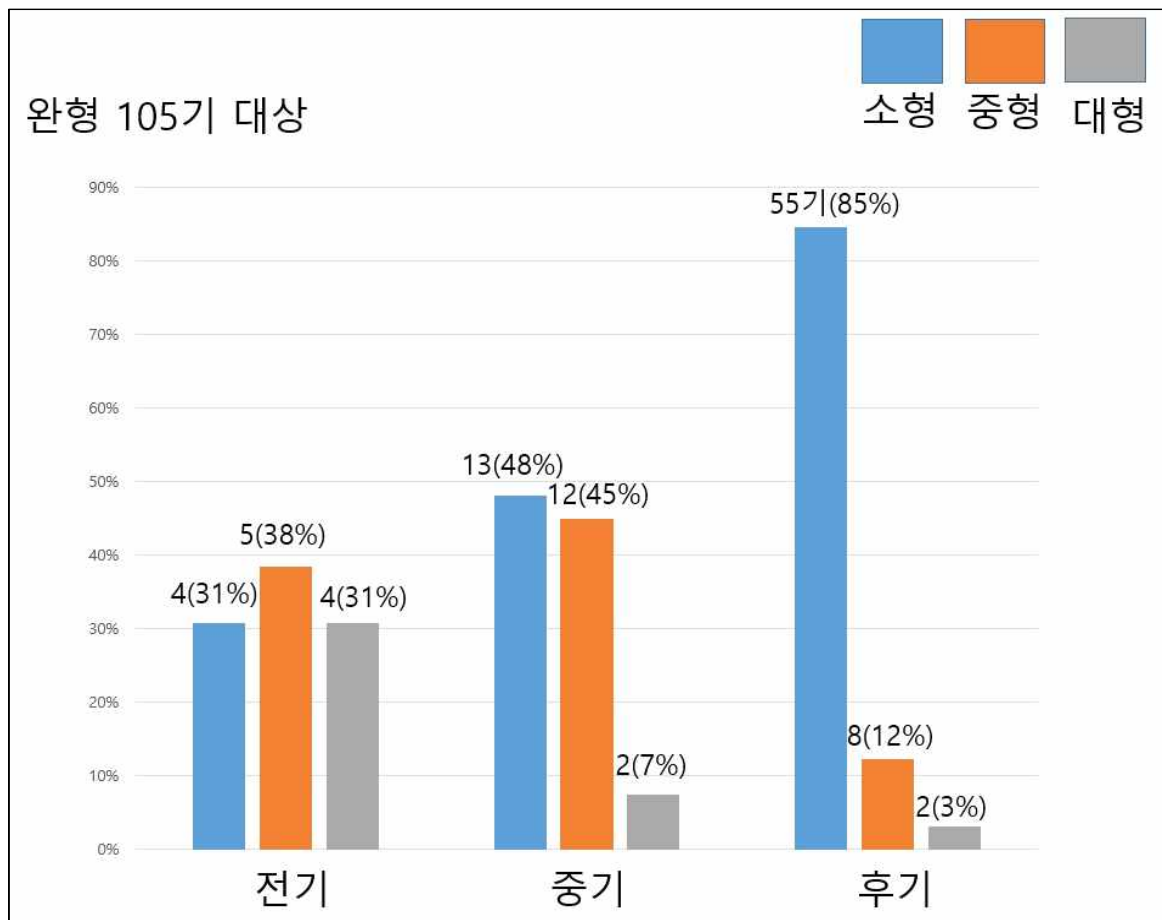
<표 8> 초곡천 유역 주거지 형태별 빈도수



주거지의 형태와 면적의 분석결과 형태는 전기에는 장방형의 주거지가 주류를 이루고, 중기-후기로 갈수록 장방형의 빈도수는 낮아지고 방형의 빈도수가 점차 높아진다.

평면형태와 면적의 상호간에 연관성을 살펴보면 두 속성간의 연동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평면형태와는 무관하게 후기로 갈수록 소형면적의 주거지가 다수 점유하는 형태인데 이유는 주거환경에 있어서 후기로 갈수록 가족의 구성이 소가족화가 진행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세장방형의 대형 주거지가 낮은 빈도수로 확인되는 경우가 있다. 아마도 용도에 있어서 주거생활과는 다른 형태의 목적을 두고 마을마다 규모가 큰 주거지를 축조한 것으로 생각된다.

<표 9> 초곡천 유역 주거지 면적 빈도수



다음으로 초곡천 유역 청동기시대 취락의 생업형태는 출토유물의 검토하여 분석하였다. 기종분류는 수확구, 무기·수렵구, 어구, 농공구 등으로 용도에 따라 분류한 후 세부 유물을 범주에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수렵과 채집, 어로 등은 구석기시대 이래로 존재했던 생계형태인 반면, 농경은 신석기시대에 도입된 이후 점차 비중이 높아져 청동기시대가 되면 가장 중요한 생계 형태가 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⁶³⁾.

<표 10>을 참고하면 전기에는 석축·석검의 비율이 32%, 어망추의 비율이 48%로 높게 나타난다. 중기에는 어망추의 비율이 85%로 높게 나타난다. 후기에는 석축·석검의 비율이 22%, 어망추의 비율이 65%로 나타난다. 중기, 후기에는 어업과 관련 있는 어망추 출토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마도 생업의 특성상 수렵·무기, 수확구 등은 용도에 있어 하나의 유물로 생업활동이 가능하지만 어구의 경우 적게는 여러점에서 많게는 수십점의 유물이 필요한 경우라 아마도 많은 빈도수가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시기별 주거지에서 출토된 유물을 살펴보았을 때도 대부분의 주거지에서 농경, 수렵과 관련된 유물이 1점에서 많게는 2~3점이 출토되지만 공반되는 어망추의 빈도수는 전기에는 79동의 주거지 중 11동의(14%) 주거지에서 48개의 어망추가 출토되었고, 중기에는 81기의 주거지 중 39기(48%)의 주거지에서 373개의 어망추가 출토되었다. 후기에는 114개의 주거지 중에서 28동(25%)의 주거지에서 104개 어망추가 출토되었다.

이러한 어망추의 빈도 양상으로 볼 때 어로가 생업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 것은 맞지만 출토량이 많다고 해서 생업의 중심은 아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청동기시대에는 농경 하나만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기엔 자연재해는 물론이거니와 기술적 측면에서도 식량 생산력의 안정성은 낮고, 영양소 섭취에 있어서도 불균형을 이루게 된다. 이러한 식량 생산력의 불안정성이나 영양소의 불균형을 수렵이나, 채집, 어로라는 자연자원의 활용으로 보완하였던 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다⁶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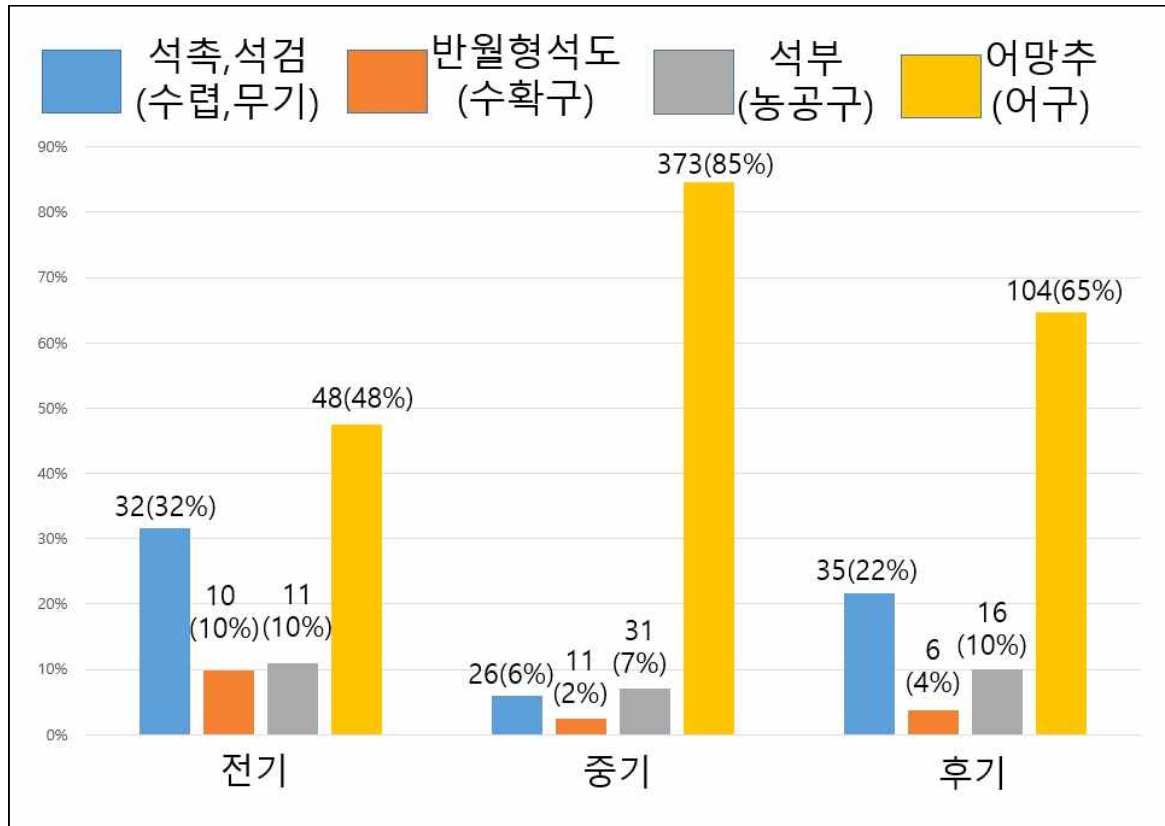
어구 외 수렵구과 수확구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중기에는 수렵구의 비중이 약간 높았다면 후기에는 수확구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생업에 있어 농경, 채집, 수렵이 중심이 되고 중기, 후기 어업의 비중이 점차 높아져 생업은 다양화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63) 김도현, 2008, 「청동기시대 수렵과 채집」, 『한국청동기학보』 3:19-34.

64) 김성욱, 2008, 「청동기시대의 어로」, 『한국청동기학보』 3:4-17.

이러한 이유로는 입지적으로 구릉산지에 취락이 조성되어 있어 수렵에 용의하였을 것이고, 초곡천 주변의 충적지는 비옥한 토양으로 형성되어 농경과 채집에 용의한 지형을 갖췄다. 또한 초곡천을 비롯하여 여러 지천에서는 어로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10> 초곡천 유역 출토유물 빈도수



Ⅲ. 이인지구 유적의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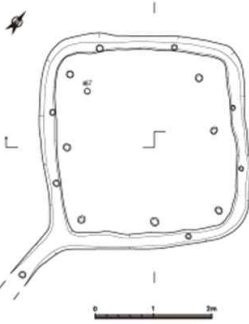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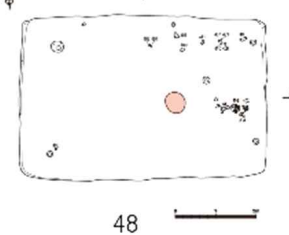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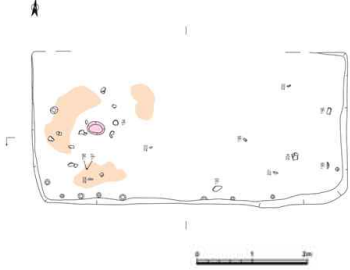
유적이 입지한 곳은 초곡천의 중류로 지류인 학림천과 합류하는 곳의 남쪽 구릉부다. 이 구릉은 해발 29~36m 내외로 구릉 전체가 발굴조사 되어 단위 취락의 구조를 살펴볼 수 있는 유적이다. 따라서 이 유적을 통해 주거지의 형태, 구조, 출토유물을 분석하여 취락의 구조를 밝히는데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한다.

1. 주거지 및 유물

1) 주거지

이인지구 유적에서 조사된 주거지는 65동이다. 하지만 모든 주거지가 완전한 형태로 조사되지는 않았다. 이유는 자연유실, 경작지 개간, 수목이식 등 대부분 인위적으로 훼손되었다. 그 중에서도 온전한 주거지가 일부 남아있어 그 주거지를 대상으로 평면형태 및 면적을 분류하여 시기에 따른 변화상을 살펴보고 노지, 배수구, 주혈배치 등의 내부구조를 파악하였다.<표 11>

<표 11 > 이인지구 유적 내 주거지 평면형태⁶⁵⁾

방형 (주거지 56호, p. 361.)	장방형 (주거지 48호, p. 318)	세장방형 (주거지 17호, p. 185.)
		

65) 한빛문화재연구원, 2019, 앞의 보고서.

(1) 평면형태 및 면적

이인지구 유적에서 발굴된 청동기시대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방형, 장방형, 세장방형으로 구분된다.<표 12>

면적은 소형, 중형, 대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65동의 주거지 중 형태와 면적분류가 가능한 주거지 31동을 대상으로 삼았다.<표 13>

<표 12> 이인지구 유적 주거지 형태분류

방형 (Ⅰ형)	장방형 (Ⅱ형)	세장방형 (Ⅲ형)
9, 23, 24, 31, 33, 37, 51, 52, 62, 61, 64	3, 4, 14, 16, 12, 27, 28, 40, 46, 48, 53, 56	1, 17, 18, 21
11	12	4

먼저 평면형태를 살펴보면방형(Ⅱ형)주거지는 11동이 확인되었다. 장·단비 1.20:1 이하인 주거지가 그 대상이다. 유적 내 중앙을 기준으로 남, 북, 서 사면에 분포하고 있다. 방형 주거지의 특징은 1개의 수혈식노지 또는 평지식 노지가 바닥중앙에서 한쪽으로 편재해 있다. 모든 주거지에서 벽구가 있고, 벽구 아래에는 벽주혈이 확인된다. 일부 주거지에서는 외부배수구가 확인된다. 바닥주혈은 모서리로 치우쳐 4주 또는 6주의 중심 주혈이 나타난다.

<표 13> 이인지구 유적 주거지 면적분류

소형 (A형)	중형 (B형)	대형 (C형)
9, 23, 24, 31, 33, 37, 51, 52, 62, 61, 64	3, 4, 14, 16, 12, 27, 28, 40, 46, 48, 53, 56	1, 17, 18, 21
11	12	4

장방형(Ⅰ형)의 완형 주거지는 18동이 확인되었다. 장·단비가 1.2~1.6:1 이상인 주거지가 대상이다. 유적 내 구릉사면을 돌아가며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장방형 주거지의 특징은 노지의 형식이나 배치는 방형과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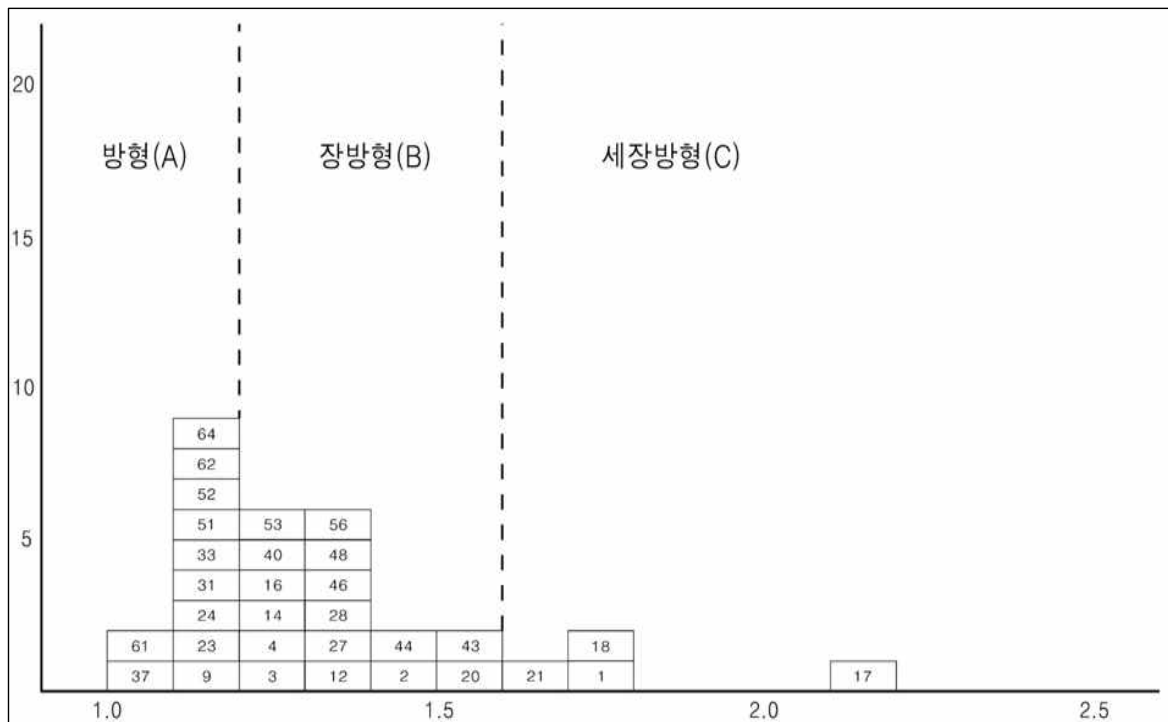
하지만 모든 주거지에서 벽구가 나타나지 않고 일부 주거지에서만 벽구와 외부배수구가 확인된다. 바닥주혈은 대부분 6주의 중심 주혈이 배치되어 있다.

세장방형(Ⅲ형)의 완형 주거지는 4동이 확인되었다. 장·단비가 1.2~1.6:1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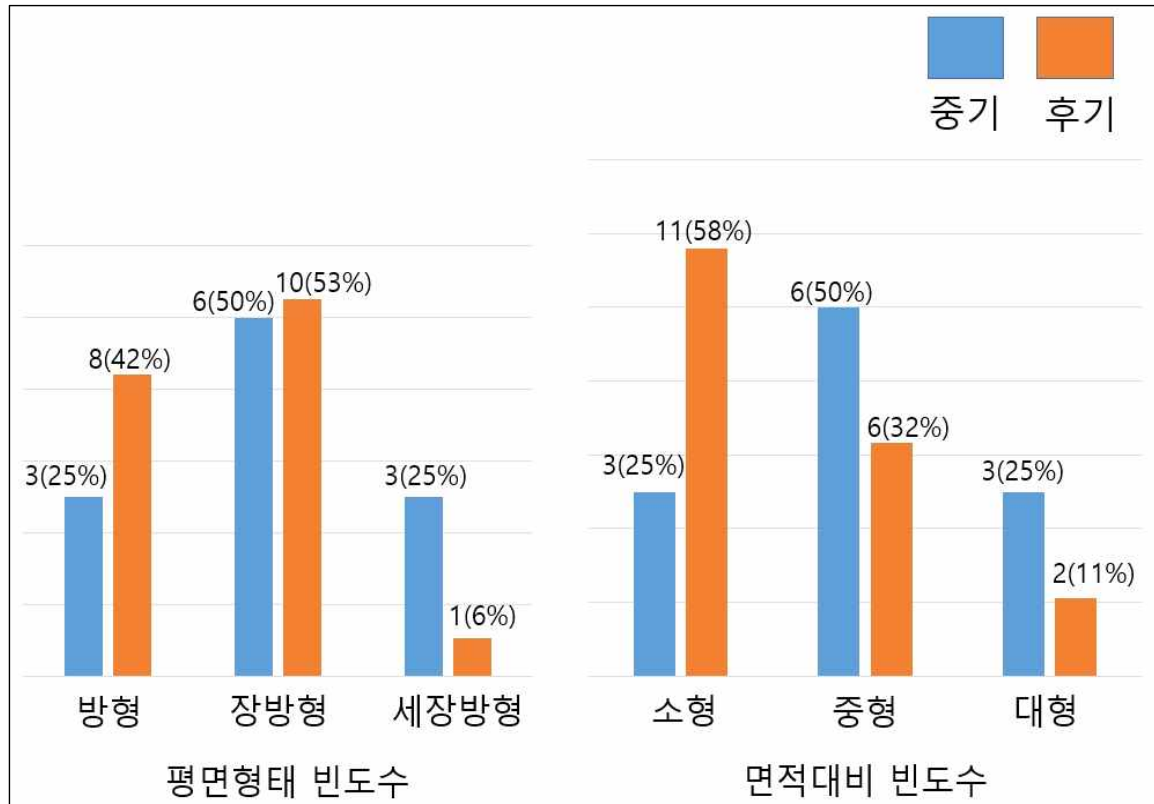
상인 주거지가 대상이다. 유적 내 구릉의 북서 사면에서 확인된다. 특징은 17호를 제외한 나머지 주거지에서 노지가 확인되지 않는다. 17, 18, 21호의 경우 벽구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주거 외의 목적으로 세장방형을 축조한 것으로 생각된다.

면적대비 주거지는 소형(A형)가 26동으로 80%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중형(B형)주거지 3동으로 10% 점유율, 대형(C형)주거지 3동으로 10%의 점유율을 나타낸다. <표 15>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평면형태 대비 면적이 연동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I A형과 II A형의 주거지의 형태대비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중형과 대형의 주거지는 IB형과 IC형이 각각 3동씩 확인된다. 따라서 방형→장방형→세장방형의 형태와 소형→중형→대형의 면적간에 상호 연동관계는 없다고 볼 수 있다.

<표 14> 이인지구 유적 주거지 도수분포



<표 15> 이인지구 유적 주거지 면적 및 형태별 빈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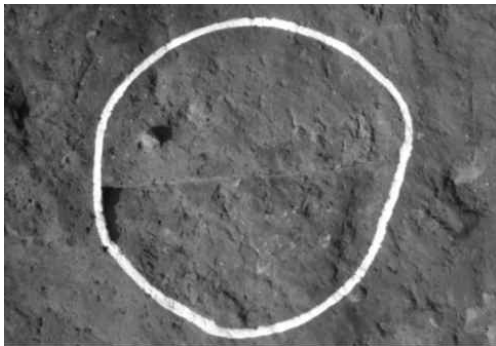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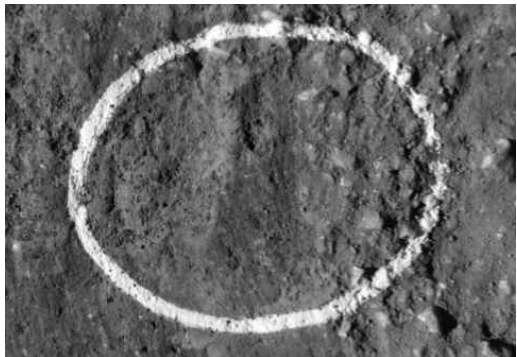
(2) 노지

노지는⁶⁶⁾ 위석식, 부석식, 수혈식, 평지식으로 형태별로 구분이 된다.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취사, 난방, 조명 등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2~4개까지 확인되는 경우도 있다⁶⁷⁾. 또한 노지의 형태는 청동기시대 주거지의 시기 구분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이인지구 유적에서는 수혈식과 평지식 2가지 형태의 노지가 확인된다. 수혈식노지는 바닥에 구덩이를 판 형태로 그 안에 불을 지폈다. 평지식 노지는 바닥을 그대로 이용하는 노지의 형태이다.<표 16>

노지는 수혈식 노지가 5동의 주거지에서 확인되었고, 평지식 노지가 28동에서 확인되었다. 노지는 시기적으로 중기에서 후기까지 나타나는 보편적인 형태의 노지들이 발견되었다.

<표 16> 이인지구 유적 노지 형태분류

수혈식	평지식
	

66) 이민석, 2003, 「한국 상고시대 노시설 연구」, 전북대학교대학원 고고문화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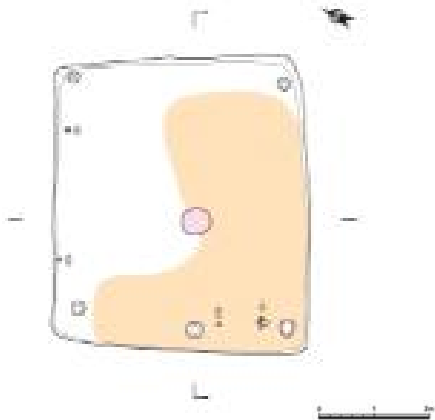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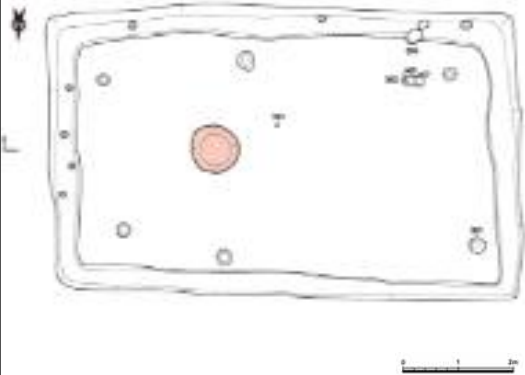
67) 주거지의 크기에 따라 세장방형의 경우 여러개의 노지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방형 또는 장방형의 경우 주거지 내에서 노지의 폐기 후 재사용 또는 노지의 이동에 따라 복수의 노지가 나타나기도 한다.

(3) 바닥주혈과 벽주혈

바닥주혈과 벽주혈은 주거지 내부 기둥배치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구조적으로 주거지 바닥에 위치한 주혈이 중심주혈이라면 벽주혈은 중심주혈의 보조기능 역할이 크다. 일각에서는 이 기둥자리를 분석하여 상부구조를 복원하는 시도도 있었다⁶⁸⁾. 이인지구 유적에서 확인된 주혈배치는 4주 또는 6주 배치가 확인되었다.<표 17>

4주 배치는 대부분 규모가 작은 방형주거지에서 주로 배치형태가 나타나고 6주의 형태는 장방형의 주거형태에서 대부분 나타난다. 이는 규모가 큰 주거지일수록 주거지 내 기둥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표 17> 이인지구 유적 주거지 주혈배치 양상⁶⁹⁾

4주 배치(주거지 3호, p. 146.)	6주 배치(주거지 43호, p. 291.)
	

68) 엄윤정, 1999, 「울산지역 청동기시대 취락과 주거의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주거지발굴유적을 중심으로-」, 울산대학교대학원 건축학부 석사학위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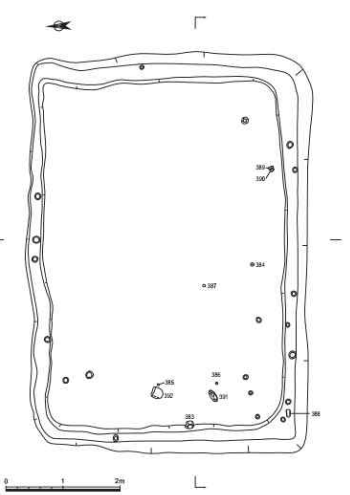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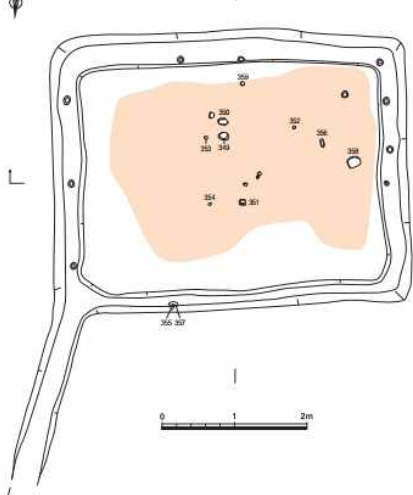
69) 한빛문화재연구원, 2019, 앞의 보고서.

(3) 벽구와 배수구

주거지 내부 벽 아래를 돌아가며 배수로를 설치한 것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주거지 내부에만 설치되어 있으면 벽구, 주거지 내부에서 외부로 연결되면 외부돌출구라고 한다⁷⁰⁾. 기능에 있어서는 내부로 들어오는 우수(雨水)의 범람을 막거나, 내부에 습기로 인해 발생하는 결로를 배수하는 기능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설치방법은 주거지 바닥면 보다 낮게 벽아래를 ‘ㄷ’자 또는 ‘口’자 형태로 굴착 하거나, 한쪽 모서리는 주거지 외부로 연장하여 배수구를 설치하였다. 벽구만 설치된 주거지는 충적지와 구릉지에서 발견이 되고, 외부배수구가 있는 주거지는 구릉지나 산 능선에 조성된 주거지에서 주로 발견된다. 시기는 외부배수구가 만들어진 주거지가 중기 후반 또는 후기로 편년하고 있다⁷¹⁾.

이인지구 유적에서는 벽구와 외부배수구 주거지가 확인된다. 벽구 주거지는 비교적 경사가 완만한 곳에서 확인되고, 외부배수구가 있는 주거지는 상대적으로 경사가 급한 곳에 입지한 주거지에서 확인된다. 형태는 주거지 한쪽 모서리에서 지대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길게 배수구가 돌출되어 있다.<표 18>

<표 18> 이인지구 유적 주거지 배구수 형태⁷²⁾

口자형태(주거지 46호, p. 307.)	외부배수구(주거지 40호, p. 282.)
	

70)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필자는 용어에 있어서 외부배수구라고 정리하였다.

71) 김현식, 2006, 앞의 논문.

72) 한빛문화재연구원, 2019, 앞의 보고서.

2) 유물

(1) 토기

이인지구 유적에서 출토된 무문토기 330점이다. 이 중 기형을 알 수 있는 무문토기는 심발형토기(4점), 천발형토기(7점), 홍도(3점), 두형토기(1점) 등이 <표 19> 기종별 출토위치

유물명	심발	천발	홍도	두형토기
유구명	2, 14, 28, 47	28, 58	28, 44	4

다. 이 유물을 통해 이것을 유구별로 정리하면 <표 19>와 같다. 여기서 시기 구분이 가능한 토기 중 발형토기, 홍도를 중심으로 유물을 검토하고, 기형을 알 수 없는 토기 중에서도 문양이 남아있는 토기 42점은 시기반영에 중요한 요소를 차지함으로 문양을 분류하여 시기구분에 반영하였다.

① 발형토기

발형토기는 최대경이 구연에 있으며, 동체부 꺾임없이 구연으로 바로 연결 되는 것을 말하며, 기고의 차이에 따라 심발형과 천발형으로 구분된다. 심발형 토기는 대체로 높이와 구경이 같거나 높이가 구경의 2/3이상인 토기를 말한다. 반대로 천발형토기는 높이가 구경의 2/3이 하인 토기를 말한다⁷³⁾.

이인지구에서 출토된 심발형은 구연부는 동체에서 구연부로 갈수록 내만하다가 구연단에서 둥글게 처리된 것과, 구연부 쪽에서 서서히 외반하다가 구연단 아래에서 급격하게 외반하고 있다.<표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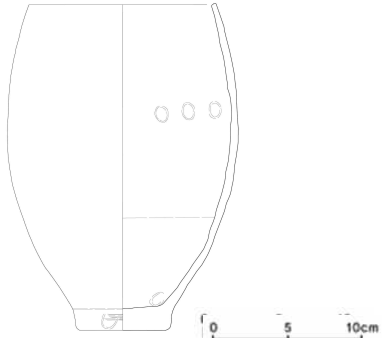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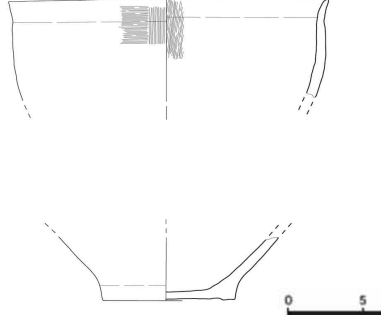
천발형은 구경 30cm 이내, 기고 15cm 전후의 것으로 한다. 심발형 발은 구경 30cm 이상, 기고 20cm 이상인 것으로 기준을 삼았다⁷⁴⁾.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28호와 58호 유물은 천발형 발에 속하는데 2점 모두 홀구연에 외반한다. 발형토기는 청동기시대 시기를 막론하고 전기부터 후기까지 출토되는 토기양식이다. 초곡천 유역에서도 이인지구 유적에서 출토된 발형토기와 유사한 형

73) 국립문화재연구소, 2004, 『한국고고학전문사전 -청동기시대편-』, 서울: 학연문화사, pp. 218-2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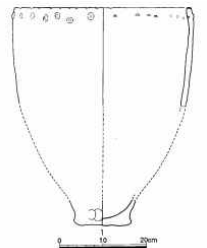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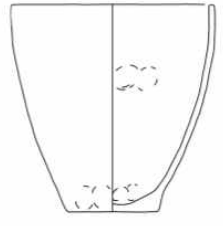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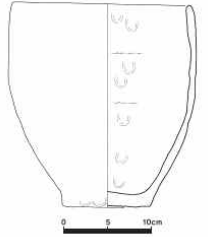
74)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2001, 『진주 대평리 어은2지구 선사유적 I』, pp. 203-204.

태의 토기들이 출토되었다. 남송리 유적 I의 주거지 36호에서 출토된 심발형 토기는 무문양으로 동최대경이 구연에 있고, 평저의 굽형태를 하고 있다. 35호에서 출토된 천발은 구연부의 형태에 있어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기종의 크기가 비슷하고 굽의 형태가 유사하다.<표 21> 따라서 초곡천 유역의 후기양식 특징이 나타난다. 용도는 주거지내부에서 주로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생활용기로 널리 사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표 20> 이인지구 유적 출토 발형토기 형태⁷⁵⁾

심발(주거지 47호, p. 316.)	천발(주거지 28호 p. 240.)
	

<표 21> 초곡천 유역 출토 발형토기의 형태

시기	전기	중기	후기	
형태				
유적	초곡리유적 주거지 2호 ⁷⁶⁾	이인지리 취락유적 주거지 5호 ⁷⁷⁾	남송리1유적 주거지 36호 ⁷⁸⁾	남송리1유적 주거지 35호 ⁷⁹⁾

75) 한빛문화재연구원, 2019, 앞의 보고서.

76) 영남문화재연구원, 2000, 앞의 보고서, p. 28.

77) 성림문화재연구원, 2012, 앞의 보고서, p. 61.

78)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11, 앞의 보고서, p. 228.

79) _____, 2011, 위의 보고서, p. 216.

② 적색마연토기 <표 22> 이인지구 유적 출토 적색마연토기의 형태⁸⁰⁾

대부분의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홍도라고 보편화되어 불리고 있고 일부 연구자들은 붉은간토기라고도 부른다.⁸¹⁾ 토기의 형태는 동최대경이 중하위에 있고, 구연은 약하게 외반하는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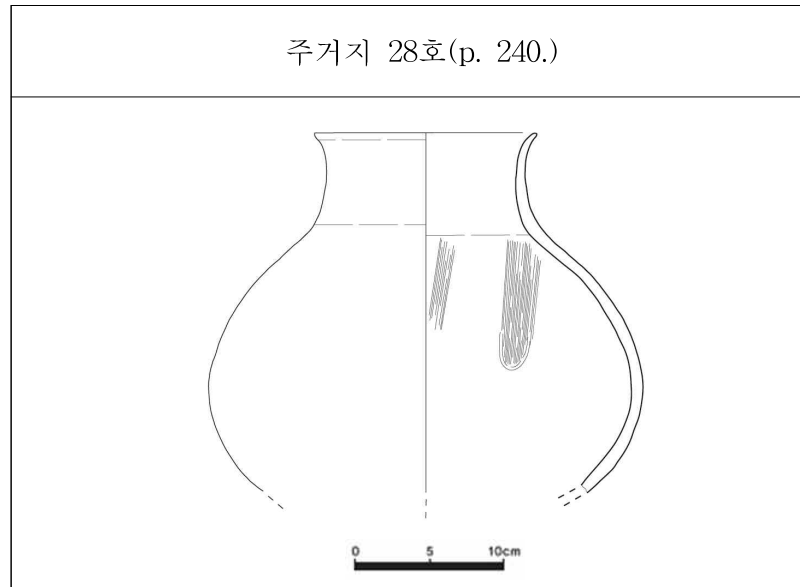
태토는 무문토기와는 다르게 고운점토를 사용하였고 기면은 마

연 후 소성하여 붉은색을 띤다⁸²⁾. 기능에 대해서는 제작기법이 무문토기와 달라 부장용이나 의례용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일상용기로 사용되었을 가능성 등에 대해서 언급되기도 한다.

형식분류에 있어서는 구경부형태에 따라 5가지로 분류된다⁸³⁾. 먼저 동체부와 경부의 경계가 명확하며 경부가 ‘<’형과 같이 급하게 외반하는 A식, 경부를 형성하면서 완만하게 외반하는 B식, 직립하다가 외반하는 C식, 직선적으로 내경하다가 외반하는 D식, 경부가 퇴화되어 ‘C’형으로 급하고 짧게 외반하는 E식으로 설정하였다. 저부는 말각평저와 원저로 분류된다.

시기는 후기 전반에 B·C식이 출현하고 후기 후반에는 E식의 유지와 함께 D식의 적색마연호가 출현한다.<표 23>

이인지구 유적에서는 주거지 28호(2점)와 44호(1점)에서 출토되었다. 주거지 28호에서 출토된 적색마연토기 2점은 동체의 동최대경을 동중위에 둔 횡타원



80) 한빛문화재연구원, 2019, 앞의 보고서, p. 2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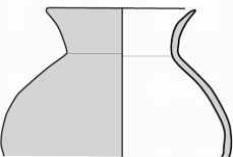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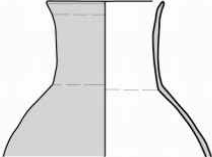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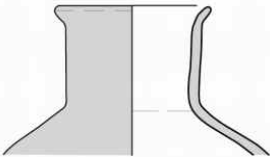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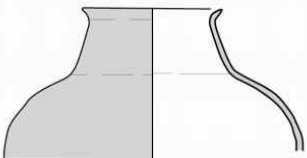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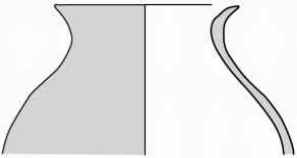
81) 기형이나 태토 또는 용도면에서 동일한 토기이지만 신석기시대 연구자들은 붉은간토기라 주로 불리고 있고 청동기시대에는 홍도, 적색마연토기 등으로 불리는데 이는 연자들마다 토기를 관찰하는 관점이 달라 여러 가지의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82) 토기의 성형이 완료된 후 표면에 산화철의 액체를 바르고 매끄러운 도구로 문질러 소성하기도 하는데 이때 산화철은 고온에서 붉은색으로 발색되며, 도구로 연마하는 과정을 통해 토기의 표면에는 입자가 고운 점토가 부상하여 광택이 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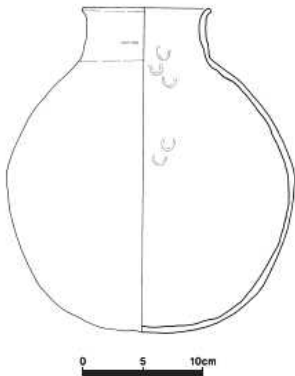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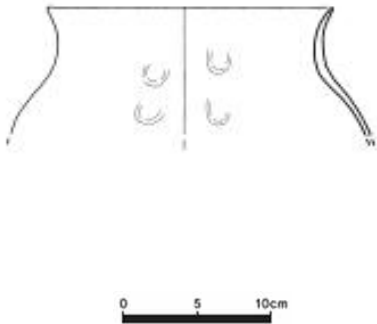
83) 이화영, 2008, 「청동기시대 적색마연호의 변천」, 전남대학교대학원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형이고, 경부는 약하게 내경하면서 구연부를 C자상으로 처리하였다. 44호에서 출토된 1점은 구연부만 일부 잔존하는데 형태는 약하게 외반하고 있다. 이화영의 분류안에 따르면 D, E 형에 해당된다.<표 24>

<표 23> 적색마연토기 구연부 분류안⁸⁴⁾

		
A : 경부 형성, 급하게 외반	B : 경부를 약간 형성하고 완만히 외반	C : 경부 형성, 직립하다가 외반
		
D : 경부형성, 내경하다가 외반	E : 경부 퇴화, 급하게 외반	

<표 24> 초곡천 유역 출토 적색마연토기의 형태

시기	중기	후기
형태		
유적	포항 성곡리 1,2유적 (주거지 2호) ⁸⁵⁾	포항 남송리1 유적 (주거지 35호) ⁸⁶⁾

84) 이화영, 2008, 앞의 논문, p. 37.

85)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11, 앞의 보고서, p. 165.

86) _____, 2011, 앞의 보고서, p. 199.

③ 두형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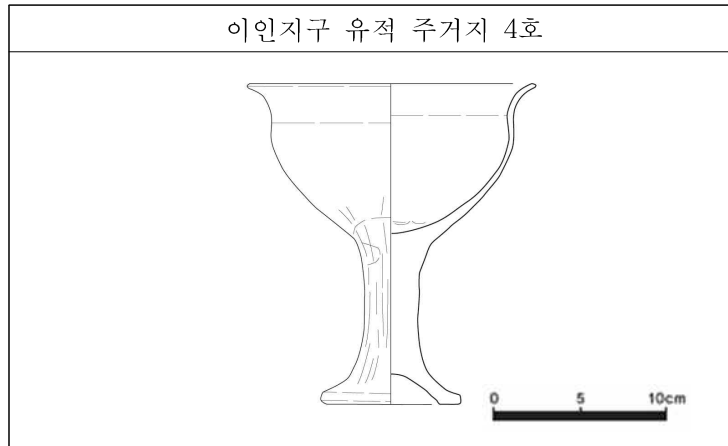
두형토기는 접시에 높은 굽(臺脚)이 달린 모양으로서 굽의 형태는 나팔형(喇叭形)·통형(筒形)·장고형(杖鼓形) 등이 있으며, 굽의 높이에 편차가 심하다. 이는 청동기시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여 초기 철기시대에 들어와 더욱 번성하는데, 중국 동북 지방과

연해주 지역 및 한반도 전역에 걸쳐 폭넓게 분포하고 있다. 한강 이남지역에서는 대체로 청동기시대 후기에 출현하여 삼각형 점토대토기 단계까지 지속되고 있다.⁸⁸⁾

용도에 있어서는 생활용기로서의 기능 뿐 아니라 소원성취 등 기원과 관련된 의례용기, 그리고 공헌용의 부장용으로서의 기능성 분화를 내포한다고 하였다. 또한 두형토기는 분묘별 피장자의 등급이나 신분을 반영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⁹⁰⁾. 이외 출토량은 출토유적의 제사의식의 빈도수나 점유기간 등과 관련된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파악하였다⁹¹⁾.

형식 분류에 있어서는 대

<표 25> 두형토기의 형태⁸⁷⁾



<표 26> 초곡천 유역 출토 두형토기의 형태

시기	후기
형태	
유적	포항 남송리 유적1 - 주거지 33호 ⁸⁹⁾

87) 한빛문화재연구원, 2019, 앞의 보고서.

88)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고고학사전, (<http://portal.nrich.go.kr/kor/>).

89)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11, 앞의 보고서, p. 1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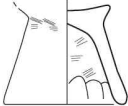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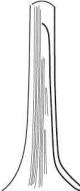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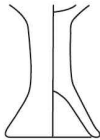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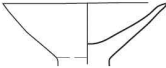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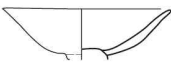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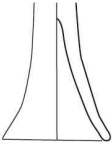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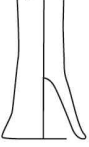
90) 강병학, 2002, 「한반도 무문굽다리토기 연구 -형식분류를 통한 편년 및 성격추론-」, 한양대학교대학원 문화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91) 徐吉德, 2006, 「원형점토대토기의 변천과정 연구 -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세종대학교대학원 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각을 공심형과 실심형으로 구분하고 내경, 플라스크, 八자 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배신은 단부외경과 단부외반으로 분류하고 있다⁹²⁾. 하지만 두형토기는 다른 유물들에 비해 변화상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명확한 변화과정을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부분 공반되는 유물을 통해 그 시기를 비교하는데 대부분의 유물은 초기철기 원형점토대, 삼각형점토대 단계인 분묘유적에서 많은 양의 두형토기가 출토되고 있고, 청동기시대에는 후기 주거지에서 일부 확인되나 그 수량은 많지 않다.

이인지구 유적에서는 주거지 4호 내부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표 25> 형태는 대각 위의 완은 단부외반하고 있고 대각은 실심으로 八자 형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유물은 초곡천 유역에서 포항 남송리1 유적33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대각이 八자형을 하고 있다. 이 외에 포항 삼정리 주거지 29호에서 출토된 고배형 토기가 홍도와 공반된다⁹³⁾.<표 26> 따라서 유물의 편년은 청동기시대 후기이다.

<표 27> 두형토기 분류 안⁹⁴⁾

	대각		배신	
	A(공심)	B(실심)	단부외경	단부외반
a가 (내경)				
a가 (플라스크)				
b (八자)				

92) 심수연, 2010, 「영남지역 두형토기 연구」, 영남대학교대학원 문화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93)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7, 『포항 삼정리 유적 I』.

94) 심수연, 2010, 위의 논문, p. 34.

④ 문양이 있는 토기⁹⁵⁾

이인지구 유적에서 보고된 무문토기 중 구연부가 잔존하고 문양이 있는 토기는 15점으로 빈도수는 많지 않다. 모두 발형토기 구연으로 문양의 형태는 크게 복합문과 단일문으로 나뉜다. 이 중 단일문은 공열문, 단사선문, 각목문이 확인되고, 복합문은 구순각목문+단사선문, 구순각목문+공열문이 확인되었다. 문양의 현황을 정리하면 <표 28>과 같다.

먼저 단일문 중 공열문은 구연부의 내면 또는 외면에 원형의 구멍을 뚫거나 압날한⁹⁶⁾ 흔적이 있는 토기를 말하는데 중기의 주거지에서 2점, 후기 주거지에서 5점이 출토되었다. 단사선문은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하여 구연부 또는 구연단 아래를 사선으로 선을 그은 형태이다. 이인지구 유적에서는 1, 2호 주거지에서 각각 1점씩 출토되었다. 구순각목문은 구순부에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누르거나 그어서 시문한 형태를 말하는데 47, 58호 주거지에서 각각 1점씩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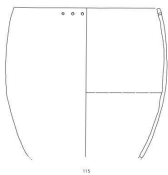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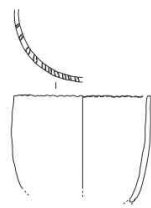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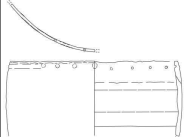
다음으로 복합문 중에서 구순각목문+단사선문은 구연단에 각목문을 불규칙하게 시문하고, 구연단 아래에는 단사선문이 사선으로 시문되어 있는데, 주거지 34호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 구순각목문+반공열문은 구연단에 각목문을 시문하고, 구연부 바로 아래에는 안에서 바깥쪽으로 시문한 공열문이 있다. 이인지구 유적에서는 34호 주거지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

초곡천 유역에서는 전기~후기 모두 비슷한 수량의 복합문과 단일문 토기가 출토되었다.

95) 무문토기에서 문양이 새겨진 토기는 중요한 유물이다. 따라서 조각난 유물이라도 문양이 있다면 형식 분류 하여 시기를 반영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96) 구멍이 뚫리지 않고 구연의 내면에서 안쪽 또는 외면에서 바깥쪽으로 압날하는 수법으로 돌류문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문양을 따로 나누지 않고 하나의 문양으로 공열문으로 분류하였다.

<표 28> 이인지구 유적 출토 토기 문양별 분류표⁹⁷⁾

	단일문			복합문	
	단사선	공열	구순 각목	구순각목 공열	구순각목 단사선
유구 명	주거지 2호	주거지 2호	주거지 58호	주거지 34호	주거지 9호
형태					

(2) 석기

이인지구 유적에서 출토된 석기류는 석촉 15점, 석검 6점, 반월형석도 16점, 석부 34점이 출토되었다. 한편 출토유물 중 미완석 석기나 방추차 등 생업과 관련이 없는 유물들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① 석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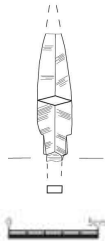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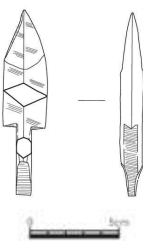
석촉은 무경식과 유경식으로 나뉘는데 일반적으로 조·전기에는 무경식, 그리고 유경식 중 이단경식은 전기, 일단경식은 중기 또는 후기에 많은 수량이 출토된다⁹⁸⁾. 이인지구 유적에서 석촉은 이단경식의 유경촉(A형)과 일단경식의 유경촉(B형)이 출토되었다.<표 29>

97) 한빛문화재연구원, 2019, 앞의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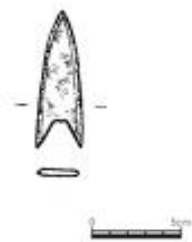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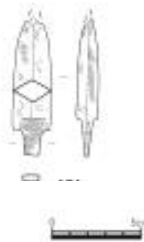
98) 이청규, 손준호, 2014, 『청동기시대의 고고학5 -도구론-』 서울: 서경문화사, p. 67.

이단경식의 A형은 축두 단면이 능형, 경부 단면은 능형과 장방형이다. 축두에서 시작된 등날은 축두 중앙을 지나 경부 상단까지 내려오며, 사방향, 횡방향으로 전체 면을 마연하였다. 일단경식인 B형은 축두 단면 능형, 경부 단면 육각형을 하고 축두에서 시작된 등날은 축두 중앙을 지나 경부 상단까지 내려왔다. 유물의 형태로 볼 때 초곡천 유역에서 대련리 취락유적과 남송리 1유적에서 중기~후기의 형태를 가진 석촉과 유사한 형태를 하고 있다.<표 30>

<표 29> 이인지구 유적 출토 석촉 분류⁹⁹⁾

유구	A형	B형
형태	 16호(p. 183.)	 29(p. 244.)

<표 30> 초곡천 유역 출토 석촉의 형태

시기	전기	중기	후기
형태			
유적	초곡리 유적 주거지 2호 ¹⁰⁰⁾	대련리 취락유적 주거지 11호 ¹⁰¹⁾	남송리1 유적 주거지 34호 ¹⁰²⁾

99) 한빛문화재연구원, 2019, 앞의 보고서.

100) 영남문화재연구원, 2000, 앞의 보고서, p.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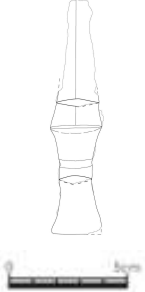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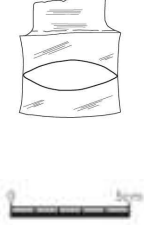
101) 성림문화재연구원, 2009, 앞의 보고서, p. 91.

102)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11, 앞의 보고서, p. 2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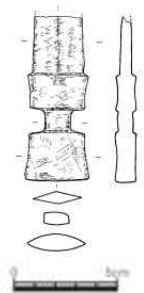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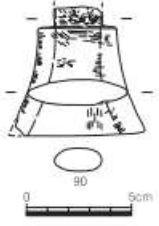
②석검

석검의 분류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속성은 기부(基部)의 형태인데 자루(子口)의 유무를 기준으로 有莖式과 有柄式으로 구분하며, 유병식(有柄式)은 다시 병부(柄部)의 형태에 따라 2단병식과 1단병식으로 나눈다. 유경식(有莖式)은 경부(莖部)의 길이에 의하여 단경식과 장경식으로 분류가 된다¹⁰³⁾. 이인지구 유적에서 석검은 총 6점이 출토되었다. 이 중 2단병식 석검은 주거지 19, 21, 28, 35, 48호 등에서 5점이 수습되고, 1단병식 석검은 주거지 29호에서만 1점이 수습된다.

<표 31> 이인지구 유적 출토 석검 분류¹⁰⁴⁾

유구	유병식	
	주거지 19호(p. 205.)	주거지 21호(p. 213.)
형태		

<표 32> 초곡천 유역 출토 석검의 형태

시기	전기	중기	후기
형태			
유적	초곡리 유적 주거지 2호 ¹⁰⁵⁾	이인지리 취락유적 주거지 8호 ¹⁰⁶⁾	초곡리 취락유적 주거지 C-18호 ¹⁰⁷⁾

103) 손준호, 2006, 「한반도 청동기시대 마제석기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문화재학협동과정 고고학전공 박사학위논문.

104) 한빛문화재연구원, 2019, 앞의 보고서.

105) 영남문화재연구원, 2000, 앞의 보고서, p. 30.

106) 성림문화재연구원, 2012, 앞의 보고서, p. 70.

107) 영남문화재연구원, 2014, 앞의 보고서, p. 73.

③석부

석부는 합인석부를 비롯하여 편평편인, 환상, 주상편인, 일반석부 등으로 구분된다. 합인석부는 벌채용인 반면에 편평편인석부와 주상편인석부는 유구석부와 유단석부와 함께 목재 가공용이나 굴지용으로 사용되지만, 금번 출토품 중에 유구석부와 유단석부가 출토되지 않는 것을 보면 목재 가공용일 가능성이 많다. 이것을 구역별, 출토지별로 정리하면 <표 34>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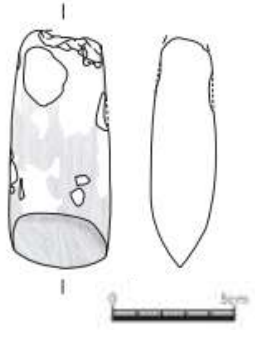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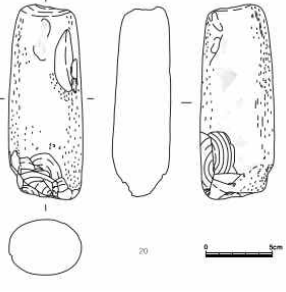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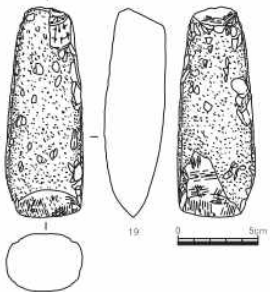
합인석부는 9점이 수습되었다. 형태는 인부가 공부보다 폭이 넓은 평면 사다리형을 하고, 양쪽 인부를 연마하여서 날을 날카롭게 세웠으며 신부 앞, 뒤면과 일부 측면에 마연을 하고 있다. 크기는 길이 7.0-14.8cm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나 11cm 이상이 주를 이룬다. 무게도 40-801g까지 다양한데 길이가 짧으면서도 무거운 것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 합인석부는 단순한 벌채용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오히려 주거지 내의 소형 합인석부가 나무 가공용인 자귀와 같은 용도로 사용했을 수도 있을 듯하다. 합인석부를 금번 이인지구 주거지와 다른 유적에서 출토된 것과 비교해 보면, 크기와 무게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인 형태나 인부모양은 다르지 않다. 따라서 시기나 지역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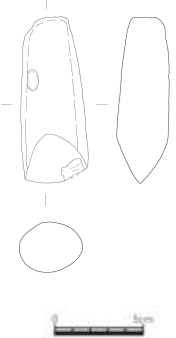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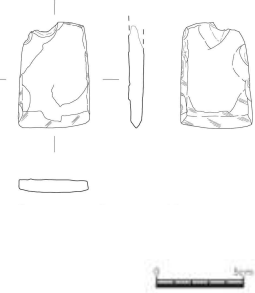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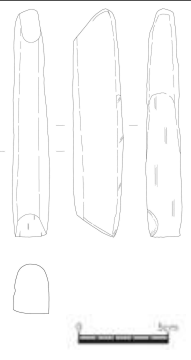
목재 가공용인 편평 편인석부는 모두 20점이 수습되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한쪽 선단에 편인을 두고 종단면은 사다리형을 한다.

길이가 5.2-15cm 중 5-9cm가 주를 이루고 무게도 27-258g 중 50-100g이 주축을 이룬다. 편평편인석부는 대팻날 형태로 목재 가공용 도구로 연구가 되어있다. 주상편인석부는 10점이 수습되었다. 단면형태가 장방형 또는 제형으로 두께가 두껍고, 끌과 같은 형태를 하고 있다. 크기는 전장 15-18cm가 주를 이루며, 무게는 333-685g으로 석질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형태나 모양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표 33> 초곡천 유역 출토 석부의 형태

시기	전기	중기	후기
형태			
유적	성곡리 유적 주거지 27호 ¹⁰⁸⁾	이인리 취락유적 주거지 2호 ¹⁰⁹⁾	초곡리 취락유적 주거지 C-4호 ¹¹⁰⁾

<표 34 > 이인지구 유적 출토 석부 분류¹¹¹⁾

	합인석부(원형)	편인석부(편평)	주상편인석부(유단)
유구명	1호, 4호, 7호, 17호, 19호, 40호, 46호	1호, 2호, 4호, 7호, , 17호, 20호, 27호, 34호, 36호, 44호, 46호, 53호, 63호	2호, 4호, 19호, 25호, 44호, 48호, 65호
형태	I 형식	II 형식	III 형식
	 7호	 7호	 25호

108) 한빛문화재연구원, 2012, 앞의 보고서, p. 81.

109) 성림문화재연구원, 2012, 앞의 보고서, p. 50.

110) 영남문화재연구원, 2014, 앞의 보고서, p. 40.

111) 한빛문화재연구원, 2019, 앞의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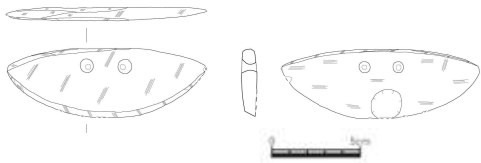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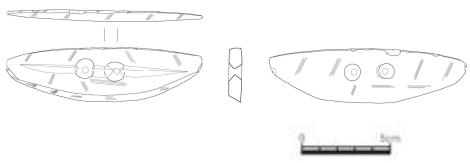
④ 반월형 석도

반월형석도는 총 15점이 수습되었다. 곡식의 이삭을 따는 대표적인 용도로 알려져 있다. 형태는 모두가 어형과 장주형이며, 구멍을 뚫은 것과 구멍을 뚫지 않은 것으로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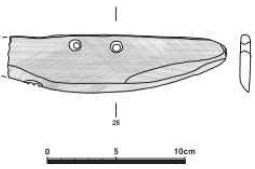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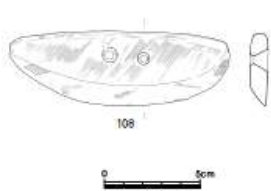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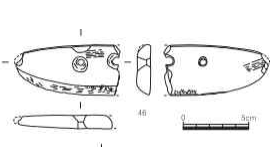
A형은 모두 9점으로 평면형태의 배부와 인부가 완만한 곡율을 한 장주형이고, 인부는 외날을 한다. 단면형태는 부정형이며 배부에서 약 1.0cm 아래에 구멍 2개를 양쪽에서 뚫었다. 투공 사이의 간격은 1.8cm 정도이고 전면을 정마하였다. B형은 모두 4점이 수습되었는데 역시 평면은 장주형이고 인부는 외날이다. 배부아래에 구멍 2개를 뚫고 구멍의 중앙에 홈을 새겼다. C형은 2점이 수습되었으며, 평면 장주형이나 구멍은 뚫지 않았다. 인부는 외날이다.

연구에 의하면, 수확구인 반월형 석도는 평면형태인 등과 날부분으로 출토지역을 구분한다. 장방형과 제형은 直背直刃形으로 두만강유역과 북한지역에서 확인되고, 櫛形은 弧背直刃으로 서북한지역의 압록강, 청천강유역에서 출토되며, 魚形은 弧背弧刃으로 단면형태는 대부분 편인이다. 舟形은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영남지역에서 가장 많이 출토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참고하면, 금번에 출토된 장주형의 반월형석도는 영남지역 후기의 대표적인 유물로 판단된다.

<표 35> 이인지구 유적 출토 반월형석도 형식분류¹¹²⁾

유구	1호, 2호, 17호, 24호, 28호, 44호, 49호	1호, 17호, 40호
분류	어형(漁形), A형	장주형(長舟形), B형
형태		

<표 36> 초곡천 유역 출토 반월형석도의 형태

시기	전기	중기	후기
형태			
유적	성곡리유적 주거지 13호 ¹¹³⁾	대련리 취락유적 주거지 5호 ¹¹⁴⁾	초곡리 취락유적 주거지 c-7호 ¹¹⁵⁾

112) 한빛문화재연구원, 2019, 앞의 보고서.

113) _____, 2012, 앞의 보고서, p. 55.

114) 성림문화재연구원, 2009, 앞의 보고서, p. 75.

115) 영남문화재연구원, 2014, 앞의 보고서, p. 54.

<표 37 > 생업관련 유구별 출토유물 알림표

유구	수확구	수렵·무기			농공구			어구	비고
	반월형석도	석 촉	석 검	석 창	합 인 석 부	편 평 편 인 석 부	주 상 편 인 석 부	어망추	
1	2				1	1		8	
2	1	1				1	2	12	
3								1	
4		2			1	1	1	7	
7					2	2			
12								1	
16		1							
17	5	3			1	1			
18		1							
19			1		1		2		
20				1		1		1	
21			1					1	
23								3	
24	2							7	
25							1	2	
27						1		3	
28	1		1					2	
29		1	1					1	
31								1	
32								1	
34						2		8	
35		1	1	1				11	
36	1						1	3	
37								12	
39								3	
40	1				1			4	
43								1	
44	2	2				1	1	2	
46					1	2		3	
48		2					2	4	
49	1		1						
51								1	
52								26	
53						2		3	
62								5	
63		1				1			
계	16	15	6	2	8	16	10	137	

2. 유적의 성격

지금까지 이인지구 유적에 대한 주거지의 형태와 유물의 분석을 통한 근거로 유적의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편년은 C-14 절대연대 분석자료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초곡천 유역에서 조사된 유적의 편년안에 따라 주거지 형태 및 유물을 통해 주거지간 편년을 나누었다. 그 결과 중기의 요소들이 나타나는 주거지는 18동이 확인되었고 후기로 편년할 수 있는 주거지는 30동이 확인되었다. 이외 17동의 주거지는 평면형태를 알 수 없거나, 내부에 유물이 출토되지 않아 편년을 구분할 수 없었다.

<표 38> 유구 및 유물 공반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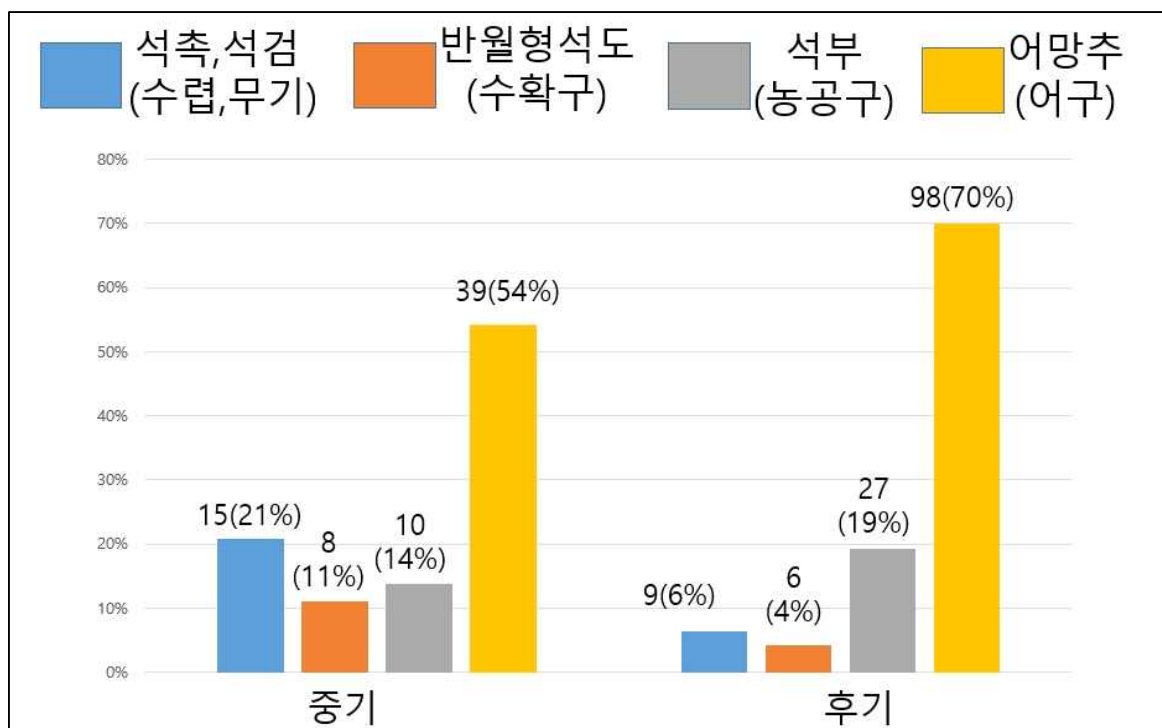
시기	유구	평면형태	공반유물		비고
			토기류	석기류	
중기	1, 4, 9, 14, 17, 21, 23, 28, 29, 31, 43, 48, 56, 64	장방형	구순각목공열문, 이중구연단사선, 단사선문, 구순각목문, 공열문	이단병식석검, 일단경식석촉, 주상편인석부, 어형석도	
후기	2, 3, 5, 12, 16, 18, 19, 20, 24, 25, 27, 32, 33, 34, 36, 37, 39, 40, 44, 46, 49, 51, 52, 53, 58, 61, 62, 63,	방형 (외부배수구)	구순각목공열문, 구순각목이중구연단사선문, 이중구연단사선문, 단사선문, 공열문, 적색마연토기, 두형토기, 파수토기	이단병식석검, 일단경식석촉, 변형주상편인석부, 주형석도	

유물을 통한 생업은 유물 기종에 따라 수확구, 무기·수렵구, 어구, 농공구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표 39>을 참고하면 중기에는 수렵·무기의 비율이 21%, 수확구 11%, 농공구 10%, 어망추 54%로 높게 나타난다. 후기에는 농공구의 비율이 19%, 수렵·무기의 비율이 6%, 수확구 4%, 어망추의 비율이 70%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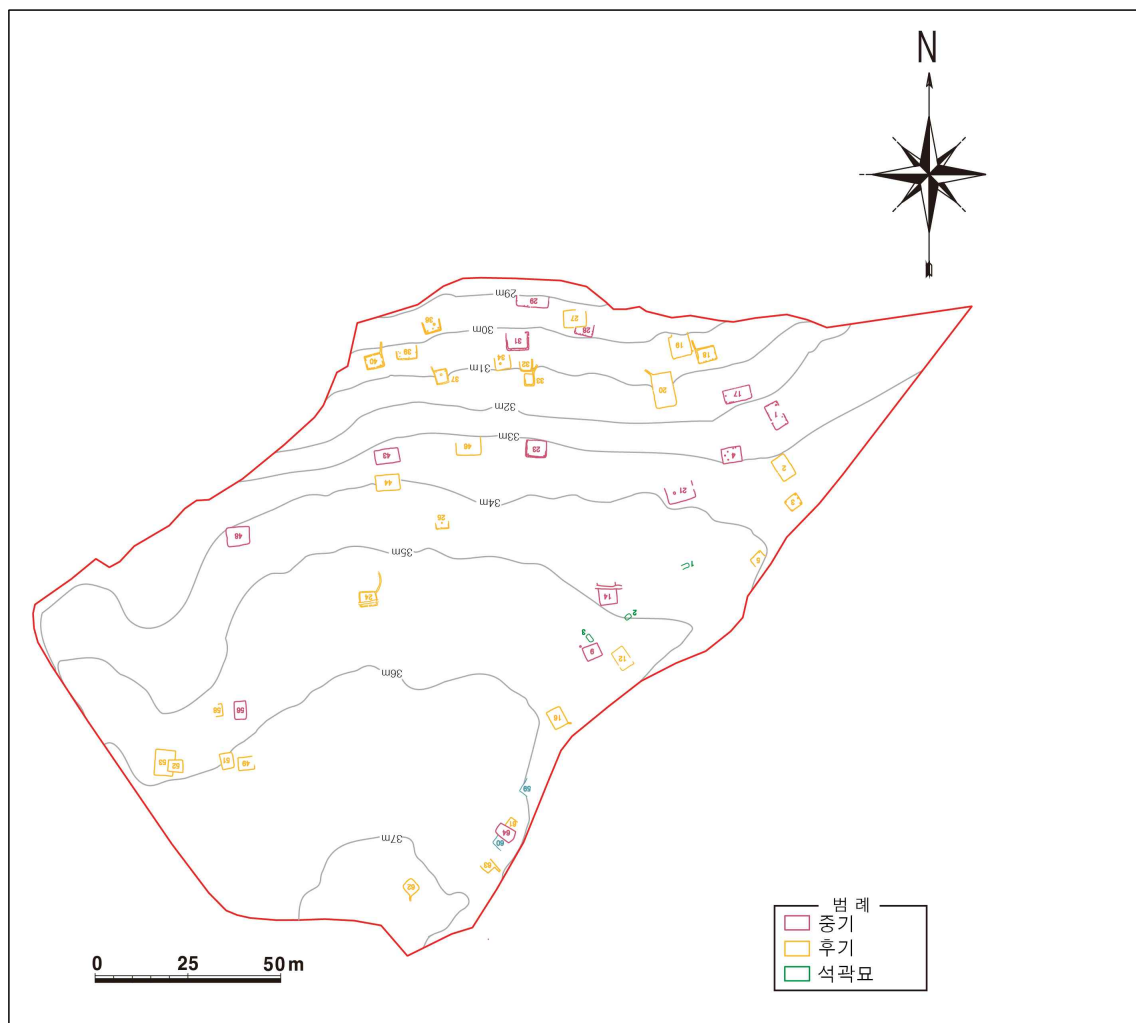
전체적으로 이러한 출토유물의 비율은 초곡천 유역의 취락들과 비교했을 때 초곡천 유역에서는 중기보다 후기에 수렵·무기의 빈도수가 높았다면, 이인지구 유적은 중기에 수렵·무기의 빈도수가 높다. 또한 어망추의 빈도수에 있어서도 초곡천 유역과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

시기별 주거지에서 출토된 유물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주거지에서 농경, 수렵과 관련된 유물이 1점에서 많게는 2~3점이 출토되고 함께 어망추가 공반되는데, 그 빈도수를 살펴보면 중기에는 15동의 주거지 중 10동(67%)의 주거지에서 39개의 어망추가 출토되었고, 후기에는 31기의 주거지 중 19기(61%)의 주거지에서 98개의 어망추가 출토되었다. 출토지를 분석했을 때 어망추가 주거지에서 평균적으로 1~3점, 많게는 10점에서 26점까지 주거지 각각에서 출토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로의 특성상 낚시와는 달리 그물을 사용했다면 사용되었던 어망추의 양이 <표 39> 이인지구 유적 출토유물 빈도수



다수가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러 주거지에서 소량의 어망추가 출토된다는 점은 어로가 진행되는 시기에 맞추어 협업을 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수렵 또는 농경은 주거지당 개별로 생업이 가능했다면 어로는 여러 주거지가 협동해야지만 생업활동이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중기, 후기 모두 생업에서 농경, 채집, 수렵이 상시 활동할 수 있는 주 생업이었다면 어로는 일정한 날, 일정한 기간동안 협업으로 인한 생업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도면 15. 이인지구 유적 시기별 주거지 배치형태(한빛문화재연구원, 2019, 수정 후 인용)

IV. 이인지구 유적 취락의 분석

1. 취락의 특징

청동기시대의 취락 혹은 마을은 주거지뿐만 아니라 무덤이나 경작지를 포함하여, 의례나 저장을 위한 공간이 추가되기도 하는 등 당시의 생활에 관련된 전반적인 기능의 복합체라 할 수 있다¹¹⁶⁾. 이러한 마을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복잡해지는데, 이른 시기의 대형 주거지에서 늦은 시기의 소형 주거지로 바뀌면서 한 주거지 내에서 생활하는 가족의 규모에도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기능 또는 생활형태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까지 선학들의 연구에서도 보고서 고찰¹¹⁷⁾, 여러 논문에서 이러한 구성요소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유적들이 대부분 능선 또는 충적지 일부만 조사되어 완벽한 구성을 밝혀 내지는 못하였다¹¹⁸⁾.

이러한 점에서 이인지구 유적은 현재까지 초곡천 유역에서 능선 전체가 발굴되어 주변지형 및 입지와 연관하여 분석할 수 있는 유일한 유적으로 마을이라 불릴 수 있는 구성요소들을 가진 유적이다. 이러한 유형의 유적은 초곡천 유역에서도 확인되지 않으며, 인근 포항지역 내에서도 이인지구 유적과 비슷한 입지와 규모를 가지고 있는 포항 호동 유적¹¹⁹⁾, 포항 원동 유적¹²⁰⁾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형태이다.

이인지구에서 나타나는 마을의 요소 중 거시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취락의 입지 와 지형 그리고 취락 내 공간분리가 나타난다. 먼저 입지에서는 주위 충적지와 동떨어진 구릉 사면에 입지하여 조망과 방어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인근의 충적지와 산지는 생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변지형은 북쪽과 남쪽에 학림천과 초곡천이라는 하천을 사이에 두고 있어 환호의 역할을 대신하였고, 취락 내 급한 경사면은 2차적인 방어의 기능을 하기에 최적에 조건을 갖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환경을 볼 때 생

116) 국립중앙박물관, 2010, 『청동기시대 마을풍경』, 서울: 그래픽네트, p. 89.

117) 영남문화재연구원, 2014, 앞의 보고서, p. 240.

118) 이청규, 손준호, 2009, 앞의 책, pp. 147-194.

박영구, 2015, 앞의 논문, pp. 115-145.

배군열, 2015, 앞의 논문, pp. 88-95.

119)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5, 『포항 호동유적 -1지구-』.

_____, 2008, 『포항 호동유적 II』.

120)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3, 『포항 원동 3지구 유적』.

_____, 2008, 『포항 원동 2지구 유적』.

업과 방어를 고려해 치밀한 계획을 세워 취락의 입지와 지형을 선택한 것으로 생각된다.

유적 내 구성은 주거, 의례, 광장, 출입구가 확인된다. 주거는 구릉의 사면을 돌아가며 주거지가 입지하고, 취락 내 한쪽으로는 석관묘 공간으로 의례공간을 분리하였다. 그리고 유적지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조망이 좋고 지형이 완만한 중앙부는 공지로 남겨 광장의 기능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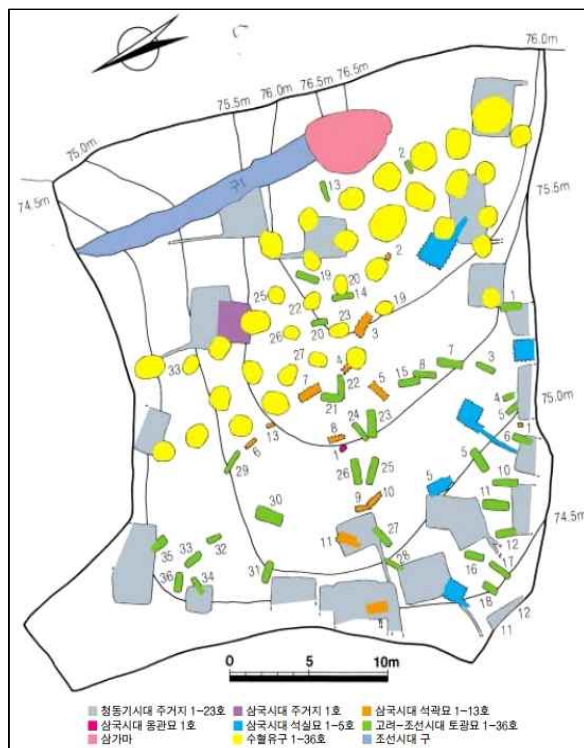


도면 16. 이인지구 취락 형태 모식도(제작 : 콘텐츠카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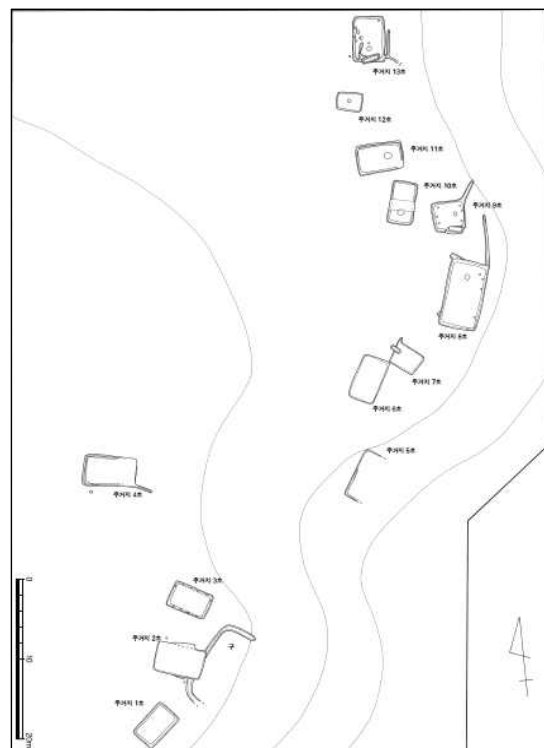
취락의 출입구는 남서쪽 산지와 접한 곳으로 나머지 세면은 경사가 급한 사면으로 사람이 출입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전체적인 취락의 구성을 살펴볼 때 남서쪽 구릉으로 입구가 만들어져 있고 입구를 지나 마을에 들어서면 넓은 광장이 나타난다. 광장의 남동편은 의례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마을의 집들은 사면을 돌아가며 산을 등지고 하천을 바라보는 배산임수지형에 주거지들이 입지하고 있다. 또한 이인지구 유적은 생산, 방어, 의례 등 여러 기능을 수행했던 마을로 확인되었고, 방어시설로는 하천과 자연경

사면을 이용하여 환호시설을 대체한 구성을 갖추고 있다.

대개 이러한 유형의 취락은 중심취락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 이유로는 주거지 규모에 따라 소촌의 경우 10여동 내외이며, 중심취락 촌의 경우 20~30여동으로 구분된다¹²¹⁾. 또한 중심마을의 요소로는 주변의 다른 마을보다 더 많은 기능을 수행하면서 중심역할을 한 마을을 말하는데, 이러한 중심마을이 존재는 마을 내 주거지의 수가 많거나 분배, 방어, 의례 등 여러 기능을 수행했던 마을유적을 통해 확인된다. 또 환호시설이 확인되는 등 시설투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진 마을 유적이면서 주변의 다른 유적 보다 주거지의 수도 많다면 중심적 역할을 했던 중심마을로 보아도 큰 무리가 없다¹²²⁾. 이러한 관점에서 이인지구 유적은 초곡천 살펴보고 중심마을이라 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장에서는 각각의 구성요소에서 세부적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도면 17. 호동유적Ⅱ 배치도



도면 18. 원동3지구유적 배치도

121) 한국고고학회, 2002, 『한국농경문화의 형성』 서울: 학연문화사, p. 117.

122) 김권구, 2005, 『청동기시대 영남지역의 농경사회』 서울: 학연문화사, pp. 176-177.

2. 취락의 구성

1) 입지

입지는 구릉형, 평지형, 해안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구릉형은 산지형으로도 세분화 되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적에서는 구릉형과 산지형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¹²³⁾. 영남지역의 경우 대체로 청동기 시대 전기에는 저지성 주거지가 주류를 이루고 중기에 이르러 구릉성 주거지의 사례가 다수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후기에도 지속된다¹²⁴⁾.

이인지구 유적의 경우 입지적으로 구릉형에 해당된다. 주변으로는 남동쪽으로 너비 25m 되는 초곡천이 남-북으로 곡류하고 있고, 북쪽으로는 지천인 너비 18m의 학림천이 동-서로 흐르고 있다. 이 하천들 사이 구릉지에 이인지구 유적이 입지하고 있다.

해발은 29~37m 내외로 그리 높지 않은 지형을 하고 있고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갈수록 점점 낮은 지형을 하고 있다. 또한 이인지구 유적의 남서쪽은 해발 250m의 나지막한 산지로 형성되어 있다¹²⁵⁾. 유적의 북동쪽으로는 충적지가 넓게 펼쳐져 있다. 이러한 입지형태를 살펴보면 생업과 연관을 지을 수가 있다. 먼저 초곡천과 학림천을 끼고 유적이 조성된 것은 어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고, 북동쪽의 충적지는 농경 및 채집과 관련이 있었을 것이다. 남서쪽에 위치한 산지에서는 수렵 또는 가옥을 지을 수 있는 목재들을 수급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인지구 유적은 농경, 어로, 수렵의 생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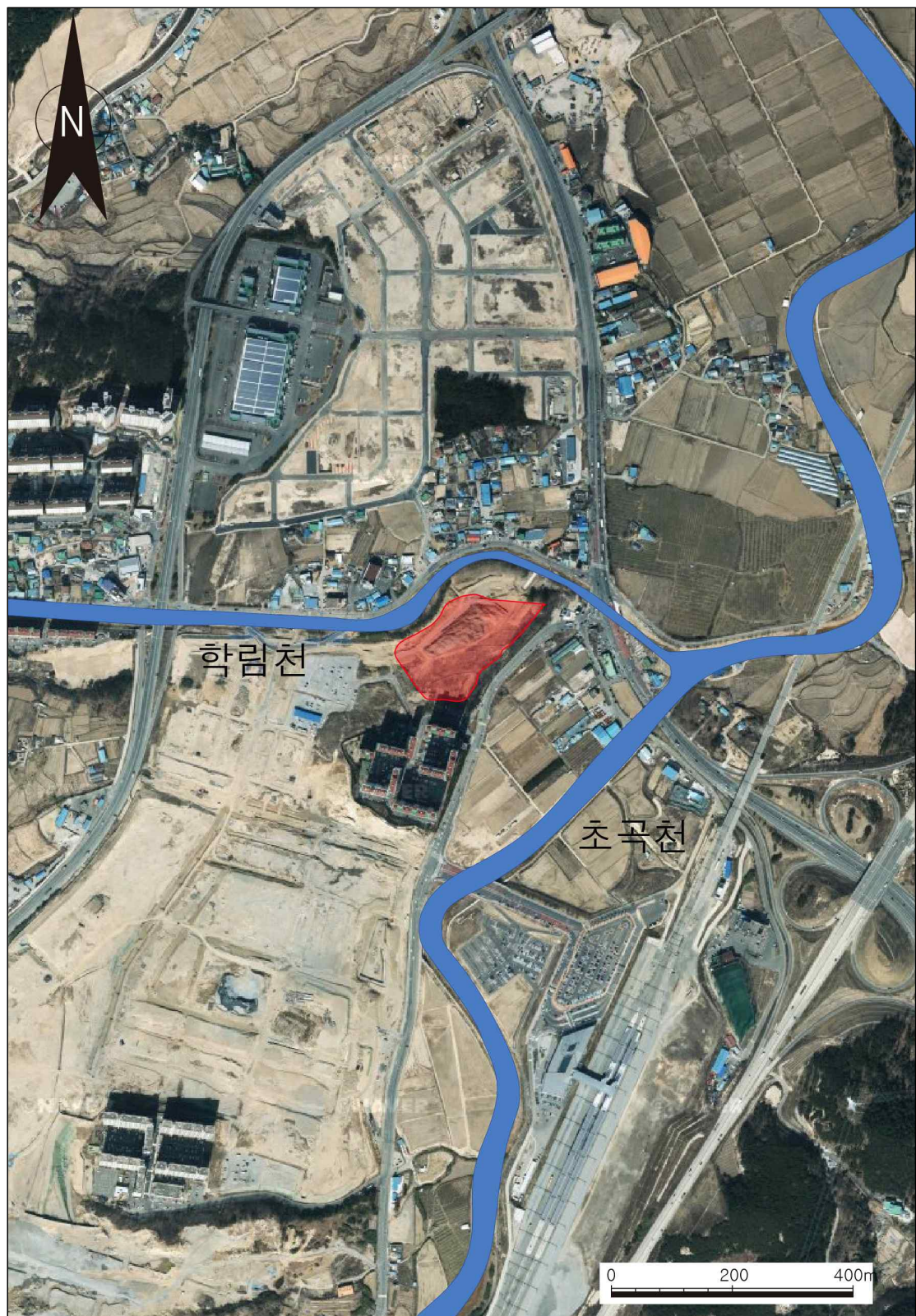
2) 지형

입지 선택에서 지형은 방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방어는 취락을 존폐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청동기시대 전기에는 하천과 인접한 충적지에서 중기부터는 구릉으로 취락이 이동된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하천의 범람으로 인한 홍수, 또는 동물습격, 전쟁 방어 등에 있어 지형적인 불리함을 극복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이동으로 인해 충적지에서 생활하던 생업의 편리함을 버렸다는 것은 그만큼 취

123) 김권구, 공민규, 2014, 『청동기시대의 고고학 3 취락』 서울: 서경문화사, pp. 18-19.

124) 김권구, 2005, 앞의 책, p. 109.

125) 불과 3년전만 하더라도 이인지구 유적의 남서쪽은 산지였으나 현재는 도시개발로 인해 모두 유실되고 구획된 토지가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위성지도 상에는 산지가 나타나지 않는다.



도면 19. 이인지구 유적 및 주변지형

락에 방어적인 요소가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생각하게 해주는 점이라 하겠다.

방어의 시설로는 대표적인 예로 환호가 있다. 환호에 대해서 주로 적의 공격으로부터 방어를 하기 위한 기능을 가졌다는 견해, 뱀이나 야생동물로부터 마을을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라는 견해, 환호가 둘러싼 마을을 그 외부와 구분하는 심리적·상징적 경계선이라는 견해 등이 있다¹²⁶⁾. 이외 공동체가 지닌 의식의 직접적인 표현으로 간주하기도 한다¹²⁷⁾. 따라서 환호는 이러한 여러 기능을 모두 수행했다고 여겨지며 연구자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러한 기능 중 일부만 수행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현재까지 보고된 환호취락 유적으로는 울산 검단리유적¹²⁸⁾, 천상리유적¹²⁹⁾, 방기리유적¹³⁰⁾이 있고, 대구 동천동 취락유적¹³¹⁾, 진주 이곡리 선사유적¹³²⁾이 있다. 이 유적들의 시기는 청동기시대 중기와 후기 유적들로 입지는 모두 조망에 유리한 구릉에 입지하고 있고, 구릉 주위에는 충적지와 강이 흐르고 있어 생업에 유리한 입지를 하고 있다. 환호의 형태는 사면을 굴착하여 주거지 전체를 두르거나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일부만 굴착한 형태가 나타난다.

이인지구 유적은 구릉의 남쪽은 남서쪽에서 뻗어 내려오는 지맥의 말단부로 산악지로 형성되어 있다. 북쪽은 학림천과 접하고 동쪽으로는 비교적 가까운 곳에 초곡천이 흐르고 있는데 초곡천과 이인지구 유적 사이에는 충적지가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지형을 볼 때 유적 내에 인위적인 방어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지만 북쪽으로는 학림천과 남쪽으로는 초곡천을 끼고 있어 환호의 기능으로 1차적인 자연방어 취락이 형성되고, 충적지와 하천과 접한 곳은 급경사면을 하고있어 2차적인 방어취락이 만들어 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방어취락의 구조는 지금까지 발굴조사 된 타 유적들과 비교했을 때 인위적인 시설이 아닌 자연지형을 이용해 방어시설을 구성하였다.

126) 국립문화재연구소, 2004, 『한국고고학전문사전-청동기시대 편-』 서울: 학연문화사, p. 591.

127) 이성주, 2007, 『청동기·철기시대 사회변동론』 서울: 학연문화사, p. 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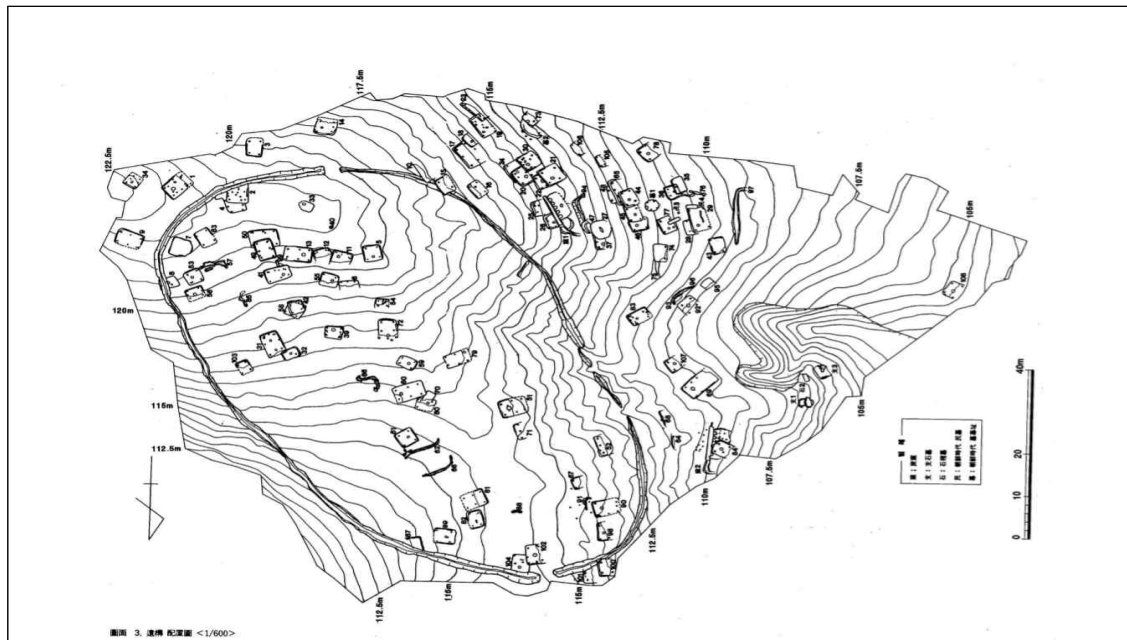
128) 부산대학교박물관, 1995, 『울산 검단리 마을유적』.

129) 영남문화재연구원, 2002, 『울산 천상리 취락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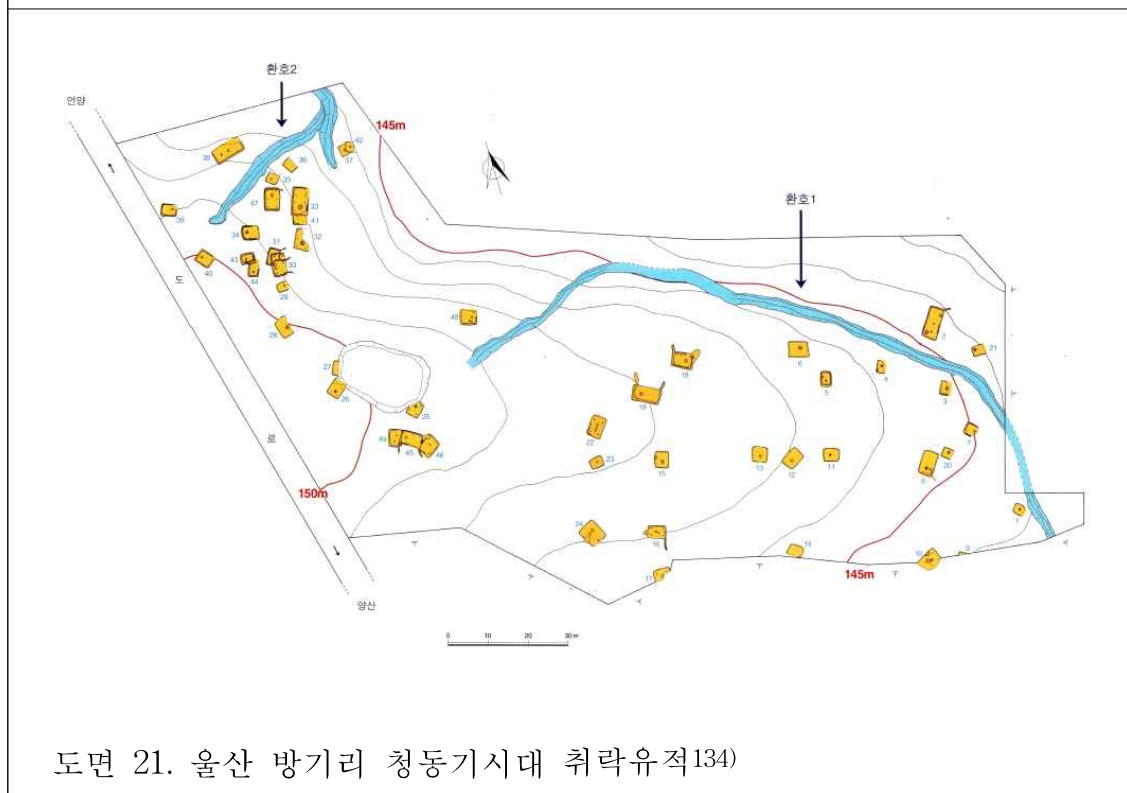
130) 창원대학교박물관, 2003, 『울산 방기리 청동기시대 취락』.

131) 영남문화재연구원, 2002, 『대구 동천동 취락유적』.

132)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07, 『진주 이곡리 선사유적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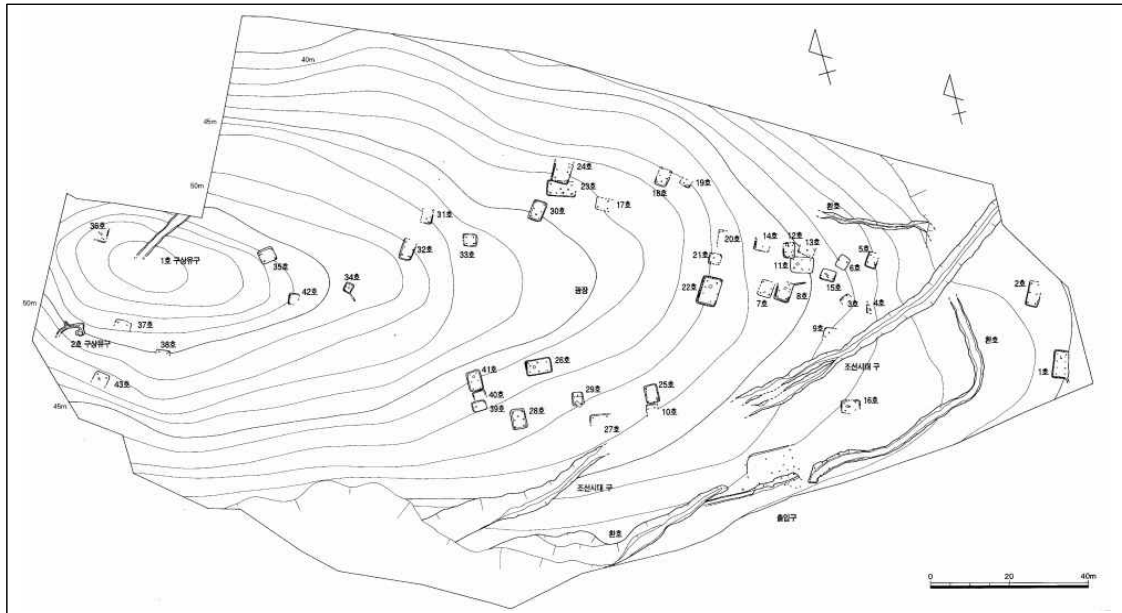
도면 20. 울산 검단리 환호유적¹³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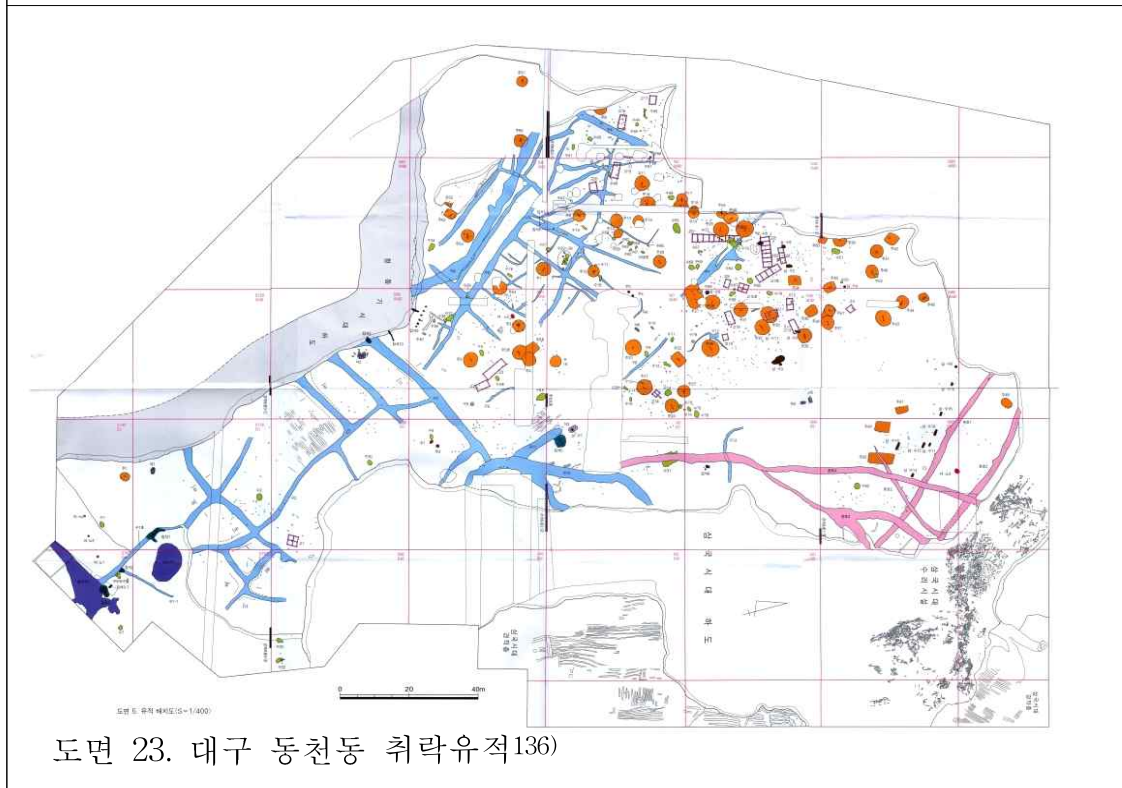
도면 21. 울산 방기리 청동기시대 취락유적¹³⁴⁾

133) 부산대학교박물관, 1995, 앞의 보고서, p. 9.

134) 창원대학교박물관, 2003, 앞의 보고서, p. 5.



도면 22. 울산 천상리 취락유적¹³⁵⁾



도면 23. 대구 동천동 취락유적¹³⁶⁾

135) 영남문화재연구원, 2002, 앞의 보고서, p. 27.

136) _____, 2002, 위의 보고서, p. 1.

3) 주거공간

주거는 인간생활의 보편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주거가 모여 정형성을 가지고 배치되는 것이 주거공간이라 할 수 있다¹³⁷⁾. 초곡천 유역에서 확인되는 취락의 주거배치 양상을 살펴보면 능선을 따라 열상으로 배치되거나 구릉 말단부에 집중되어 있거나 3~4동씩 군집을 이루는 경우가 있다¹³⁸⁾.

이인지구 유적에서 확인된 주거공간은 구릉의 평탄면을 제외한 사면을 중심으로 주거지가 조성되어 있다. 주거지의 배치양상은 사면을 따라 환형의 배치를 하고 있다. 장축은 등고와 평행하나 일부 주거지에서 직교하는 주거지도 있다.

주거지의 전체배치 양상을 살펴보면 서쪽 구릉을 제외한 남-북-동쪽 구릉의 해발 29~35m의 사면에 주거지가 분포하고 있다. 주거지의 수량은 중앙을 기준으로 남쪽 구릉에 34기, 북쪽 구릉에 6기, 동쪽 구릉에 10기, 서쪽 구릉에 15기가 조성되어 있다. 능선의 중앙부에는 비교적 경사면이 완만하거나 평탄함에도 불구하고 주거지가 조성되어 있지 않다. 주거지의 시기별 배치를 살펴보면 중기의 속성인 장방형은 14동이 확인된다. 남사면에서 대부분 분포하고 있고 북서사면과 동사면에서는 약 4기 정도만 확인된다. 장축은 20호를 제외하고 모두 등고와 평행하게 배치되어 있다. 외부배수구는 20, 40호에서만 확인되는데 방형에서 나타나는 빈도보다 확연하게 줄어들었다. 후기의 속성이 강한 방형은 북서사면, 남사면, 동사면에서 등고와 직교하게 31동이 입지하고 있다. 이 중 외부배수구가 확인되는 주거지 24, 33, 37, 62호의 경우 등고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배수구가 만들어져 있다. 이 배수구는 아마 시기적인 속성을 반영하기 보다는 구조적인 문제로 내부에 우수나 습기가 상대적으로 많이 유입될 경우 주거지 외부로 배출하는 기능을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유적 내 분포하는 주거지 수에 따라 규모를 분류한 연구를 참고하면 소촌은 10동 내외, 중심 취락인 촌의 경우에는 20~30동, 많게는 60동 이상이 주거지 집단을 이루고 있다¹³⁹⁾. 이러한 예로 주거 규모를 분류한다면 때 이인지구 유적은 중기와 후기 모두 중심취락 형태에 가까운 주거지 규모를 하고 있다.

137) 박영구, 2015, 앞의 논문.

138) 초곡리 유적에서 유구의 배치양상은 장방형의 주거지를 중심으로 주변으로 3~4동의 주거지들이 밀집되어 배치되어 있는데, 이인지구 유적에서도 이와 유사한 양상의 주거지 배치양상이 나타난다.

139) 이성주, 2007, 앞의 책, p. 117-118.



도면 24. 이인지구 유적 취락구성 모식도(제작 : 콘텐츠카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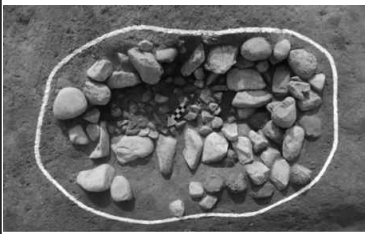
4) 의례공간

분묘(의례공간)와 관련된 유구로는 석관묘 3기가 확인된다. 대부분 청동기시대의 묘제로 지석묘, 또는 석관묘를 생각할 수 있으나 유적의 성격에 따라 석곽묘가 확인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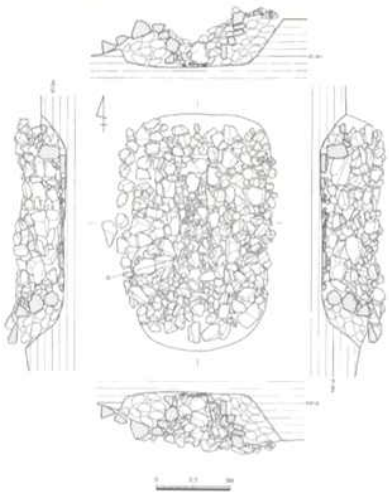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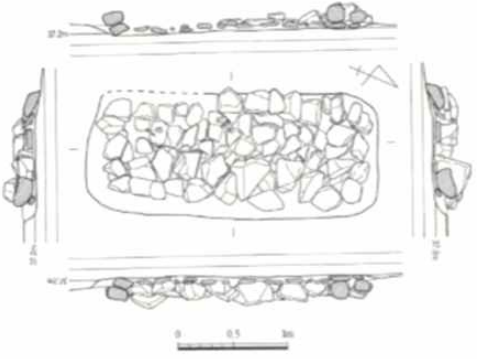
묘의 형태 및 축조방법에 따라 분류가 가능한데, 필자는 현재의 묘 형태만을 가지고 논하였을 때 지석묘 하부구조 또는 석관묘라 생각하였다.

그 이유는 석곽묘의 벽석축조 방법과 유사하지만 삼국시대 석곽묘와는 형태나 구조가 다르고 내부에서 청동기시대 석검이 출토되어 지석묘 하부구조 또는 석관묘로 판단하였다. 위치는 동사면 말단부에서 3기가 확인된다.

<표 40> 이인지구 유적 석관묘 형태¹⁴⁰⁾

이인지구 유적 내 석관묘		
		
석관묘 1호	석관묘 2호	석관묘 3호

<표 41> 이인지구 유적 석관묘 형태와 유사한 유적

유사 석관묘	
	
포항 원동유적 ¹⁴¹⁾	대구 월성동 585번지 유적 ¹⁴²⁾

140) 한빛문화재연구원, 2019, 앞의 보고서.

141)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8, 『포항 원동유적』.

142) 영남문화재연구원, 2007, 『대구 월성동 585번지 유적』.

5) 입구

출입공간은 유적의 남쪽 평지로 생각된다. 이 곳은 북서쪽에 위치한 구릉과 접하고 있고, 유적 내 이 위치 외에는 모든 지형이 사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취락의 배치가 남쪽의 경계부와 접해 공지가 있고 사면으로 주거지가 배치된 것으로 볼 때 위치적으로 출입시설이 있었을 가능성이 제일 크다.

6) 광장

광장의 개념이 무엇이 었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체의 공공집합(공동노동장, 생산물분배장, 의식장)을 통한 공동지였을 것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다¹⁴³⁾. 최근에는 용어의 문제로 인하여 공지¹⁴⁴⁾라 불리기도 하고 연구자들마다 각자의 기준에 맞게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다만 용어의 문제지만 취락 내에 있어서 주거, 의례 공간 외 아무런 시설도 만들어져 있지 않은 지역이 나타나는데 이는 필시 다른 용도의 공간이었음을 추정케 한다. 예를 들어 마을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단체활동 또는 공동의 노동이나 분배 장소가 필요했을 것인데, 취락 내 입지가 좋은 공간을 남겨두어 공공의 목적을 위한 장소로 사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인지구 유적에서도 출입공간과 동일 선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능선이 유적 내에서 공지로 남아있다. 이 공지는 능선중에 해발고도가 가장 높고 경관적으로 가장 뛰어난 입지를 하고 있으나 주거지나 분묘, 기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일정한 공간을 비워두었다는 것은 필시 중요한 목적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인지구 유적도 후기가 되면서 핵가족화로 인한 주거지의 밀집도가 높아지면서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공동의 노동이나, 단체모임 등의 공간이 필요함에 따라 마을에서 입지가 중심이 되는 곳을 비워두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143) 최종규, 1990, 「광장에 대한 인식」, 『역사교육논집』 13:99-108.

144) 국립중앙박물관, 2010, 앞의 책, p. 93.

VII. 맺음말

초곡천 유역은 포항의 북부에 위치한 소하천임에도 불구하고 이인지구 유적을 비롯하여 다수의 청동기시대 취락유적이 발굴조사 되었다. 하지만 기존에 청동기시대 취락 또는 생업에 관한 연구는 편년 또는 유물의 형식분류를 기반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정작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는 미비하였다. 물론 발굴조사의 특성상 한 마을 단위체를 찾아서 발굴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구의 방법이 편중되어 왔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필자는 초곡천 유역의 청동기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고, 마침 발굴조사에 참여한 이인지구 청동기시대 취락유적이 당시 사람들의 주거방식과 생업을 분석하는데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우선 초곡천 유역 청동기시대 취락의 자료를 수집하여 C-14 절대연대에 따라 편년을 나누었다. 편년을 기준으로 주거지의 형태를 분류하였고, 유물을 분류하여 생업 형태에 참고하였다.

그 결과 편년은 전기-중기-후기의 3시기로 구분이 되었고, 입지는 시기구분 없이 모두 구릉과 능선부에 대체적으로 주거지들이 배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거지의 형태는 장방형에서 후기로 갈수록 방형으로 변화하였고, 면적은 전기, 중기에는 대형과 중형의 주거지들이 주류를 이뤘다면, 후기에는 소형의 주거지들이 대부분 확인되었다. 주거지 내 농공구와 수렵 관련 출토유물의 빈도수가 높고, 어망추와 공반되는 주거지가 발견되는 것으로 볼 때 생업이 다양화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초곡천 유역의 취락 입지와 주거형태, 생업 자료를 바탕으로 이인지구 유적에 대한 취락의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인지구 유적은 초곡천 유역에서 유일하게 구릉사면 전체가 발굴된 유적이다. 따라서 주변 지형과 연계하여 취락의 입지, 지형을 분석하여 왜 이인지구에 취락을 조성하게 되었는지 추론해 볼 수 있었고, 더 나아가 취락 내 공간분석을 통해 취락의 구조를 밝힐 수 있었다.

분석결과 이인지구 유적의 시기는 중기에 취락이 시작되어 후기까지 존속하였다. 취락의 구성에 있어서 입지나 지형은 주위 충적지와 동떨어진 구릉사면에 입지하여 조망과 방어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또한 인근의 충적지에서는 농경이, 산지는 수렵활동, 하천에서는 어로활동이 이루어짐에 따라 입지와 지형이 생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형은

방어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데 유적은 북쪽과 남쪽에 학림천과 초곡천을 사이에 두고 위치하여 두 하천이 자연 환호의 역할을 대신하였고, 취락 내 급한 경사면은 2차적인 방어함에 따라 취락을 방어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었다.

유적 내 공간구성은 주거, 의례, 광장, 출입구가 확인되었다. 구성별 특징을 살펴보면 주거는 구릉의 사면을 돌아가며 분포하고, 취락 내 한쪽으로는 석관묘를 조성하여 의례공간을 분리하였다. 그리고 유적지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조망이 좋고 지형이 완만한 중앙부는 공지로 남겨 광장의 기능을 하였다. 출입구는 남서쪽 산지와 접한 곳으로 제한하였고, 나머지 삼면은 경사가 급하여 사람이 출입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다.

전체적인 취락의 구성을 살펴볼 때 남서쪽 구릉으로 입구가 만들어져 있고 입구를 지나 마을로 들어서면 넓은 광장이 나타난다. 광장의 남동편은 의례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마을의 집들은 사면을 돌아가며 산을 등지고 하천을 바라보는 배산임수 지형에 주거지들이 입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인지구 유적은 생산, 방어, 의례 등 여러 기능을 수행했던 취락으로, 방ersh설로는 하천과 자연 경사면을 이용한 환호시설로 구성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구성을 볼 때 이인지구 유적은 소위 마을이라 부를 수 있는 조건을 모두 갖춘 유적으로 추정된다. 결론적으로 초곡천 유역에서 조사된 13곳의 여러 유적 중에 중심마을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만큼 중요한 유적으로 생각된다.

이상으로 초곡천 유역 중 하나의 유적인 포항 이인지구 유적을 통해 당시 사람들의 생활방식을 추론해 보았다. 이번 연구는 미비 하지만 청동기시대 취락의 형태와 구조를 밝히는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하지만, 부족한 자료로 연구 방법과 해석에서 연구자의 주관적인 해석에 의존했던 한계는 많은 아쉬움을 남게 한다. 향후 포항 이인지구 유적과 유사 또는 같은 형태의 취락이 발굴 조사된다면 청동기시대 취락에 대한 보다 폭넓은 연구가 진행될 것이라 생각하며, 이 글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형태·추연식·나경임, 1993, 「방사성탄소연대측정과 고정밀보정 방법」, 『한국고고학보』 30:5-61.
- 강병학, 2002, 「한반도 무문굽다리토기 연구 -형식분류를 통한 편년 및 성격추론」, 한양대학교대학원 문화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2001, 『진주 대평리어은2지구 선사유적 I』.
- 국립문화재연구소, 2004, 『한국고고학전문사전-청동기시대 편-』. 서울: 학연문화사.
- 국립중앙박물관, 2010, 『청동기시대 마을풍경』, 서울: 그래픽네트.
- 국가수자원관리 종합정보시스템, (<http://www.wamis.go.kr>).
-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고고학사전, (<http://portal.nrich.go.kr/kor/>).
- 권승록, 2014, 「밀양강유역 청동기시대 취락연구」, 영남대학교대학원 문화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 경상북도, 2008, 「초곡천 하천정비기본계획 보고서」.
-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5, 『포항 호동유적 - 1지구-』.
- _____, 2006, 『포항 남송리 유적』.
- _____, 2007, 『포항 삼정1리 유적 I』.
- _____, 2008, 『포항 호동유적 II』.
- _____, 2011, 『포항 성곡리 I·II유적』.
- _____, 2011, 『포항 남송리 유적 I』.
- _____, 2011, 『포항 남송리II·III유적』.
- 경북대학교박물관, 2013, 『산청 옥산리 유적』.
- 김권구, 2005, 『청동기시대 영남지역의 농경사회』, 서울: 학연문화사.
- 김현식, 2006, 「울산식 주거지 연구」, 부산대학교대학원 고고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도현, 2008, 「청동기시대 수렵과 채집」, 『한국청동기학보』 3:19-34.
- 김권구, 공민규, 2014, 『청동기시대의 고고학 3 - 취락-』, 서울: 서경문화사.
- 김장석·황재훈·김준규·오용제·안승모·성춘택·최종태·이창희, 2018, 「한국 방사성탄소연대 이상연대치의 선별과 검증」, 『한국고고학보』 107:124-165.
- 동진숙, 2003, 「영남지역 청동기시대 문화의 변천」, 경북대학교대학원 고고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 박영구, 2015, 「동해안지역 청동기시대 취락 연구」, 영남대학교대학원 문화인류학과 박사학위논문.
- _____, 2015, 『동해안지역 청동기시대 취락과 사회』, 서울: 서경문화사.

- 배군열, 2015, 「형산강유역 청동기시대 취락연구」, 경북대학교대학원 문화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 서길덕, 2006, 「원형점토띠토기의 변천과정 연구 -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세종대학교대학원 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 성림문화재연구원, 2009, 『포항 대련리 청동기시대 취락유적』.
- _____, 2012, 『포항 대련리(학당골)청동기시대 취락유적』.
- _____, 2012, 『포항 이인리 청동기시대 취락유적』.
- _____, 2012, 『포항 이인리 청동기시대 취락유적Ⅱ』.
- 손준호, 2006, 「한반도 청동기시대 마제석기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문화재학협동과정 고고학전공 박사학위논문.
- 심수연, 2010, 「영남지역 두형토기 연구」, 영남대학교대학원 문화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 안재호, 2016, 『청동기시대의 고고학 2 편년』, 서울: 서경문화사.
- 엄윤정, 1999, 「울산지역 청동기시대 취락과 주거의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주거지 발굴유적을 중심으로-」, 울산대학교대학원 건축학부 석사학위논문.
- 영남문화재연구원, 2000, 『포항 초곡리 유적』.
- _____, 2002, 『울산 천상리 취락유적』.
- _____, 2007, 『대구 월성동 585번지 유적』.
- _____, 2014, 『포항 초곡리 취락유적』.
- _____, 2015, 『대구 팔달동 유적Ⅱ,Ⅲ』.
- 이용조, 1977, 「한국고고학 편년에 대한 연구-MASCA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 해석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5:216-218.
- 이민석, 2003, 「한국 상고시대 노시설 연구」, 전북대학교대학원 고고문화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성주, 2007, 『청동기·철기시대 사회변동론』, 서울: 학연문화사.
- 이화영, 2008, 「청동기시대 적색마연호의 변천」, 전남대학교대학원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형원, 2009, 『청동기시대 취락 구조와 사회조직』, 서울: 서경문화사.
- 이창희, 2011, 「방사성탄소연대결정법의원리와활용(Ⅱ)」, 『한국고고학보』 81:269-291.
- 이영문, 2013, 『한국 청동기시대 편년』, 서울:서경문화사.
- 이도현, 2014, 「형산강유역 청동기시대 주거지 연구」, 영남대학교대학원 문화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청규, 손준호, 2014, 『청동기시대의 고고학5 - 도구론-』, 서울: 서경문화사.
- 창원대학교박물관, 2003, 『울산 방기리 청동기시대 취락』.
- 최성락, 1982, 「방사성탄소측정 연대 문제의 검토」, 『한국고고학보』 13:61-95.
- 최종규, 1990, 「광장에 대한 인식」, 『역사교육논집』 13:99-108.
- 최규진, 2016, 「청동기시대 형산강유역 인구추이와 사회구조」, 계명대학교대학원 역사고고학과 석사학위논문.
- 토양환경정보시스템, 흙토람 (<http://soil.rda.go.kr>).
- 한국고고학회, 2002, 『한국농경문화의 형성』, 서울: 학연문화사.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3, 『포항 원동 3지구 유적』.
- _____, 2008, 『포항 원동 2지구 유적』.
- _____, 2008, 『포항 원동유적』.
- 한빛문화재연구원, 2012, 『포항 성곡리 유적』.
- _____, 2019, 『포항 이인리 유적』.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www.aks.ac.kr>).
- 황현진, 2003, 「영남지역의 무문토기시대 지역성 연구 -동남해안 무문토기문화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대학원 고고학과 석사학위논문.

A Study on the Settlement of Iin jigu in Pohang through the Relics of the Bronze Age

Jang, jung min

Department of Cultural Resources Studied

The Graduate School /Graduate

Gyeongju Univre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ang, Bong Won

(Abstract)

In this study, the structure of the Bronze Age village remains of Iin jigu, Pohang, that were excavated in Chogokcheon basin located in Heunghae-eup, Pohang-si, was examined. Although Chogokcheon in Iin jigu, Pohang, the site of the study, is a branch of Hyeongsan river, twelve remains were distributed adjacent to and around Chogokcheon. However, it was difficult to discover the characteristics of villages, as the areas of excavation of most remains were small and only part of the villages was investigated. Therefore, the remains of Iin jigu are large scale village remains where entire hill area was excavated, and they were regarded as important remains to figure out the characteristics of villages during the Bronze Age.

The research findings reveal that the remains of Iij jigu began to be built in the middle of the Bronze Age and subsisted until the late Bronze Age. In terms of location and geographical conditions for the creation of villages, the remains of Iin jigu were located on the hillslope away from the surrounding alluvion, with favorable conditions for viewing and defending. Furthermore, as farming took place in the nearby alluvion, hunting in mountainous areas, and fishing in rivers, it is believed that the location and geographical conditions were closely related to the livelihood

of the people. Also, it was verified that the geographical conditions were closely related to defense. Haklimcheon was located on the north side of the historic site and Chogokcheon was located on the south side, so the two rivers served as natural protection for the site. The steep slopes in the village served as a secondary defense, providing the best conditions for defending the village. Moreover, in terms of the spacial composition of the historic site, the residential areas were distributed around the slope of the hill, and on the side of the village, stone coffins were built to separate the ritual space. In addition, the central part of the site with relatively good views and gentle geographical conditions was left as a vacant land to function as a square. The entrance was restricted to the area close to the southwestern mountain area, and other three sides would have been relatively difficult for people to access because of the steep slope.

With this, the way of life of the people at the time was deduced through the remains of Iin jigu, Pohang, one of the historic sites of the Chogokcheon basin. This study, albeit incomplete in many ways, sought to put significance in discovering the form and structure of the villages during the Bronze Age. The limitations of relying on subjective interpretations of the researcher in research methods and interpretations due to lack of data leave much to be desired. If a village similar to or the same type of the remains of Iin jigu, Pohang is excavated and investigated in the future, a broader study on the villages during the Bronze Age is considered to be carried out, and it is expected that this paper will be of any help to that.